

전략연구 2013-02

충청남도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이인배 · 박철희 · 김경태 · 권미정

발 간 사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시사하듯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는 물질적·경제적 욕구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향수 제고에 대한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 즉 문화권으로 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지역간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문화 접근성 확대사업과 문화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의 문화복지 측면까지 정책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충남의 문화·여가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여가향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등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문화바우처(voucher)사업도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과 과제도출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결과를 정책화하여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도 제고에 이바지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인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박철희, 김경태, 권미정 등의 내부연구진과 충남대학교 정선기 교수 등의 외부연구진, 그 동안에 많은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주신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연구심의위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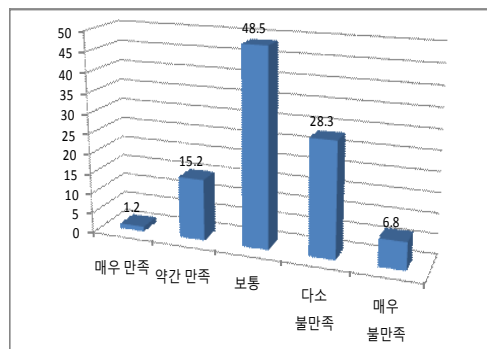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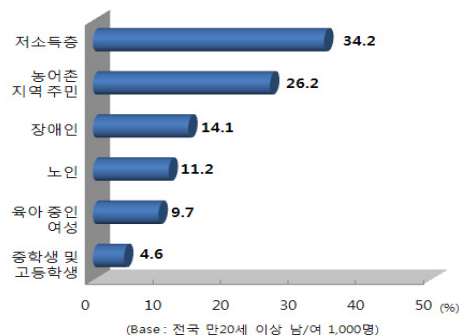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는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하에서 추진하였다.

- 문화복지정책은 일반 국민 문화향유기회와 취약계층 문화복지로 이원화되고 있다.
-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인식 조사결과, 소외계층은 저소득층, 농어촌지역주민 순으로 나타나 농어촌중심지역의 충남에서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 충청도민의 행복지수 측정 조사연구 결과에서도 문화·여가부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도민 문화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 따라서 충청남도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단계적인 개선 및 다양한 지원시책의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예술관광 동향 분석

[그림 1] 문화예술 향유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 연구조사 결과.

[그림 2] 충청도민의 문화·여가 전반적 만족도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의 도출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충청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책의 지침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문화복지에 대한 이론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① 문화복지의 개념 정의와 대상 영역

문화복지란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로 볼 수 있다.

- 문화복지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문화적·정신적 풍요와 감수성 제고, 창의성 증진, 사회적 응집력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등)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 또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핍을 가진 문화적 약자를 예방, 치료에 중점하고 있다.
-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요구 및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의 총체적 지칭이다.

문화복지는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서비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분석의 대상은, 크게 지원형(선택적) 문화복지대상과 참여형(보편적) 문화복지대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 지원형 문화복지대상은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여 법적·제도적으로 문화향유를 위해 공공에서 정책지원을 받는 대상이다.
- 참여형 문화복지대상은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은 계층에 속해 있지만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② 문화복지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최근에는 문화복지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변화하면서 지원대상의 범위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명확해지면서, 문화복지 정책의 기초가 크게 ‘문화와 일상생활의 연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로 구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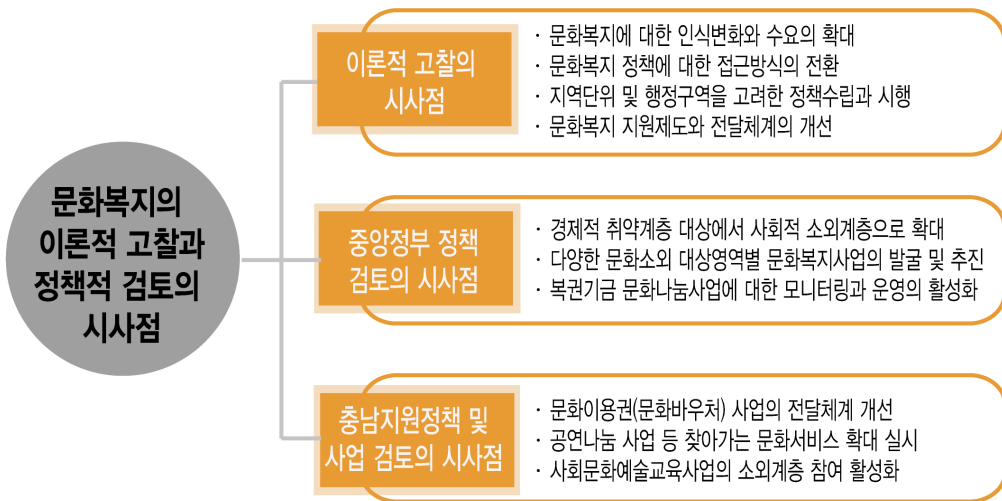
- 문화복지정책 사업 중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나눔사업으로 ①문화바우처사업, ②공연나눔사업, ③문학나눔사업, ④전시나눔사업, ⑤창작나눔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 이와 같이 문화복지 사업은 복권기금 전입 문화나눔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남의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최근 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문화소외 취약계층에 문화향유와 기회를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충남의 공연나눔사업은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을 예술인·연예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써, 이는 문화향수권의 신장 및 문화복지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 운영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재정확보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충남의 사랑티켓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예산의 한계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및 공모활동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충남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는 ①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②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③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향유기회 확대에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사업이나 문화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복지의 이론적 고찰과 정책적 검토의 결과 도출된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화복지 이론고찰과 정책검토의 시사점

2)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분석

① 충남 도민의 문화활동 성향분석

충남도민의 5명 중 1명 정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전체적인 문화향유를 위한 영화관람이나 대중공연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문화생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 문화생활에 관심이 없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람의 경험도가 높아 이를 고려한 문화활동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문화활동의 관심도는 지역별로 동지역(55.4%), 읍지역(55.9%) 보다 면지역은 37.0%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제 문화활동도 동지역의 경우는 87.8%가 참여하고, 면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3%를 차지하여 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단위를 기존의 시·군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한 단계 현장수요기반 단위로 재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1〉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예술활동과 관람지역

(단위 : %)

구분		활동 및 관람지역				전체
		충남도내	대전권	수도권 (서울 경기 등)	기타지역	
소득	100만원 이하	100.0	-	-	-	100.0
	101~200만원 이하	93.0	7.0	-	-	100.0
	201~300만원 이하	78.0	20.3	1.3	0.4	100.0
	301~400만원 이하	86.0	10.7	2.8	0.5	100.0
	401~500만원 이하	82.4	13.7	3.9	-	100.0
	501만원 이상	75.0	20.0	5.0	-	100.0
	전체	86.7	11.5	1.6	0.2	100.0
거주지	동	87.9	9.5	2.4	0.2	100.0
	읍	84.7	13.8	1.1	0.4	100.0
	면	85.8	14.2	-	-	100.0
	전체	86.6	11.6	1.6	0.2	100.0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과 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예술활동시 우선 고려요소로는 문화예술행사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람비용을 고려한 행사기획, 그리고 소득집단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과 같은 세심한 시책이 필요하다.

-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시 직접적인 창작활동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과 시간이며, 이는 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동호회활동 참여비용은 소득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을 위한 필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은 동지역의 주민이 읍·면지역의 주민보다 더 많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달리 읍(도농복합지역), 면(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문화시설 이용만족도에서도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고, 문화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과 연계한 각종 노력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소득수준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문화시설 이용에도 소득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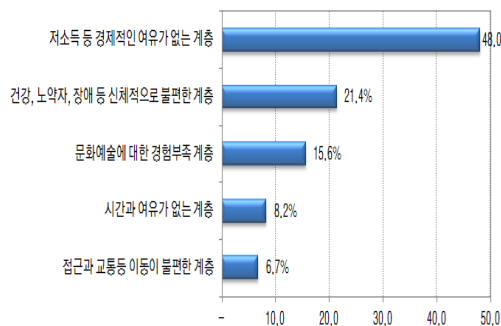
② 충남 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분석

충남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저소득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 (48.0%)으로 응답하고, 다음으로 ‘건강, 노약자,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계층’ (21.4%),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계층’ (15.6%),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계층’ (8.2%),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 (6.7%)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제, 사회, 지리적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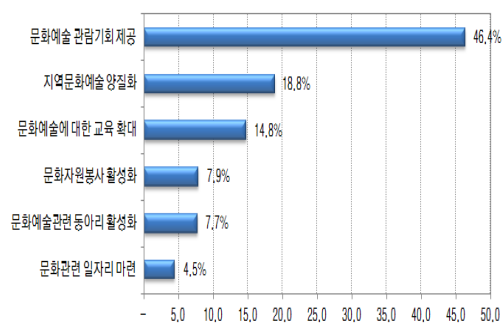
-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그렇다’고 38.8%가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여 도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으로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으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문화적 향유에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충남지역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공연 및 전시관람료 비용 지원’ (30.3%),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21.5%), ‘문화 전시시설 확대’ (19.9%), ‘찾아가는 공연 확대’ (19.1%) 순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일차적인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46.4%), 지역 문화예술 양질화’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4〕 충남도민이 인식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그림 5〕 문화소외계층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③ 충남도민의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사업 참여 실태분석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참여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의 17.7% 응답자가 참여경험을 하였다.

- 참여경로는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38.5%),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를 통해’ (38.0%),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 (21.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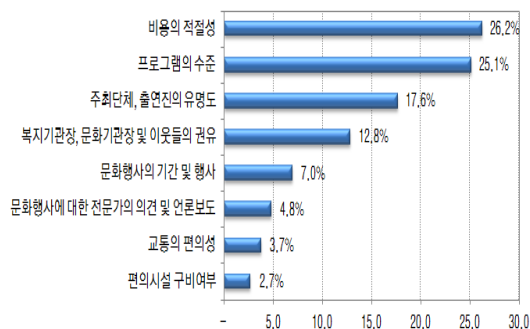
- 참여동기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 (46.5%),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이 좋아서’ (27.3%),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비용의 적절성’ (26.2%), ‘프로그램의 수준’ (25.1%)의 순이며, 문화나눔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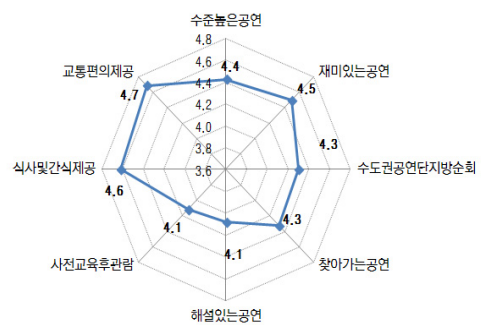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경험의 어려움은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19.5%), ‘교통이 불편하다’ (15.5%),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14.2%) 등의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 이외에도 정보의 문제나 함께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교통편의 제공’ 이 5점 만점에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4.6점), ‘재미있는 공연’ (4.5점), ‘수준 높은 공연’ (4.4점) 순인데, 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임을 말해주고 있다.

- 소득수준별 문화나눔사업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교통편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공연의 재미’, ‘공연의 해설’, ‘사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참여대상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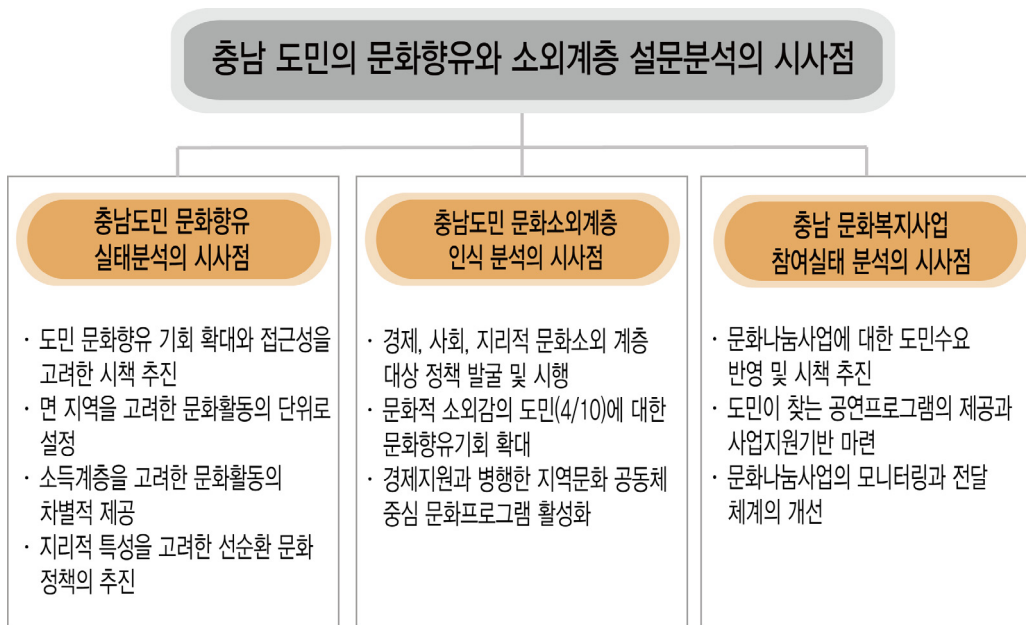


[그림 7] 문화나눔사업의 지원분야별 필요성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은 ‘문화나눔사업의 지원금액 인상’ (46.8%),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교육 등)’ (30.8%) 등의 순인데, 소득집단별 차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지원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분야의 확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등을 강조하였다.

- 거주지별로 읍·면지역의 경우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동지역의 경우는 ‘지원금액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 설문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 설문분석의 시사점

3) 정책제언

① 충남 문화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도민 문화향유 인식변화와 문화복지 정책영역의 전환, 둘째 문화 소외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지원사업 추진, 셋째 문화소의 지원시책의 발굴 및 추진과 전달체계의 개선, 넷째 지역생활권 문화활동 참여 제고와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 등이다.

② 목표와 추진전략

충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의 정책목표는 ‘다함께 문화를 누리는 행복한 충청남도’로 하여, 도민과 소외계층이 다함께 문화복지를 향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충청남도를 지향해야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문화복지의 정책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원형 · 참여형 문화복지 시책 병행으로 정책기조 전환
-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화로 복지전달체계 통합화
-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수혜대상 선정과 단계별 문화복지사업 시행
- 충남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복지 운영프로그램 활용과 메세나 지원사업 강화

③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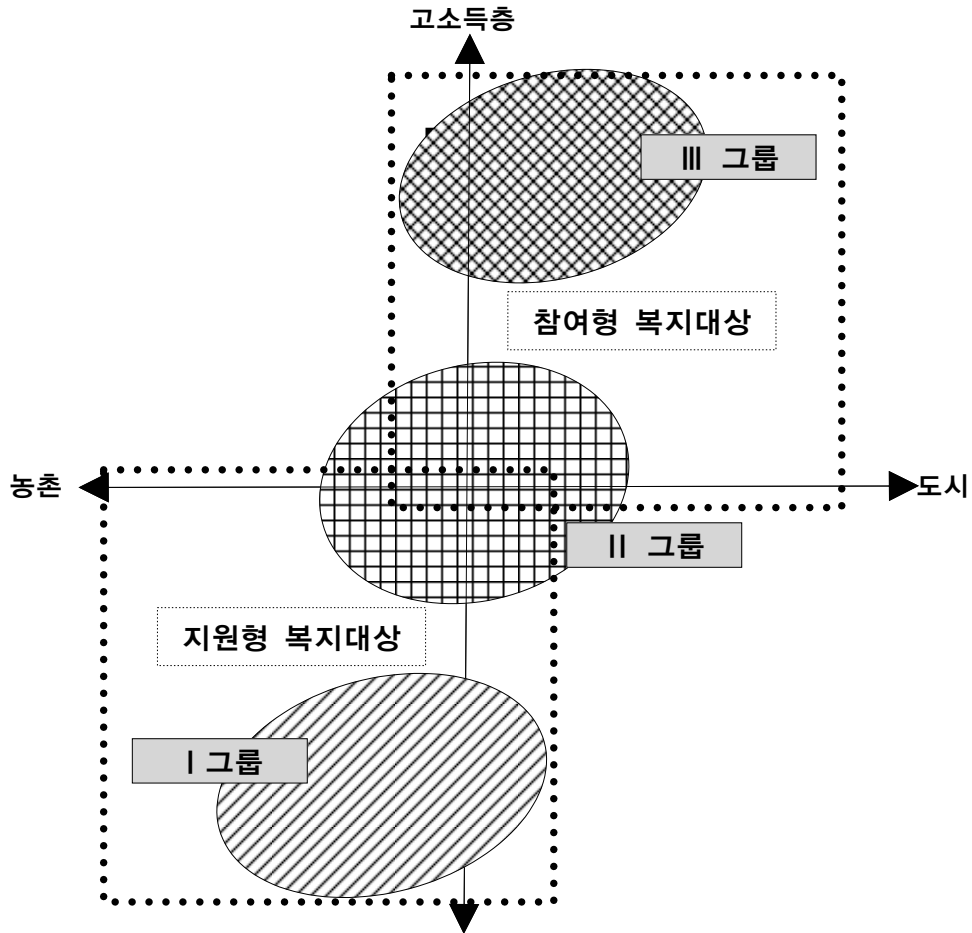
■ 지원형 · 참여형 문화복지 시책 병행으로 정책기조 전환

- 문화복지 정책기조의 전환을 위한 문화복지 시책으로, 지원형은 기존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원형과 참여형은 수요자 대상별로 시책을 달리하여 수혜대상자에 적합한 시책추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형은 사회 · 지리 · 특수여건에 따라 지역문화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충남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이다. 충남은 지난 2002년 3월 30일에 ‘충청남도 조례 제2981호’에 의하여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충청남도의 문화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둘째, 지원형 문화복지와 참여형 문화복지를 병행한 문화안전망을 구성한다. 충청남도에서는 문화복지 정책을 문화 향유 수요자를 고려한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유형별 문화복지 시책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시설·공간에 쉽게 접근하고,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셋째, 충남도민 문화향유실태 정기조사 및 문화향유 목표기준 설정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이다.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 여가활동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자료분석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하고, 충남의 문화예술중장기 계획(계획수립 중)에 반영하여 문화향유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화로 복지전달체계 통합화

- 첫째는 충남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운영체계의 구축이다. 충남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복지시책이 관련부서와 예산이 분리된 다층구조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내려가면서 실행부서나 담당자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므로 문화복지 전달체계는 실행단계에서부터 통합운영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대 상	정책 추진방향
I 그룹 (지원형)	농촌저소득 · 도시저소득층 지리적 소외(농산어촌 등) 취약계층(장애,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정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문화바우처 사업 등)
II 그룹 (지원+참여형)	도시 · 농촌 중산층(차상위), 청소년 이주노동자 · 새터민, 다문화, 군인 등 사회소외계층(재활원, 보육원 등)	수요자형 문화향유 기회 확대
III 그룹 (참여형)	도시고소득계층(비향유자) 농촌고소득계층(비향유자) 도시산업체근로자(시간 · 경제적 제약)	지역문화공동체 시스템 구축

[그림 9] 충남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대상 구분

- 둘째는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화’ 및 문화복지인력의 확충과 전문화이다.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운영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현재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문화복지사’ 제도에 맞추어 충청남도에서도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배치, 적극 활용토록 한다.
- 셋째, 충남에는 문화예술 관련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들은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공예체험, 문화예술공연, 지역문화예술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 주민생애주기와 대상자별 맞춤형 문화복지사업 시행

- 첫째는 맞춤형 · 생애주기 및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단계적 수혜 정책대상의 설정으로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초점을 둔 생애주기별 평생 문화학습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위주에서 유아에서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 체계를 재구축해야 하며, 따라서 경제적 · 사회적 여건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수요 · 특성 · 주요 장애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충남의 실정에 맞도록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한다.
- 둘째는 단계적 정책수혜대상의 설정과 기존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를 추진한다. 전국적인 문화복지 정책을 위한 정책대상의 설정 기준으로 이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문화복지 수요자들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에 이르는 문화복지 수혜대상을 유형화 하고, 이에 따른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단계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과 장애인 · 독거 노인 · 다문화가정 ·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 2단계 수혜자 : 지리적 소외계층

* 3단계 수혜자 : 군인, 아동 · 청소년, 중장년층, 전업주부 등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되거나 문화복지적 접근성이 취약한 여건에 있는 일반 주민들

■ 충남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생태계 구축

- 첫째는 충남문화재단 중심의 문화복지시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업무상으로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급자들의 복지업무는 다루고 있으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지원업무를 포함하여 도민과 소외계층의 참여형 복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는 충남 문화거버넌스로 문화복지정책 추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충남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충남 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조직 및 단체, 개인사업자를 문화복지 대상자를 연결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충남문화재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복지전담인력),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인/단체 대표’ 등이 서로 협력·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는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문화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지역연고 문화예술인의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복지 운영프로그램 활용과 메세나 지원사업 강화

- 첫째는 지역 문화시설·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시책의 실시이다. 충남에서도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전통문화와 지역고유 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역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주도하는 문화복지 운영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행정과 전문가, 문화예술 민간단체가 상호 연결되는 ‘충남형 주민자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둘째는 지역내 기업의 문화지원 사례를 보면, 공연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간 조성 지원, 전통문화보존사업, 기초예술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양성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메세나)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한 메세나 지원사업의 범위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되, 사업주관은 충남문화재단 설립 후 재단에서 충남 소재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체계	8
4. 선행연구와 차별성	10

제2장 문화복지 이론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1. 행복과 문화, 미래 문화트랜드	12
1) 행복과 문화의 관계	12
2) 행복한 삶과 문화복지의 관련성	15
3) 미래 문화트랜드의 변화전망	17
2. 문화복지 관련 이론	18
1) 문화복지의 개념정의	18
2) 문화복지의 대상과 영역	21
3) 문화복지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	31
3. 문화복지의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34
1) 국내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현황	34
2) 문화복지정책에서 문화 소외계층 지원대상	36

3) 중앙정부 문화복지 정책과 사업 현황	39
4)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과 사업현황	50
4. 이론고찰과 정책검토의 시사점	58
1) 이론고찰의 시사점	58
2) 중앙정부 정책검토의 시사점	60
3) 충남 문화복지 정책과 지원사업 검토의 시사점	62

제3장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분석

1.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의식조사 분석	64
1) 조사분석의 개요	64
2.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	67
1) 충남도민의 문화활동 성향 분석	67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성향 분석	83
3) 문화시설 이용성향 분석	87
3.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과 문화복지사업 참여 실태	93
1)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93
2)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	98
4. 종합분석과 과제도출	106
1) 충남도민의 문화활동 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106
2)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110
3)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112
4)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종합분석과 시사점	114
5) 충남도민의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 종합분석과 시사점	117
6) 정책과제의 도출	120

제4장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 지원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24
1) 접근 틀	124
2) 기본방향	127
2.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28
1) 정책목표	128
2) 추진전략	128
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129
1)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129
2)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136
3) 문화소의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140
4)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141
5) 지역 문화시설·공간의 활용과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	14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48
1) 요약 및 종합정리	148
2) 정책제언	154
2. 향후 연구과제	159
□ 참고문헌	160
□ 부록 1 : 설문지	162
□ 부록 2 : 1.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1차 연구회 결과정리 ...	168
2.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2차 연구회 결과정리 ...	173

표 목 차

〈표 1〉 연구회 개최	8
〈표 2〉 외부 전문가 원고 집필	8
〈표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표 4〉 문화복지의 개념, 대상, 목표, 영역	22
〈표 5〉 서민과 문화취약계층의 관계	23
〈표 6〉 문화복지 지원사업 대상	25
〈표 7〉 2008년 수립된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27
〈표 8〉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비율과 계층적 특성	29
〈표 9〉 취약계층의 구분기준과 주요 대상	36
〈표 10〉 사회복지 영역별 취약계층의 범위	37
〈표 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자 규모(2010년)	38
〈표 1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내용 총괄	40
〈표 13〉 문화나눔사업 현황(2007~10년)	43
〈표 14〉 문화나눔사업 예산 현황(2011년~2012년)	44
〈표 1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현황(2011년~2012년)	46
〈표 16〉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예산 현황(2011년~2012년)	47
〈표 17〉 사회경제적 특성별 문화예술 관람자의 비율	49
〈표 18〉 충청남도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	50
〈표 19〉 문화이용권 사업추진 현황(전국대비)	51
〈표 20〉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이용권 사업추진 현황	51
〈표 21〉 2012년 충남 문화이용권 사업성과와 문제점	54
〈표 22〉 2013년 사랑티켓 사업추진계획	55
〈표 23〉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2012-13년)	56
〈표 24〉 2013년 사회(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계획	57

〈표 25〉 조사개요 및 설문내용	65
〈표 26〉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66
〈표 27〉 응답자의 직업과 거주지	67
〈표 28〉 소득과 거주지별 문화예술 관심의 차이분석	69
〈표 29〉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활동 참여 및 관람경험	71
〈표 30〉 시군별 문화활동 참여 및 관람경험	72
〈표 31〉 소득 및 거주지별 하루평균 문화활동시간	74
〈표 32〉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예술활동 관람지역	75
〈표 33〉 시군별 문화예술활동 및 관람지역	76
〈표 34〉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예술 활동 소요비용(1개월)	79
〈표 35〉 문화예술행사 만족도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 분석	80
〈표 36〉 소득과 거주지별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부담요인	85
〈표 37〉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	87
〈표 38〉 소득 및 거주지별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경험	88
〈표 39〉 시군별 문화시설 이용목적	90
〈표 40〉 소득집단별 지역문화시설 이용여건 만족도 차이	91
〈표 41〉 시군별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93
〈표 42〉 소득집단 및 거주지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99
〈표 43〉 문화나눔사업 지원분야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 분석	103
〈표 44〉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104
〈표 45〉 시군별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105
〈표 46〉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분야	106
〈표 47〉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107
〈표 48〉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시간	107
〈표 49〉 문화예술활동 및 관람지역	108
〈표 50〉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 경로와 동반자	108
〈표 51〉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소요비용	109
〈표 52〉 문화예술행사 참여 여건의 만족도	109

〈표 53〉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선 고려요소	110
〈표 54〉 문화예술창작활동과 동호회 참여여부 및 부담요인	111
〈표 55〉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112
〈표 56〉 문화시설 이용경험과 이용목적	113
〈표 57〉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113
〈표 58〉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114
〈표 59〉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소외계층 범위	115
〈표 60〉 본인의 문화소외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116
〈표 61〉 문화소외 해소방안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117
〈표 62〉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과 경로 및 참여동기	117
〈표 63〉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과 참여시 어려운점	118
〈표 64〉 문화나눔사업 지원분야별 필요성	119
〈표 65〉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120
〈표 66〉 충남 문화복지 시책의 통합화 방안	137
〈표 67〉 전국 및 충남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2년)	138
〈표 68〉 충남 문화관련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2013년)	139
〈표 69〉 문화복지사업의 재조정안	141

그림 목 차

[그림 1]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	3
[그림 2] 충남도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
[그림 3]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6
[그림 4]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7
[그림 5] 연구수행체계	9
[그림 6] 우리나라 문화·여가 생활의 현실	13
[그림 7] 문화·여가와 행복과의 관계설정	14
[그림 8] 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서 문화복지 영역	21
[그림 9] 본 연구의 문화소외계층 연구대상 영역	30
[그림 10] 시기별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와 주요사업	35
[그림 11] 2004-201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기금규모 추이	41
[그림 12]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체계도	45
[그림 13] 문화이용권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및 재참여 의향	52
[그림 14] 이론고찰과 정책검토의 시사점	63
[그림 15]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68
[그림 16] 문화활동의 관심분야	69
[그림 17]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70
[그림 18] 문화예술활동 참여횟수	73
[그림 19] 평균 문화예술활동 시간	73
[그림 20]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지역	75
[그림 21]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 경로	77
[그림 22] 문화예술 관람 활동 동반자	78
[그림 23] 문화예술활동 소요비용(1개월)	78
[그림 24] 문화예술관람 행사 만족도	80

[그림 25] 문화예술행사에 관람하지 못한 이유	81
[그림 26]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우선 선택요소	82
[그림 27] 문화예술행사의 관람을 위한 보완사항	82
[그림 28]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 여부	83
[그림 29]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참여 여부	84
[그림 30]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참여 부담요인	85
[그림 31]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86
[그림 32]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경험	88
[그림 33] 문화시설 이용목적	89
[그림 34] 지역문화시설 이용 여건별 만족도	91
[그림 35]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92
[그림 36]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	94
[그림 37]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94
[그림 38] 본인의 문화소외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	95
[그림 39] 본인이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이유	96
[그림 40] 문화소외 해소방안	97
[그림 41] 문화소외계층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프로그램	97
[그림 42] 문화나눔사업 참여 경험	98
[그림 43] 문화나눔사업 참여 경로	99
[그림 44] 문화나눔사업 참여 동기	100
[그림 45]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	101
[그림 46]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어려운점	101
[그림 47] 문화나눔사업의 지원분야별 필요성	102
[그림 48]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103
[그림 49]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 설문분석의 시사점	123
[그림 50] 접근 틀	124
[그림 51] 문화복지 정책의 접근 개념	125
[그림 52]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대상 구분	126

[그림 5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기본방향	127
[그림 54] 충남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129
[그림 55]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	136
[그림 56] 지역자치센터 중심의 문화복지사업 시행체계 구상도	139
[그림 57] 충남문화재단 주요업무(안)	142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문화복지는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 조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며,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부각되면서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면 문화복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시사하듯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는 물질적·경제적 욕구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초반부터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복지정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적, 질적으로 큰 확대가 이루어졌다(양혜원, 2011).

(2) 문화복지 정책은 일반 국민 문화향유 기회와 취약계층 문화복지로 이원화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국민문화향수”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문화부가 독립되면서 복지적 측면의 문화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초기단계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온 문화복지정책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분화되면서 점차 일반국민을 위한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취약계층을 향한 문화복지 강화 정책으로 이원화 되었다.

국민의 문화향수 제고에 대한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 즉 문화권으로 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소득수준·지역간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문화 접근성 확대사업과 문화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의 문화복지 측면까지 정책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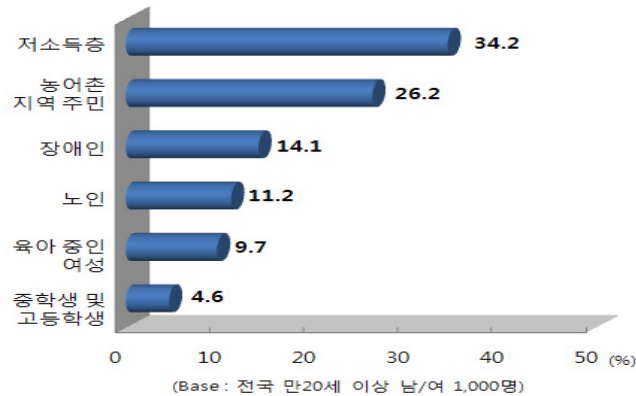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을 따라 가기에 급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을 확대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정명희, 2010)고 지적하고 있다.

(3) 문화예술 향유 인식조사결과 소외계층은 저소득층, 농어촌지역주민 순

국민 문화예술관광 동향분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의 문화복지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향유(관람 및 참여)를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저소득층(34.2%)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26.2%), 장애인 (14.1%), 노인(11.2%), 육아 중인 여성(9.7%)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특이하게도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노인, 장애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저소득층 이외에도 문화복지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문화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농어촌에 읍·면지역의 주민,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예술관광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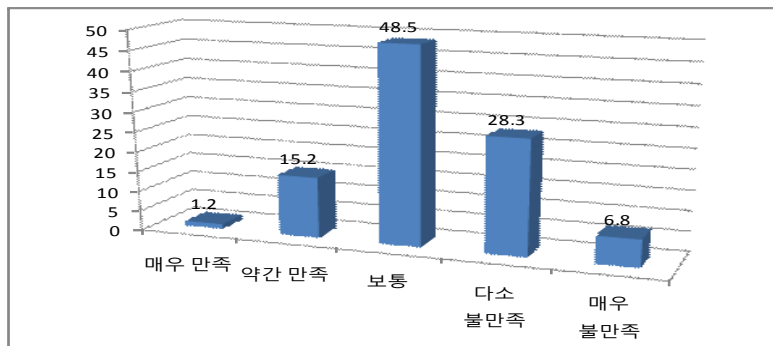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운 사람

(4) 충남 도민 행복지수 측정 연구에서 문화·여가부문 만족도가 낮음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분석(충남발전연구원, 2012)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의 경우 충남도민은 45.8% 만이 경험을 하여 16개 시도 중 16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경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레저시설 이용여부의 경우도 충남도민은 62.3% 만이 경험하여 16개 시도 중 12위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문화·여가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 35.1%로 다음 순위이고, 만족이 16.4%로서, 충남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여가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 연구조사 결과.

〔그림 2〕 충남도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 충남 문화복지정책의 확대와 다양한 지원시책의 발굴과 시행 필요

충남은 문화복지차원에서 지역공연예술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을 비롯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충남사랑티켓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총 3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45개 작품에 71회 공연활동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 추진해오는 충남사랑티켓사업은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를 사업주관처로 하여 2011년에는 총 사업비 1억4백만원을 지원하여 185작품의 공연활동에 입장권 12,257매를 구입하여 도민의 문화향유권신장에 기여하였다(충청남도, 2012).

충남이 시행해오고 있는 문화바우처(voucher)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보고 즐길 수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등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선정된 프로그램 중 직접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며, 1인당 지원한 도액은 5만 원이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사업은 2012년 문화바우처 예산 15억 3230만 원 중 5억 3,875만(10월 5일 기준)원을 사용, 총예산 대비 35.2%를 소진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45%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문화바우처제도는 그동안 카드 발급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 농촌 노인 등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지역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바쁜 농사일 등으로 인해 영화·연극 관람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충남도는 직접 농촌 지역 노인 등을 모셔 오거나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기획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카드 소지자 30여 명 이상을 모집, 차량 및 간식을 지원해 공연·전시장을 찾는 ‘플러스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인층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특화를 모색, 문화바우처 이용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충청투데이, 2012, 10. 17)고 보도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충청남도의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과 과제도출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결과를 정책화하여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도 제고에 이바지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소외계층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충남 문화소외계층의 대상범위, 계층 및 유형을 제시한다.

둘째, 충남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문화향유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문화복지정책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충남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계획의 수립과 세부실천 전략에 적합한 지원 시책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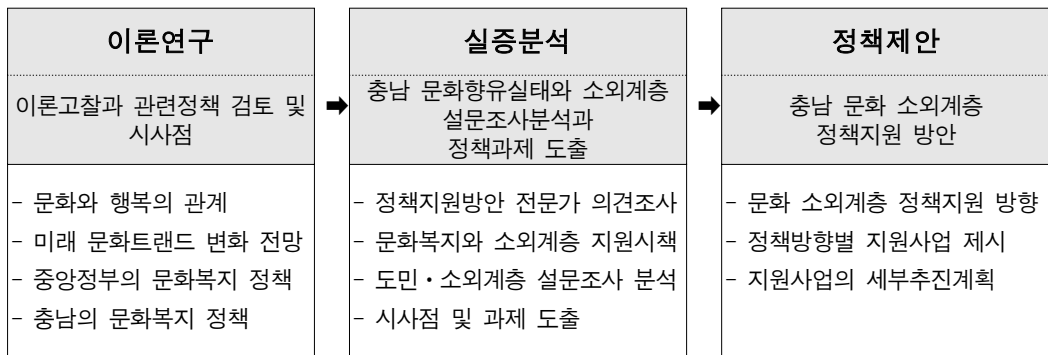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로는 2012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하고, 통계자료 분석은 문화복지와 관련된 최근 10여년 간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대상은 광의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지원 대상이 아닌 참여형 복지로서 문화적 소외계층과 법제도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지원형 복지의 문화적 소외계층의 두 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크게 문화복지 관련 이론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중앙정부와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과 소외계층 지원시책의 분석과 시사점,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실태 및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과 정책과제 도출,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복지 관련 이론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에서는 문화와 행복, 문화트랜드 변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의 검토, 충남의 문화복지정책과 소외계층 지원시책 분석 등을 살펴본다.

둘째,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충남 도민 문화향유실태 및 복지정책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관련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충남 문화 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기관 담당자의 인터뷰 조사 등을 실시하고, 분석종합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연구방향을 정립하는데 시사점과 과제를 얻고자 한다.

셋째, 충남 문화 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은 앞에서 제시된 시사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충남 도민의 문화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 정책별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그림 3]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충남 도민 설문조사분석, ③ 관련 공무원 및 지원사업담당자 자문, ④ 연구회 운영, ⑤ 외부 전문가의 원고집필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문화복지 이론 고찰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문헌조사로 문화복지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관련 이론에 대하여 문화복지 관련 논문과 정책보고서를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문화복지 관련 정책보고서,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2) 문화복지 정책과 지원사업 분석

문화복지 정책과 지원사업의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보고서와 행정내부자료 등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3) 지역주민 및 관련 담당자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충남 도민들의 문화향유 실태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문화소의 계층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①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 실태, ② 문화예술 창작활동 참여 실태, ③ 지역문화시설 이용 실태, ④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⑤ 문화복지사업의 참여 실태 등으로 구성된다.

(4) 연구회 운영

문화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충남의 문화복지사업에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연구회를 운영하였다.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화복지 이론 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 - 통계자료, 조사연구보고서 등 정책자료 - 1차 연구회 운영
문화복지 정책과 지원사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및 행정내부자료 분석 - 담당자 면접조사/정책자료 수집 - 2차 연구회 운영
충남 도민 문화향유 실태 및 소외계층 설문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민과 소외계층 설문조사 및 분석 - 관련기관 자료와 인터뷰 조사 - 연구진 워크숍
충남 문화복지 정책과 수요분석을 통한 과제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 지원사업 추진 담당자 인터뷰
충남 문화 소외계층 정책지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 반영

[그림 4]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1차 연구회에서는 문화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범위와 내용,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와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지 설계 및 조사방법, 향후 연구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연구회에서는 충청남도의 문화복지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표 1〉 연구회 개최

구 분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1차 연구회	2013년 1월30일	외부전문가(4명) 내부연구진(6명) 도청실무자(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및 소외계층 연구범위와 내용 • 문화조사 방법 및 설문지 작성 등
2차 연구회	2013년 5월24일	외부발표자(1명) 외부토론자(3명) 내부연구진(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실태와 발전 방안 • 향후 개선방향 토론

(5) 외부전문가 원고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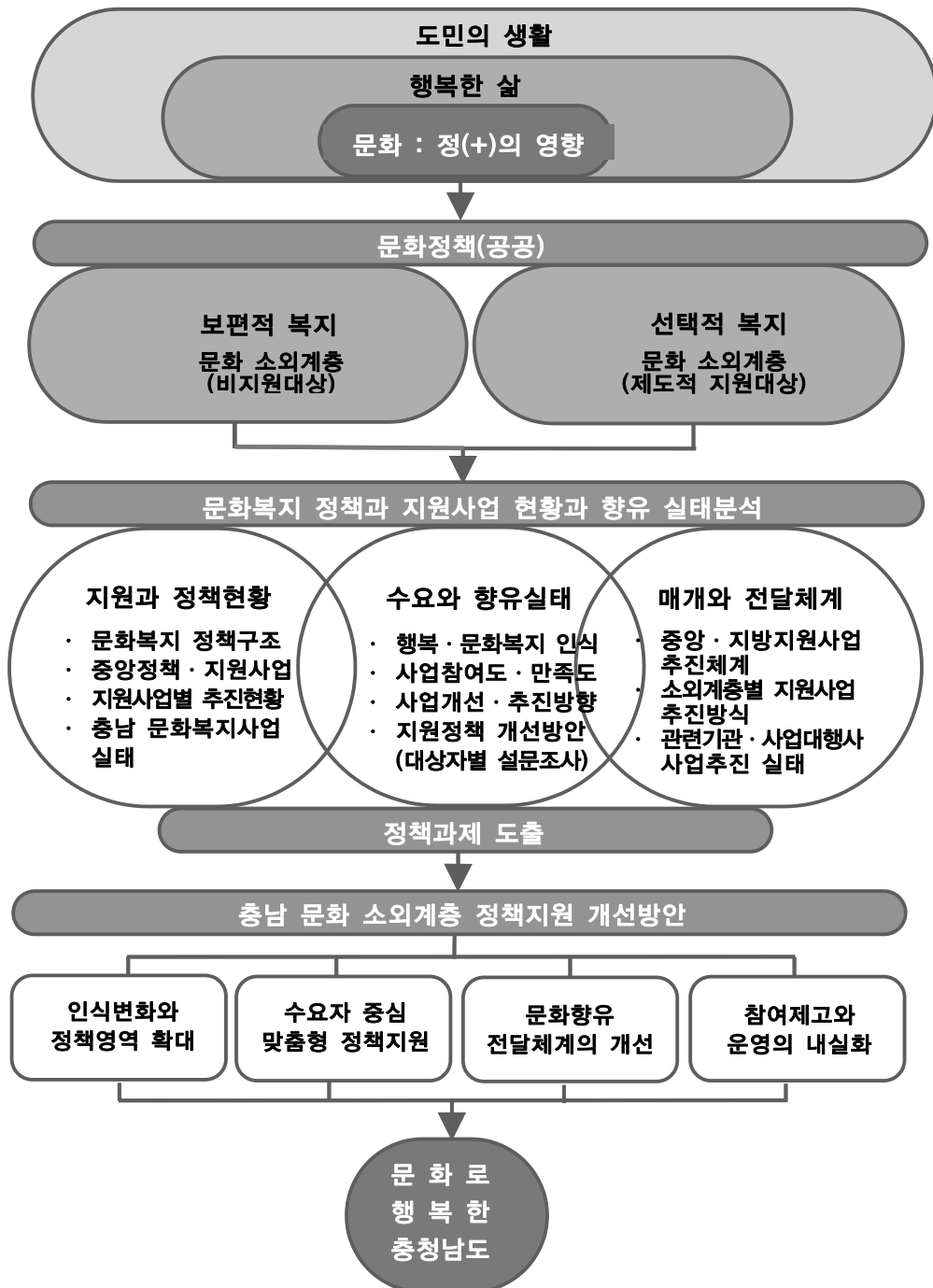
그 동안에 전국적인 문화복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충남의 문화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 이론에서 충남의 문화소외계층 수요추정과 충남 문화 소외계층의 정책지원을 위한 과제와 방안에 대한 부문은 외부전문가의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표 2〉 외부 전문가 원고 집필

외부전문가	전 공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정명희 박사 (전북발전연구원)	문화행정	• 충남 문화소외계층 수요추정 방법	2013. 6~7
정선기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학	• 충남 문화소외계층 설문분석과 과제도출	2013. 6~7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접근개념과 연구흐름의 연구수행체계에 대한 개념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 연구수행체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문화 소외계층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 문화복지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사업 대한 사업 추진계획, 집행, 성과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서민층의 문화향유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 차별성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문화복지사업 성과 평가, 정책개선방안 마련	문헌연구 심층면접	취약계층 범위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분석, 계획, 집행, 성과 등 평가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	문화복지 사업동향과 쟁점파악, 입법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문헌연구	문화복지 정책동향과 사업추진 현황 분석,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제기, 입법·정책개선방향 제안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문화복지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방안 제시	문헌연구 계량 및 질적분석	문화복지 정책 사회경제적추정방법론 제시 및 추정, 문화복지 정책방향 제시
	문화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문화복지 전달체계실태 분석,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문화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유형 제시, 문화복지 전달체계 조망들과 개선방안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복지 정책흐름과 성과분석, 문화복지정책 개선방안	문헌연구	문화복지(문화바우처)사업 성과와 문제점분석, 문화복지 정책사업 개선방향과 성과 평가방법 제언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고 방안	전북 서민층 문화향수 실태분석 및 문화서비스 제고방안 제시	문헌연구 주민설문 분석	문화복지와 문화서비스 체계,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수및서비스 실태,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 정책방향
본 연구		충남 문화소외계층 대상 및 유형분류, 문화향유실태 분석, 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제시로 정책자료로 활용	문헌연구, 주민설문, 자문의견수렴 (전문가, 공무원, 운영자)	충남 도민행복과 문화관계 정리, 문화소외계층의 유형화, 복지정책 추진과 소외계층 향유실태분석과 정책지원방안

연구방법에서는 기존에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계량과 질적 분석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 정책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화향유 대한 수요자의 의견조사 및 전달체계 분석 등을 연계하는 연구수행을 통해 정책지원방안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문화소외계층의 유형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 고찰,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소외계층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 공무원 및 사업대행자의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문화복지 이론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1. 행복과 문화, 미래 문화트랜드

1) 행복과 문화의 관계

문화와 여가¹⁾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여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도 음식물이나 의류, 가옥,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문화가 음식 등과 다른 점은 음식이 사람의 생리적 욕구나 안전욕구 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문화는 정신적 욕구 혹은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 욕구가 거의 충족되면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화는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국가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황현택 역, 1998)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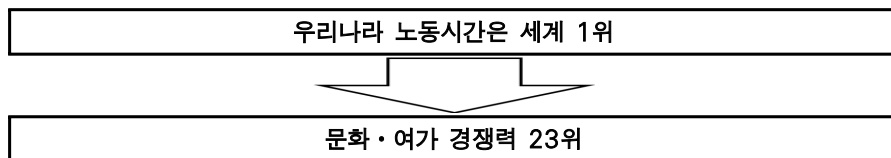
문화와 여가생활은 직업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는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여가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시켜

1) 여가(餘暇)는 '인간의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활동이 아닌 그 외의 자유시간 활동과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충남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충남발전연구원, 2012)에서는 '문화·여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로 용어를 사용함.

증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통계개발원, 2011).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논하지 않더라도 문화·여가가 개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여가는 전통적으로 기본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노동에 대해 대비되는 것으로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여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주5일제의 확대로 다양한 문화·여가를 즐기려는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 1위이면서 관련 정책 또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경쟁력에서는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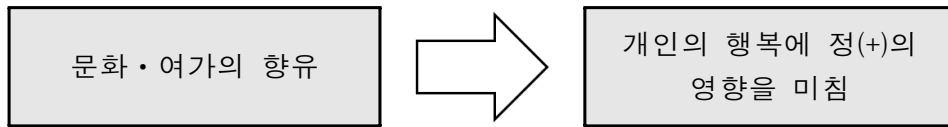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

〔그림 6〕 우리나라 문화·여가 생활의 현실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생존권, 재산권 보장 이외에 삶의 질을 높이려는 행복추구권의 요구가 증대되고, 단순 노동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중심, 여가 중심 사회로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여가의 향유가 개인의 행복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생활만족도에 비해 여가, 가족, 종교 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이동원, 2007).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삶 영역에 있어서 여가와 문화에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에서 행복과 연관된 삶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

〔그림 7〕 문화 · 여가와 행복과의 관계설정

결국 행복한 생활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재미있는 활동에 열중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예를 들어 일, 가족, 문화, 여가 등)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능하게 된다.

여가적인 용어로 재해석 하자면, 행복한 생활은 자기 결정적이고 내적 동기화된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여가활동의 재미적 요소를 통해 몰입하여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즐겁고 유쾌한 상태로 유지하여 얻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만족스런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가적 경험과 나눔의 가치실현을 통한 행복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일-삶의 조화(Work-Life Balance)’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윤소영, 2009).

이는 단순히 경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이 행복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개인의 행복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 · 여가 또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없다면 개인의 행복은 반감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면 행복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문화 · 여가 등 외적 요인의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 행복한 삶과 문화복지의 관련성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 ‘행복지수’라는 척도로 환산된 우리나라 국민의 총체적 삶의 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나 다름없는 32위에 해당(이내찬, 2012)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한국이 15위(세계은행, 2011)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대조되는 순위이다. 그 뿐 아니라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률 세계 2위,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등 삶의 질 저하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활력감소와 더불어 점증되는 ‘복지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도 사회의 진화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는 경제적·물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복지 개념이 한계에 도달한 시점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삶의 의미 상실, 소외 등의 사회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문화적인 풍요로움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낳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경제·문화적 변동은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복지영역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으며, 문화복지사업은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매력으로 인하여 최근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복지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수요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으로부터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물질적 측면에서 삶의 여건을 강조하는 복지 개념에 더하여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이 조화되어야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문화복지 정책이 태동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김휘정, 2012).

한편, 인간다운 삶,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산업사회에서 재화와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에 더하여 정신적 만족감과 안정감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자아실현의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향유는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 학력, 연령, 성별, 장애, 거주지역, 출신국적 등의 차이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놓여 있는 구성원들은 소득 및 시간의 제약, 인식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향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 재화나 물질의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에 국한되던 양극화 문제가 문화적 격차(cultural divide) 또는 문화의 양극화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적 감수성 제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다양한 대상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 특히, 능동적 복지와 친서민정책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문화격차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관심을 두고 문화향유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복지적 관점에서의 문화정책을 확대하여 왔다.

그렇지만 문화분야는 기초생활권 보장, 의료보장, 주거 및 교육복지 등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그동안 정부 내에서의 관심도 높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이른바 문화복지라고 불리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최근에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의식주, 건강, 안전 등 생존과 관련한 1차적 욕구충족 이외에도 삶의 질과 행복추구 등을 중시하면서 여가·놀이·문화예술활동 등의 문화적 향유를 가능케 하는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 레크레이션·여가·심미·놀이에 대한 욕구, 지적 활동 및 감정적 안정 추구 욕구, 행복추구 욕구 등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사회적 욕구²⁾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수준까지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다(현택수, 2006).

문화복지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점차 인식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혜승, 2011)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관심이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 정신적·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이혜승(2011)은 매슬로(Maslow)의 인간 5단계 욕구 중 자아실현의 욕구는 개인의 재능, 잠재력, 가능성을 실현시켜주고 심미적이고 높은 수준의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문화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3) 미래 문화트렌드의 변화전망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활동 및 산물 역시도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것은 문화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문화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욕구의 면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한다고 한다(통계개발원, 2011).

최근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³⁾에 따르면, 미래 문화트렌드 체계에서 ① 일상적 삶의 문화화, ② 다문화 및 문화양극화 심화, ③ 문화생산 및 소비의 복융합화, ④ 스마트 파워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화 등 4가지로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문화트렌드에서 각 부문별 정책 및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삶의 문화화에 있어서는 저출산 및 고령층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을 정책과제로 하여 맞춤형 생애주기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 고령층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저출산에 대응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및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고령사회에 서 체육활동의 일상화를 통한 행복한 노후 및 노인스포츠 산업 진흥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 및 문화양극화 심화에서는 한국문화 정체성 재정립과 사회적 통합 기능 확대, 생산적 문화 복지로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및 행복사회 조성을 정책과제로 하여 지역문화균형 정책에서 지역문화 고유성 및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과 취약계층의 문화, 체육, 관광 기본권 확대 및 복지관광 선진화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생산 및 소비의 복융합화에서는 소비자 및 개인화 중심의 문화소비·유통체계 혁신을 정책과제로 하여 소비자 중심 예술 마켓 플레이스 및 서비스 기반 확충과 소셜 펀딩의 소비자 중심 예술마케팅 및 예술 지원정책으로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스마트 파워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화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지역문화에 기초한 문화발전 전략의 수립과 특화된 발전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들 세부과제를 문화 소외계층과 관련하여 실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생애주기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저출산 및 고령층에 초점을 둔 생애

3) 정광열 외(2011),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요약 정리함.

주기별 평생 여가학습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체계를 위해 경제적·사회적 여건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수요·특성·주 장애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임.

- ②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은 보편적 문화복지 패러다임 접근을 통한 문화시장 및 예산 확대로서 경제적·신체적 장애에서 물리적(장소), 사회적(시간), 문화적(향유능력·경험) 장애 등으로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복지 대상 중 소외되는 자가 없이 보편적인 문화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임.
- ③ 고령층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건강-저소득층, 심신미약-저소득층, 60-80, 80이상 등 다양한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음.
- ④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한 문화안전망 구축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안전망 체계의 구축으로 문화안전망의 전제로 취약계층 대상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법제도 정비) 하는 것 등임.
- ⑤ 취약계층의 문화, 체육, 관광 기본권 확대 및 복지관광 선진화는 문화·체육·관광을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권 도입 추진, 중증장애인 등 재활체육 단계의 대상자는 복지사업 시스템과 연계추진, 문화복지의 대상 확대 및 접근방식 다양화 등임(정광열, 2011).

이상과 같이 미래 문화트랜드 체계에서 문화복지는 맞춤형·생애주기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과 대상 개념 확대, 고령층과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안전망 체계의 구축 등의 문화복지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 문화복지 관련 이론

1) 문화복지의 개념정의

문화복지란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로 볼 수 있다.

‘지역 문화시설의 건립’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등으로 시작된 문화복지사업은

1996년 김영삼 정부 시기 ‘문화복지기획단’이 설립되고 「문화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시각’과 ‘문화정책의 독자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지는데,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 (Friedlander & Apte, 1980) 또는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여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 (Romanyshyn, 1971) 등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협의의 사회복지의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잔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가 증가하고 사회문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의 주거복지, 교육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현택수, 2006; 최종혁, 2009).

따라서 문화복지의 사회복지 하위 영역의 하나인 동시에 의식주와 건강 등 기본 수준의 복지에서 복지국가가 도달해야 할 높은 수준의 복지 단계로 인식된다(현택수, 2009).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 (정갑영, 2007)으로, 혹은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핍을 가진 문화적 약자를 예방, 치료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요구 및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이종인, 1987)’,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오혜경, 2006),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 서비스(임원선·이현수, 2006) 등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문화복지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문화적·정신적 풍요와 감수성 제고, 창의성 증진, 사회적 응집력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등)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 또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는 물질적·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 반면, 문화복지지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본다(김세훈·조현성, 2008).

사회복지를 광의로 파악할 때 사회취약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복지지는 사회복지지의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사회복지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문화프로그램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영역은 거의 없다는 점⁴⁾, 문화복지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고유한 전문적 교육과 지식,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화복지를 단순히 사회복지지의 하위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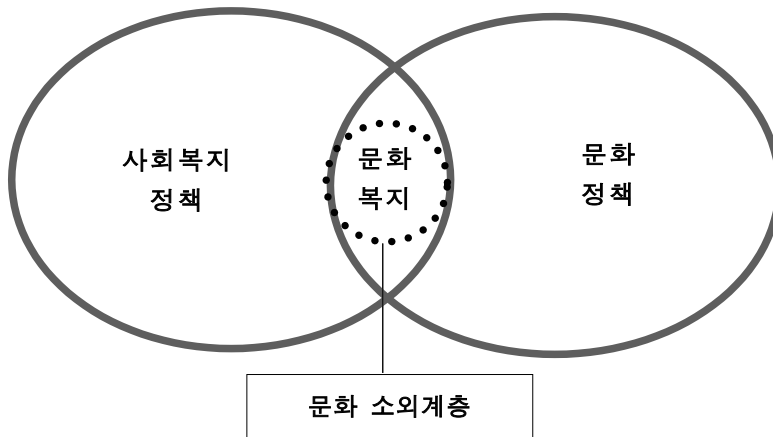
또한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복지의 증진은 최우선 목표에 해당하나(구광모, 1999; 김영평, 2000; 임학순, 2003; 정철현, 2004; 김정수, 2010; 고바야시 마리, 2002; Wyszomirski, 2000; UNESCO, 1998)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문화복지의 증진이라는 목표가 문화정책에서와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문화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화정책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갑영·장현섭(1995)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에만 집중되었고 국민의 행복감을 정신적 측면에서 배려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비판한 것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예컨대, 주택정책과 교육정책 등 대부분의 사회부문 정책이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안에 흡수 통합되어버림

한편 문화복지 영역은 사회복지정책과 문화정책이 담당하는 분야와 중첩되어 있어 추구하는 목표나 내용에 있어 유사성이 크며, 실제로 문화복지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긴밀한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복지 영역에 대한 점유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문화복지 혜택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구원의 개념도를 집필자가 보완·작성함.

〔그림 8〕 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서 문화복지 영역

2) 문화복지의 대상과 영역

(1) 문화복지의 대상

문화복지를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 정의할 경우 문화복지의 대상은 좁게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 및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넓게는 일반국민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문화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제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통합, 혁신 유발, 문화시민육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화복지 정책의 내용 또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첫 번째 국민의 문화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의 조성으로 여기에는 각종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 문화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정책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 기회의 제공을 통해 문화적 선호를 형성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세 번째는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제공 지원으로 여기에는 특히, 문화예술의 향유와 참여에 제한을 받는 문화소외계층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지리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보 제공, 티켓할인 및 바우처 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시행이 포함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등의 기획과 참여기회 제공 역시 포함된다.

네 번째는 문화복지정책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매개전문인력 양성으로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과 기업 등의 민간 영역, 그리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타 자발적 부문(문화자원봉사 등)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의 제공과 정보제공, 조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양혜원, 2012).

〈표 4〉 문화복지의 개념, 대상, 목표, 영역

구 분	내 용
문화복지 개념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이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
문화복지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단,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의 향유 및 참여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문화복지 목표	전국민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 보장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배양 삶의 질 제고 사회적 통합, 혁신유발, 문화시민육성
문화복지 내용 (영역)	문화적 환경의 조성: 문화공간의 건립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공공예술프로젝트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지원: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원 무료관람, 가격할인 바우처 제공, 보조금 제공, 정보 제공, 축제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일반국민,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도서산간벽지,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족 등)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매개전문인력 양성, 문화자원봉사(재능기부 포함)지원

문화정책에서 <표 5>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부재 등으로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계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향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취약계층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는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 경제적 또는 지역적인 이유로 문화취약계층(cultural disadvantaged group)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향수 정책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정책 및 문화정책에서 서민층이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서민층이 문화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문화·여가부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있다.

특히, 지역발전정책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문화의 향유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에서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향유는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복지(cultural welfare)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에서 서민으로 문화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정명희, 2010).

〈표 5〉 서민과 문화취약계층의 관계

취약계층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취약계층 (기초수급, 차상위) -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이주민, 노인, 보호시설아동) - 노동취약계층 (노숙자,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근로자 - 영세상인(1인창업자) - 특수고용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근로자 - 전문직종사자 - 공무행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부 고위관리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도서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공디자인·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공간’과 ‘지역’을 문화적 환경으로 조성한

다는 차원에서 거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와 참여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수혜자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김휘정, 2012).

문화복지가 등장한 이후로 학계, 정부, 활동가, 사이에서 벌어진 개념논쟁은 궁극적으로 문화복지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입장차에서 비롯되었다. 즉, 문화복지의 초점을 국민일반의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기회확대에 맞출 것인가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문화복지를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정갑영·장현섭(1995)은 기존 사회복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잔여적 범주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김민정(2003)도 문화환경을 정비하고 개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또한 현택수(2006)도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문화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설연옥(2007: 9-10)은 문화복지를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 정홍익(2011)도 선별적 문화복지 견해에 동의하면서 “복지정책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을 목표 인구로 하는 문화정책은 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정책 중 경제·사회적 취약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정책만을 ‘복지적 문화정책’ 또는 ‘문화복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양혜원(2011)도 문화권(cultural right) 측면에서 모든 사람의 문화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과 참여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국가는 경제적 소득, 지역,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향수 및 참여에 제한을 받는 이들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이들의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선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이 주요 정책기조로 부상하면서 문화복지는 보편적 복지로서 주목받고 있지만(최옥채 2011), 선별적 복지로서 문화복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정홍익 2011).

그런데 보편적 또는 선별적 입장이거나, 혹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연구자 역시 문화복지 정책대상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동일하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체로 문화적 취약계층이라는 가정 아래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프로그램을 강조하거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일컬어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저소득층에 직장인이라는 직업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우주희 2009: 24).

오혜경(2012)은 ‘문화적 취약계층’에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장애인, 이주민,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지리적 소외계층(읍·면·도서(섬)·산간벽지, 공단 주민), 노동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상인, 비정규직 인력 등), 특수 소외계층(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고령자 등을 모두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규정 역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망라했을 뿐, 문화복지와 관련된 특별한 기준에 의해 범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표 6〉 문화복지 지원사업 대상

구 분	대 상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 병동환자, 외국인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특수 소외계층	새터민,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소득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문화적 소외 혹은 문화적 취약계층은 기준이 모호하다. 문화적 측면의 소외 및 취약성을 객관화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즉, 명확한 정책설계와 지속적인 정책실천을 위해서는 문화복지의 사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대상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적 측면의 소외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종합해보면, 여전히 문화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복지를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문화적 취약

계층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여전하지만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반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예술활동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 스포츠 등 여가활동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본 과제에서의 문화복지의 대상이 되는 소외계층의 조작적 정의로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인 소득, 사회적인 약자, 지리적인 거리 및 특수한 상황에 의해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문화복지정책의 사업대상 영역

1996년에 수립한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의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 이념의 확산과 단계적, 전략적 추진’, ‘법령 및 제도개선의 역점’,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제 방안 강구’, ‘문화복지 기반시설의 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문화나눔 운동의 전개’, ‘민간의 활성화로 문화복지 공동체 형성’, ‘중장기 여건변화 예측과 정책마련 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하면, 첫째, 기본 문화공간 확충, 둘째, 국민문화향수기회 확대, 셋째,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수립한 ‘문화복지 중기계획’에는 달라진 시대변화에 맞춰 정책영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상 속 문화복지’, ‘지역 문화복지’, ‘직장 문화복지’, ‘취약계층 문화복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노인) 문화복지’ 등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문화복지정책 영역은 집중해야 할 사업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시설, 인력 및 체계, 프로그램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표 7〉 2008년 수립된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정책과제	최우선 과제	우선 과제	장기 과제
기본적 문화공간 확충	문화의집, 도서관, 지방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문예회관, 문화지구, 문화거리, 문화복지지수 조사	전문박물관 · 미술관 설립 대중공연장 설치 · 건립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첨단영상테마공원 건립	지역문화복지시설건립 촉진법 검토
국민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학교, 문화동호인 모임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현장 중심 문화체험 확대, 가정문화운동 전개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온라인티케팅 시스템 정착,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문화정보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한 초고속 정보망 구축, 생활문화복지 요원 양성	문화공간 · 시설의 운영개선, 첨단과학 기술을 응용한 문화오락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	문화나눔운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프로그램 확산,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 봉사 활성화	점자도서관 건립 및 점자서적 제작 지원, 수화통역사 풀제 운영, 특수언어 표준화 및 지원	

먼저 시설측면에서 보면, 기존에는 대규모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고급예술을 향유하는데 집중하였지만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삼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에서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인력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존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에서 관람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참여를 통한 스스로의 문화창조,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문화매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점은 체계이다.

현재처럼 예술의 민주화를 추진한다면 총괄관리조직에서 문화취약계층과 지역에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만,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공동체 중심의 문화매개 인력, 행정기관, 예술인,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 모델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인력과 체계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으로, 다만,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보유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강화 및 이용률 제고가 뒤따라야 하며, 특히 문화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21세기 복지패러다임은 지역에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분배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조세부담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은 복지의 소외감으로 과잉복지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행하고 저소득 빈곤가구 중심의 과잉복지를 체계화해서 복지 중복을 막고, 빈곤한 중산층의 과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균형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가계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역 소비를 유인함으로써 내부기반을 확장할 뿐 아니라, 확장된 내수가 자연스레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중산층을 정책적 수혜계층으로 유입하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복지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면서 강조되는 것은 생활복지이다. 중산층은 높은 세금을 내지만 복지는 낮은, 그러면서 일자리는 불안정한 계급적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교육, 의료, 교육, 노후, 주거, 건강,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 따라서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형복지가 필요한 반면, 소득 하위 20%~소득 상위 20% 미만의 중산층은 생활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복지는 이러한 생활복지의 핵심 전략이다. 즉, 보편적 복지로서 문화복지를 상정한다는 것은 문화복지의 정책적 수혜계층을 저소득층 중심, 또는 피상적인 문화적 취약계층이 아니라 중산층 전체를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표 8〉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비율과 계층적 특성

구분	소득분위별 구성비	추정 인구	계층적 특성	욕 구
고소득층 기부 복지	10분위 7.1%	31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세금, 게으른 빈곤층 • 자율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투자에 높은 욕구 • 1순위 교육비(22.9%), 부채상환액(20.0%), 식비(11.4%)
	9분위 9.5%			
중산층 생활 복지	8분위 7.6%	10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세금, 낮은 복지수혜 •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의료, 보육, 노후, 주거 등에 대한 욕구 높게 나타남 • 교육비(18.8%), 부채상환액(17.1%), 식비(17.9%), 주거비(12.0%), 차량유지비(11.1%)
	7분위 6.7%			
	6분위 11.0%			
	5분위 11.9%			
	4분위 7.6%			
	3분위 11.0%			
빈곤층 생계형 복지	2분위 12.9%	52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복지, 빈곤 되물림 •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주거비에 대한 기초적 욕구가 높음 • 주거비(25.9%), 의료비(24.1%), 식비(10.3%)
	1분위 14.8%			

주 : 소득분위별 구성비, 소득분위별 가계부담 순위는 한국노동패널 11차 원자료 분석

자료 : 전라북도(2010),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제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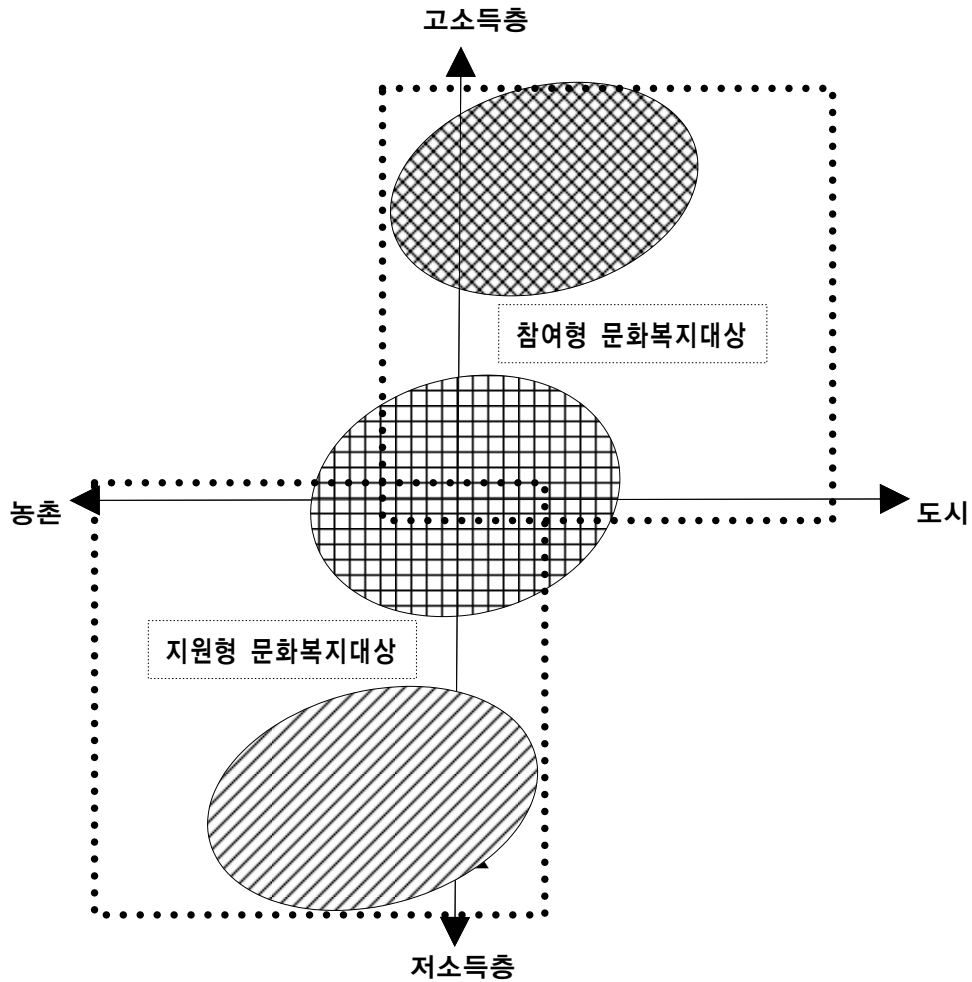
그런데 수혜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됐다고 해서 소득분위별로 똑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수혜대상의 확대가 시대적 논리에 적합하더라도 지역의 빈곤계층은 여전히 두렵고 사회적 위험 역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산층의 가계경제는 견고한 소득 기반을 가지지 못해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빈곤율의 증가는 생계비 등의 필수품에 대한 지출규모 확대를 초래함과 동시에 여가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소비가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소득분위 1~3분위)을 위해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면서 동시에 문화향유 및 문화교육기회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소득분위 4분위 이상의 중산층이 문화향유를 누릴 기회나 경제적 토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향유실태는 저소득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소득분위별 여가오락비 실태를 보면 소득 6분위까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소비하고 있다. 즉, 정책적 수혜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되, 소득분위별 문화향유실태(예술

관람, 문화소비, 문화욕구, 교육경험 등)를 토대로 계층별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라북도, 2012).

(3) 본 연구의 문화소외계층 연구대상 영역

본 연구에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연구 대상은 크게 참여형 문화복지 대상과, 지원형 문화 복지 대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대상범위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본 연구의 문화소외계층 연구대상 영역

- 지원형 문화복지대상은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여 법·제도상 문화향유를 위해 공공에서 정책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
- 참여형 문화복지대상은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은 계층에 속해 있지만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3) 문화복지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예술의 수요자, 즉 문화예술 향유자나 문화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예산 등 공적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문화복지정책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1) 문화권(cultural right)의 보장

문화복지의 이론적 근거로 가장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문화권(cultural right)으로, 이는 각종 세계기구의 선언과 협약,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다(정갑영, 2007; 김기곤, 2011).

1948년 제정된 「UN 인권선언」 제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후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에는 문화적 권리를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며, 자신이 만든 그 어떤 과학, 문학, 예술 상품으로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누릴 자유’와 연관시켜 규정하였으며, 1968년 개최된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6년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해 국가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권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권리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적 생존 권리, 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을 존경할 권리,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문화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환경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정갑영, 2007).

이러한 문화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equitable access)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생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표현하고, 창조하고 내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입할 의무가 인정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문화복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개입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을 들 수 있다. 우리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문화국가건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제11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통해 문화적 접근과 향유,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정갑영, 2007; 김세훈·조현성, 2008).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35조에서는 환경권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현택수, 2006; 정갑영, 2007; 김세훈·조현성, 2008).

이러한 헌법의 조항들을 감안할 때, 국가는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접근과 향유,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양혜원, 2012).

현재 문화복지정책은 근간이 되는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문화향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또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는 헌법에 보장

된 기회 균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국가의 원리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협의의 문화복지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4호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예술복지 증진) 및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해당된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된 법률은 문화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문화이용권’ (바우처)의 기술적 도입 근거만을 담고 있다.

문화복지정책의 추진체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화나눔사업의 일부 인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항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바우처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고 문화나눔사업 추진의 후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사업의 방향 수립 및 평가를 담당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는 사업시행의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관리·감독 등을 총괄하고 있다.

사업 주관처는 각 단위사업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개 주관처가 ‘1차 사업자’로서 9개 단위사업의 운영 및 관리, 지역주관처 또는 공모사업 수행자 관리, 홍보 업무 등을 맡고 있다. ‘2차 사업자’는 9개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주관처가 되기도 하고, 최종 수혜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김휘정, 2012).

3. 문화복지의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1) 국내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현황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문화정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초반 문화정책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다루면서부터이다. 80년대 말에 작성된 ‘문화발전10개년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가 복지의 대상임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에서 최초로 향유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은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을 문화복지정책은 일상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변화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을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에서 문화는 공간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포함하며,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자발성과 참여의식을 함양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문화의 개념이 협의의 예술에서 광의의 생활양식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에서도 일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했고, 문화를 통한 감수성과 창의성 제고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국가적 발전 동력을 동시에 얻고자 했다. 이 시기 문화복지의 중점 정책은 일반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개개인의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의 건립, 즉 문화의 집 등의 건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를 통한 창의성의 발현을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역할 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 문화자원봉사 육성,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했다(김세훈·조현성, 2008).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문화복지정책의 대상과 목표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존의 문화복지가 국민 모두의 감수성 증진과 창의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대상의 범위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명확해지고, 정책의 목표 또한 감수성이나 창의성 증진보다는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로 이동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나눔사업이 시작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문화복지 정책의 기초는 크게 ‘문화와 일상생활의 연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문화가 일상생활과 국민의 삶 속에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문화정책’을 표방하고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강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무료관람 실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예술 체험·교육 지원,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사업, 복권기금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문화나눔사업)’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에는 취약계층의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양혜원, 2011).

	문화복지의 목표	주요사업
김영삼 정부	삶의 질 세계화 문화감수성 증진	생활권 문화공간의 확충
김대중 정부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문화예술교육 문화자원봉사
노무현 정부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문화예술교육
이명박 정부	생활공감형 문화정책 사회적 약자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자료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년 개원기념세미나 자료집,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그림 10) 시기별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와 주요사업

2) 문화복지정책에서 문화 소외계층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득, 연령, 성별, 장애, 교육, 가족형태, 거주지역, 국적 등 경제적·신체적 조건 및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받을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김세훈 외, 2005).

〈표 9〉 취약계층의 구분기준과 주요 대상

구분	내 용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산층 등
연령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성별	남성, 여성
장애	장애인, 비장애인
교육	초졸, 중졸, 고졸, 대학졸, 대학원졸
가족형태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등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국적	이주민, 새터민, 재외동포 등

자료 : 이혜승(20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양현미 등(2010)은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 따라 문화향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적 취약계층을 구분하였다. 문화향유방식은 관람, 학습, 표현, 봉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 4가지를 모두 향유하는 계층을 문화애호계층이라 하고, 관람과 학습을 하는 계층을 문화향유계층이라 하며, 이들 4가지 모두를 가지지 못한 계층을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저소득층), 신체적 요인(장애인), 일시적 격리(교정시설 및 소년원 수용자, 군인), 문화적 요인(이주노동자, 새터민), 복합적 요인(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으로 나누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볼 때 문화복지 영역은 문화복지 대상인 사회복지와 노동복지 영역의 대상을 포괄하고,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시간적 여유,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즉, 문화적 취약계층은 소득,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적 향유기회가 배제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우주희 외, 2009).

취약계층 대상 정책의 특징은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대상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어떠한 욕구를 가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환경과 원인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고소득, 고학력의 노인은 동일한 취약계층이라고 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계층별 정책과 총괄적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수혜대상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표 10〉 사회복지 영역별 취약계층의 범위

범위: 주관부처		특성	성별	연령	소득	장애	국적	지역	가족 형태	고용 형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	한부모,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노동 취약계층	고용노동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	한부모,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문화적 취약계층	문화부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농산 어촌	한부모,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자료 : 이혜승(20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그러므로 문화복지정책은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문화적 소외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하고, 이들을 문화적으로 소외시키는 환경적 요인

이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정책 역시 계층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 정책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시키는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적 소외는 사회적 소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사회적 소외를 최소화하는 다른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한다(김세훈 외, 2005). 이러한 대상범위를 고려한 취약계층의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자 규모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대상자 규모(2010년)

대상 구분	인구수	관련 자료	주관부처
저소득층	327만명	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차상위계층 170만명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535만 7000명	전체 인구의 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 16만 3136명(정원) 장애인 : 2만 8571명(정원)	노인복지시설 6만 9237개 장애인복지시설 452개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입소 아동	1만 7119명	280개 시설수용자	보건복지부
교정시설	4만 5681명	48개 시설수용자	법무부
군부대	60만명	국방부 내부자료	국방부(2009년)
영구임대주택단지	35만 4000명	524개 단지 거주자	국토해양부(2009년)
다문화가구 수	15만 4333가구(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추정치)	외국계 주민수 113만 9000명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정의 유·초·중·고생	3만 6396명	유치원생 12.5%, 초등학교 78.6%, 중학생 16.0%, 고등학교 5.4%	교육과학기술부
새터민	1만 2000명	전년 대비 26% 증가	통계청(2009년)
소년소녀 가장	1,596명	1,540세대	보건복지부(2009년)
읍·면 거주자	876만 4000명	전체 인구의 18.5%	통계청(2009년)
장애인	등록 장애인수 251만 7312명(2010년)	장애인 수당 수급자 48만 6642명(2008년)	보건복지부

자료 : 이혜승(20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3) 중앙정부 문화복지 정책과 사업 현황

(1) 복권기금 전입을 통한 문화나눔사업

과거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등과 같은 생활권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주요 문화기반시설들이 확충된 이후 이들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접합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 사업들로는 기존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외에도 장애인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⁵⁾, 다문화가족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⁶⁾,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국립예술단체파견)’⁷⁾,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수행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⁸⁾에 대한 예산 투입액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⁹⁾ 및 ‘사회문화예술교육’¹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경우 2008년에 급감하는 모습을 띠었으나 2009년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양혜원, 2011).

이들 문화복지정책 사업 중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집중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나눔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지원 사업, 전통나눔사업, 문학나눔사업,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있다.

5)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사업들로 구성된다.

6) 이주민공동체 문화활동지원, 다문화뮤지컬 지역순회공연, 다문화가족 한마당 사업들로 구성된다

7) 재정자립도 40%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에게 국가대표예술단체의 주요 레퍼토리를 선보임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시키고, 국립예술단체와 문예회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8)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9) 예술강사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등이 포함된다.

10) 특수계층(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외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 창의예술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나눔사업(이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이 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을 받아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사업의 재원은 복권기금과 지방비 매칭 등을 활용하며, 연도별로 변화가 있으나 크게 ①문화바우처사업, ②공연나눔사업, ③문학나눔사업, ④전시나눔사업, ⑤창작나눔사업으로 구분된다. 주요 단위사업의 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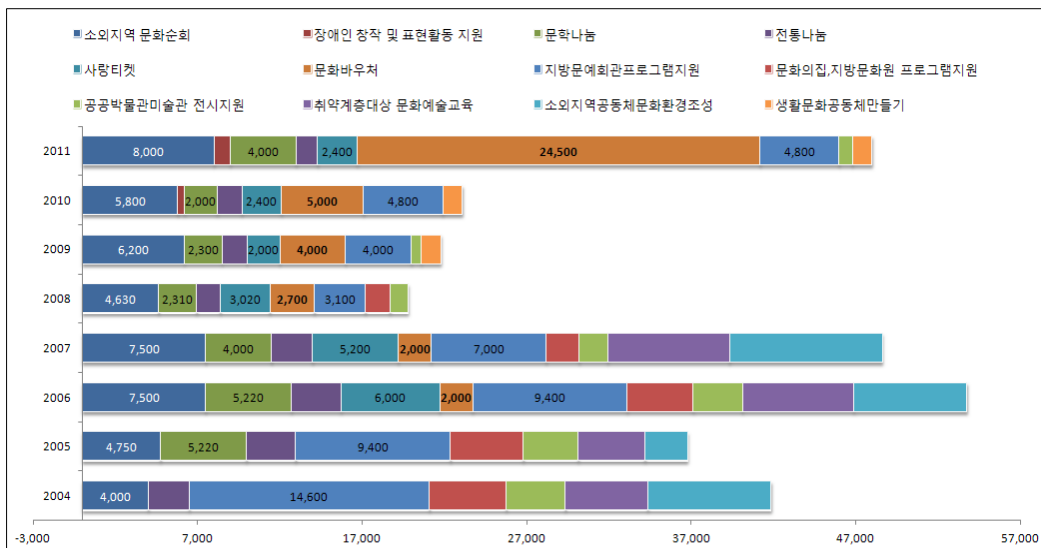
〈표 1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내용 총괄

사업명(단위사업명)		주관기관	사 업 내 용
문화바우처 (2006~)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가 구당 연간 5만원(※10~19세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지 급)의 문화카드를 지급함으로써 공연, 전시, 영화 등의 관 람료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공연 나눔	사랑티켓 (1991~)	한국문화예술 회관 연합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2004~)	한국문화예술 회관 연합회	엄선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문화예술단체가 직접찾아가는 사업
	전통나눔 (2004~)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전통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전통예술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 악 교육용 DVD를 제작 및 보급하는 사업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2004~)	한국문화 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을 선정하여 문예회관이 유치하는 공연 행사를 지 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을 추구하는 사업
문학 나눔	우수문학 도서보급 (2005~)	한국도서관 협회	분기별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정시 설, 작은 도서관, 병영문고에 배포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 학향수를 증진하는 사업
전시 나눔	공공박물관· 미술관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2004~)	한국박물관 협회	문화소외계층의 전시 관람과 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돕고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창작 나눔	장애인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2010~)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장애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켜 창조적 역 량강화 및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2010~)	한국문화원 연합회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자료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과제.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수권 신장사업에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다문화정책, 문화의 달 행사 개최 등이 있다(양혜원, 201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단위사업별 연차별(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액을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8년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총액 측면에서는 2007년의 총액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년 개원기념세미나 자료집,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그림 11] 2004-2011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기금규모 추이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예산은 2004년 40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8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문학나눔사업이나 전통나눔사업의 경우 매년 차이는 있으나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랑티켓 사업의 경우 2006년에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점차 예산이 감소하여 2010년에는 24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지방 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역시 꾸준히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가장 극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단위사업은 바로 문화바우처사업으로 2006년 20억 원에 불과했던 문화바우처사업 예산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50억 원으로 확대되었

고, 2011년에는 245억원으로 5배 가량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성과로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2007~2010년까지의 산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먼저, 수혜자 수는 2007년 약235만명에서 2010년 27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수혜자 일인당 수혜액은 2007년 127,000원에서 2010년 87,000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예산액 백만원 당 수혜자 수는 2007년 78.6명에서 2010년 114.8명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일인당 수혜액은 감소했으나, 수혜범위는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가장 많은 수혜자를 낳은 사업은 ‘사랑티켓’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전통나눔’과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수혜자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수혜자 일인당 수혜액이 가장 큰 사업은 문화나눔, 전통나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사랑티켓의 일인당 수혜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투입된 예산액 백만 원당 수혜자의 수는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4명, 사랑티켓 사업이 239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이 128명, 문화나눔이 88명, 문화바우처가 83명, 소외계층 문화순회가 70명,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이 55명, 전통나눔이 19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가 15명으로 나타나 투입 대비 산출은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사랑티켓 사업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양혜원, 2011).

〈표 13〉 문화나눔사업 현황(2007~10년)

(단위 : 명, 천원/명, 명/백만원)

단위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계
문화바우처	수혜자수	151,076	217,898	296,279	469,580	1,134,833
	1인당 지원액	13.24	12.39	13.50	10.65	12
	백만원당 수혜자 수	75.5	80.7	74.1	93.9	83
사랑티켓	수혜자수	1,184,488	570,758	565,432	698,064	3,018,742
	1인당 지원액	4.39	5.29	3.54	3.44	4
	백만원당 수혜자 수	227.8	189.0	282.7	290.9	239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수혜자수	소외계층 문화순회내의 사업으로 실시			51,149	51,149
	1인당 지원액				7.82	8
	백만원당 수혜자 수				127.9	128
문화나눔	수혜자수	14,973	19,750	415,232	484,937	934,892
	1인당 지원액	267.15	116.96	5.54	4.12	11
	백만원당 수혜자 수	3.7	8.5	180.5	242.5	88
전통나눔	수혜자수	34,208	55,770	18,475	19,905	128,358
	1인당 지원액	73.08	25.82	81.19	75.36	54
	백만원당 수혜자 수	13.7	38.7	12.3	13.3	18
소외계층 문화순회	수혜자수	677,376	364,007	296,437	354,848	1,692,668
	1인당 지원액	11.07	12.72	20.92	16.35	14
	백만원당 수혜자 수	90.3	78.6	47.8	61.2	70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지원	수혜자수	291,341	181,062	219,815	347,247	1,039,465
	1인당 지원액	24.03	17.12	18.20	13.82	18
	백만원당 수혜자 수	41.6	58.4	55.0	72.3	55
공공박물관·미 술관전시프로그 램	수혜자수	...	287,000	266,860	268,556	822,416
	1인당 지원액	...	3.83	2.25	2.23	5
	백만원당 수혜자 수	...	260.9	444.8	447.6	20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수혜자수	-		24,337	25,992	50,329
	1인당 지원액			49.31	46.17	48
	백만원당 수혜자 수			20.3	21.7	21
수혜자수 합계		2,353,462	1,696,245	2,102,867	2,720,278	8,872,852
1인당 지원액		12.7	10.8	10.4	8.7	10.6
백만원당 수혜자수		78.6	92.7	96.5	114.8	94.7

주: ...는 사업은 수행되었으나 수혜자 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년 개원기념세미나 자료집,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복권기금 전입을 통한 문화나눔사업의 예산은 2012년 총 574억원으로 전체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 사업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액수이다. 단위사업별 예산 세목을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의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고, 공연나눔사업이 28%로 그

다음이며, 문화나눔사업과 창작나눔사업이 각각 약 7%와 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시나눔사업이 가장 낮은 비중인 1.39%이다(김휘정, 2012).

〈표 14〉 문화나눔사업 예산 현황(2011년~2012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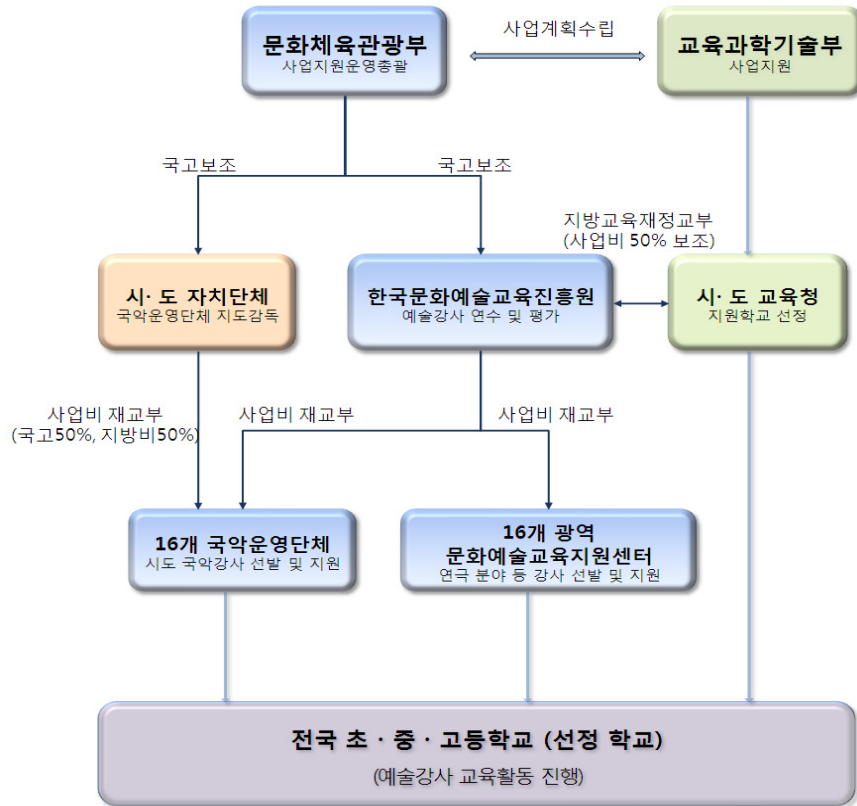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증감율(%)	사업별 비중(%)
문화나눔사업	480	574	19.6	100.0
문화바우처	245	343	40.0	59.8
공연나눔	165	161	△2.4	28.1
- 소외계층 문화순회	80	93	16.3	16.2
- 사랑티켓	24	20	△16.7	3.5
- 전통나눔	13	0	삭감	0
-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48	48	-	8.4
문학나눔	40	40	-	7.0
전시나눔	8	8	-	1.4
- 박물관·미술관 전시 지원	8	8	-	1.4
창작나눔	22	22	-	3.8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12	12	-	2.1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10	10	-	1.7

자료 : 김휘정(2012),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①아동·청소년 대상의 학교문화예술 교육 사업과 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분류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생수 400명 이하인 소외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술·국악·뮤지컬·영화 등 문화예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을 지원한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보육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군 부대, 교정시설·소년원 등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지역 내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계 명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군·재소자에게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2〕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체계도

사업 예산은 2012년에 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372억원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예술교유 활성화 사업이 195억원으로 약 34.4%의 사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사항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예산액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비해 적은 액수이지만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51.2%로 높은 정책 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표 1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현황(2011년~2012년)

(단위 : 억 원)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증감율(%)	사업별 비중(%)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500	567	13.4	100.0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69	372	0.81	65.6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323	323	0	57.0
-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25	25	0	4.4
- 지역문화예술 지원센터 운영	21	24	14.3	4.2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9	195	51.2	34.4
- 사회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육원, 노인·장애인, 군장병, 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포함)	75	121	61.3	21.3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9	29	0	5.1
- 꿈의 오케스트라	15	36	140	6.4
- 문화예술 명예교사	10	9	△10	1.6
교원 전문성 강화	2	0	삭감	0

자료 : 김휘정(2012),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3)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외에 국고로 운영되고 있는 소외계층 문화 사업들은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장애인·노인, 그리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소수민 대상의 문화향유 사업이다.

장애인 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과 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 대상은 도서관 정보정책기획단이 추진하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은 50대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취약계층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과 자원봉사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세대·지역 간 생활문화 교류 전승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대활자본(大活字本)을 활용한 어르신 독서 활성화 사업’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활자본 도서를 제작·보급하여 어르신들의 독서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문화복지사업이자 노인일자리 창출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소수민 대상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및 다문화가족 2세 등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사업’과 불교계의 다문화 가족 템플스테이 사업, 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의 종교문화캠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16〉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예산 현황(2011년~2012년)
(단위 : 억원)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증감율(%)	사업별 비중(%)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48.31	65.03	34.6	100.0
기타 장애인 대상 문화복지 사업	19.27	22.78	18.2	35.0
-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보급	14	15.58	11.3	23.9
- 장애인 대상 도서대출 서비스	0.07	2	2,857.1	3.1
- 한글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2.2	2.2	0	3.4
-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3	3	0	4.6
기타 노인 대상 문화복지 사업	24.53	38.15	55.5	58.7
-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2	2.61	31.0	4.0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21.85	34.53	58.0	53.1
- 노인층 대활자본 제작 보급	0.68	1	47.1	1.5
기타 다문화 소수민 대상 문화복지사업	4.51	4.1	△9.1	6.3
- 이주 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1.4	0.41	△70.7	0.6
- 종교계 소외계층 문화향유	3.11	3.69	18.6	5.7

자료 : 김휘정(2012),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사업 예산은 2012년에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노인·소수민 대상 문화향유사업 예산 중 노인 대상 문화향유 사업이 58.7%(38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배경의 소수민 대상 복지사업은 6.3%(4억원)로 가장 낮은 상태이다.

(4) 사회경제적 특성별 문화예술 향유 현황

문화복지사업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 관람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따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관람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군 지역 주민의 관람률이,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의 관람률이, 직업별로는 기타/무직, 농어업직의 관람률이,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이하의 관람률이 기타 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들이 문화복지사업에 있어 제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이후 이들 취약계층의 관람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관람률은 2003년 22.9%에서 2010년 28.6%로, 중졸 이하의 관람률은 42.7%에서 32.8%로, 군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은 44.8%에서 56.8%로, 기타/무직의 관람률은 54.5%에서 42.7%로, 100만원 미만 저소득계층의 관람률은 25.7%에서 24.6%로 변화하여 노인 및 군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은 상승했으나 저학력, 기타/무직, 저소득계층의 관람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사회경제적 특성별 문화예술 관람자의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03		2006		2008		2010	
		관람률	상대적 비율	관람률	상대적 비율	관람률	상대적 비율	관람률	상대적 비율
한번이상 관람 경험자		62.4		65.8		67.3		67.2	
연령	10대	93.2	15.4	93.6	11.1	89.1	10.6	93.5	11.7
	20대	88.3	31.0	91.4	26.8	93	26.0	92.6	23.3
	30대	70.2	25.7	77.7	26.2	80.5	26.5	88.5	23.5
	40대	52.7	16.2	64.7	20.8	67.1	21.3	70.1	21.9
	50대	29.9	9.7	43.8	9.0	46.1	8.9	51.3	12.0
	60대 이상	22.9	2.0	24.7	6.0	26.7	6.8	28.6	7.6
도시 규모	대도시	66.0	52.3	69.6	52.2	70.6	50.6	68.8	47.8
	중소도시	62.7	39.8	63.2	39.6	67.6	42.7	67.7	44.9
	군지역	44.8	7.9	57	8.3	48.9	6.7	56.8	7.3
학력	중졸이하	42.7	5.85	40.1	14.2	41.2	13.5	32.8	10.2
	고졸	55.2	46.99	63.4	40.9	62.9	36.7	67.7	41.6
	대재이상	82.8	47.15	86	45.0	86.8	49.8	85.7	48.2
직업	전문/관리직	80.2	5.5	87.2	3.8	82.3	3.8	85.1	4.6
	사무직	75.5	17.8	83.8	23.3	85.6	22.3	87.2	17.3
	서비스/판매직	56.8	17.4	63.7	14.7	68.2	16.4	61.8	26.4
	생산직	34.7	6.6	42.8	8.7	43.2	8.4	47.6	8.4
	자영업	41.2	4.5	50.9	4.4	54.6	3.3	-	-
	농업/어업	-	-	-	-	-	-	36.2	1.6
	주부	52.2	18.3	57	21.8	58.1	22.0	63.0	18.7
	학생	94.9	26.7	93.9	19.7	92.2	21.0	93.8	19.5
	기타/무직	54.5	2.9	42	3.6	37	2.9	42.7	3.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5.7	1.5	23.9	2.6	19.3	1.9	24.6	2.2
	100-199만원	52.0	23.9	54.7	17.5	48.3	12.6	46.6	12.2
	200-299만원	63.8	35.3	66.3	39.9	70.5	32.7	66.4	23.2
	300-399만원	70.1	27.4	79.7	27.6	79.4	32.6	75.3	32.7
	400만원이상	85.1	11.8	86.0	12.5	80.6	20.2	84.7	29.6

자료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년 개원기념세미나 자료집,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4)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과 사업현황

(1)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① 사업추진개요

경제적 여건 등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충청남도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며, 사업유형은 크게 문화카드사업, 기획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충청남도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

구분	문화카드사업	기획사업
사업개요	•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도서 등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제공혜택	• 카드 1매당 5만원 한도	• 1회 1인당 5만원 상당 프로그램
방법	• 문화카드 발급 후 전국 문화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 전국17개 시·도 지역주관처에서 지역특성 및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사업내용		•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문화카드플러스서비스 • 지역특화프로그램(백제문화체험 “거기가 봤슈?”,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자료 : 서정민(201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 워크숍

② 사업추진현황

충청남도의 경우 2012년 카드이용률 72.3%(전국 15위/2013.12.31.기준)에서 2013년(5.27 기준)의 경우 카드이용률은 32.4%(전국 8위), 카드발급률은 87.0%(전국 7위)로서 2012년 보다는 높은 추진현황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 차원에서는 중간정도의 추진현황을 보이고 있다.

〈표 19〉 문화이용권 사업추진 현황(전국대비)

시·도	카드이용률(%)	순위	카드발급률	순위
전국평균	32.4		83.0%	-
충남	32.4	8	87.0%	7

자료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2013.5.27 기준),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사업추진결과 내부자료.

시·군별로 이용률과 발급률 제고를 위해, 금산인삼축제 체험부스에 문화이용권 사용, 문화회관 공연 시 문화이용권 결재, 전년도 발급자 중 미이용자의 경우 금년도에 카드발급 제한, 지역 내 복지시설과 협력하여 단체 발급 및 이용유도, 읍면동의 독거노인관리사와 합동 발급, 매주 목요일 담장과장과 부면장 등이 ‘문화카드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2013.5.27 기준) 충청남도 시·군별 카드이용률과 발급률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논산시이며, 가장 저조한 곳은 당진시(카드이용률), 아산시(카드발급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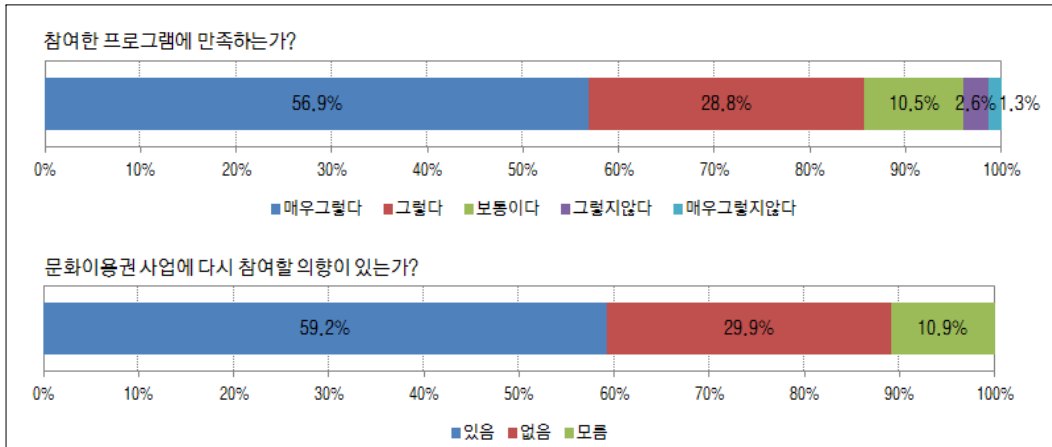
〈표 20〉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이용권 사업추진 현황

시군	카드이용률		카드발급률(%)	
	이용률(%)	순위	발급률(%)	순위
충남평균	32.4		87.0	
천안시	31.3	6	85.2	10
공주시	29.5	10	86.4	8
보령시	39.7	2	88.7	7
아산시	29.1	12	73.8	15
서산시	31.2	7	75.5	14
논산시	40.2	1	100	1
계룡시	30.9	8	79.8	13
당진시	26.2	15	85.7	9
금산군	30.5	9	95.1	3
부여군	28.2	13	80.3	11
서천군	29.5	11	94.1	4
청양군	28.2	14	80.1	12
홍성군	32.5	5	90.1	6
예산군	34.6	4	100	1
태안군	35.6	3	92.6	5

자료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2013.5.27 기준),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사업추진결과 내부자료

③ 성과와 문제점

충청남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의 취약계층에 문화향유와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업추진률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13〕 문화이용권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및 재참여 의향

첫째, 연령별 수혜계층에 있어 고령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용률과 참여율이 낮은 상태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읍·면 단위의 대상자들 중 노인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노인층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해 주어도 문화카드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¹¹⁾. 또한 노인층에 문화카드 발급이 아닌 기획사업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어려운 상태이다¹²⁾.

11)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층이 아닌 젊은 층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젊은 층에게 모두 발급을 하여도 발급카드 매수보다 젊은 층이 적은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노인층에 대한 배제와 외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노인층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기획사업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국가복지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대상자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유관기관에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것조차 민감한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진행이 어려우며 결국 단체가 아닌 개인 대상자, 특히 독거노인층에 대한 관리는 더욱 힘든 상태이다. 그리고 주관부서 내 인력운용의 제한(예술위 지침에 따름)으로 인해 4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이 근무하고 연간 10,000명 이상의 대상자를 행정상이 아닌 직접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관부서의 상황으로 볼 때 충청남도 전체에 산재해 있는 개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공연장 및 가맹점 접근성의 제약이 많아 이용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공연은 기획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시행 시에는 인구가 많고 타 시도에서 접근하기 쉬운 천안에서 하는데 행사개최 장소인 천안 예술의 전당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기획사 공연들이 대규모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기획사에서조차 충남권 공연장보다 대전권 공연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문화카드를 발급받아도 사용할 곳이 없어 대중화된 영화관조차 충청남도 내에서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에 있어 향유가 어려운 실정이다¹³⁾. 또한 가맹점도 분야가 도서, 영화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소비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특히 노인층이 실질적으로 도서 및 영화를 향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셋째, 주관부서 인력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져 사업의 효율적·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주관부서의 인력은 계약직으로 구성된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신분의 불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¹⁴⁾.

넷째, 충청남도 내 문화예술 공급 인프라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더불어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나, 충남권 내 문화예술산업은 주로 소규모의 전통예술에 한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공연은 충남권이 아닌 타 시도에 상주하는 업체들이 충남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득과 투자의 연계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¹⁵⁾.

13) 청양(1개)과 같이 가맹점 수가 전무하다시피 한 곳도 많으며, 상당수의 문화카드 가맹점들은 천안시, 보령시 등 도내 큰 규모의 시에 집중되어 있다.

14) 문화이용권 사업이 문화복지사업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보았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인력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5)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지원금과 기회에 있어 대중예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순수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21〉 2012년 충남 문화이용권 사업성과와 문제점

구 분	문화카드사업	기획사업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카드발급으로 인해 선택의 자유보장 • 다수 인원예 문화혜택 제공 • 가구별 청소년 계층 추가발급을 통해 실질적 소비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 • 저소득층에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카드 소비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획사업 구성을 통한 다각화된 지원방안 구축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차량 및 식사제공)을 통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 광역도가 가지는 지리적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주관부서의 자체집행을 통한 현장의 반응 점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지원금 부족으로 지속적 문화생활 및 분야가 제한적 • 광역도가 가지는 지역적 문제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부족(청양군: 1개), 접근성 취약 • 노인계층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카드발급에 대한 대상자들의 거부반응 • 가맹점 가입이 특정 분야에 한정(영화, 도서관에 집중) • 카드의 비효율적 소비구조 : 소액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모호 • 정책의 일관성 부재 • 발급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외면 • 문화카드의 자발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을 저조(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가 가지는 지리적 문제점들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은 단체나 시설에 한정됨 • 충남지역 예술단체 부족으로 인해 지역 내 문화인프라 활용이 어려움 • 수혜 사각지대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한계(독거노인, 가구 거주 장애인 등)

자료 : 서정민(201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문화바우처사업 중심- 워크숍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2) 공연나눔

①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사업

충청남도 내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연예인들이 찾아가는 공연활동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서, 농·어촌지역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년 4개 시군에 대해 사업비 60백만을 투자하고 있다¹⁶⁾.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연예인들이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적극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

16) 2012년에는 천안, 공주, 금산, 서천에서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보령, 논산, 부여, 태안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② 사랑티켓 사업

지역 공연 및 전시단체들의 우수작품 관람티켓 구입비용 지원함으로써 문화 예술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공연·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술단체들의 우수작품 창작에 장려하며 취약계층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104백만원의 사업비로 87개 작품 / 12,328매(개인 2,271, 단체 10,057)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2〉 2013년 사랑티켓 사업추진계획

구 분	사업 내용
사업기간	2013. 2 ~ 12월
사 업 비	104백만원 (중앙기금 52, 도비 52)
지원대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및 노인(65세 이상)
사업내용	공연 및 전시 관람티켓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공연 7천원, 전시 5천원(개인관람 연 10회 이내, 단체관람 연 1회) - 지원분야 :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음악, 전통, 전시 - 작품선정 : 매 2개월마다 참가작품 시스템에 신청(단체→한문연) ⇨ 전국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한문연)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道
주 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으로 약칭)
운영센터	(사)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③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충청남도에서는 공모를 통해 심사 후 단체를 선정 후, 선정된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야는 5개 공연예술분야(연극, 음악, 무용, 국악, 다원예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연 활동 지원현황은 2012년의 경우 320백만원의 사업비로 55개 단체(연극14, 음악9, 무용10, 국악15, 다원7)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407.4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3) 문화예술교육사업

충청남도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사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조역량 배경과 함께 문화격차 및 문화소의 해소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추진 사업으로는 ①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②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③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부·교과부·충남도·충남교육청 공동협력사업이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강사 인건비 및 학교 밖 연계프로그램 운영, 예술 강사 연수 및 평가 등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832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13년에는 790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국악으로 특화하여 전문강사를 선발,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국악이론과 실기, 민요, 판소리 등을 교육을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은 문화예술 공급자(행정기관, 대학, 학교, 공공문화기반시설)와 매개자(예술가단체, 문화예술 전문인력)간 협력망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를 통해 연간 30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12년에는 490백만원, 2013년에는 690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굴·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14개 시군 37개 단체, 37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향유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3〉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2012-13년)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기간	2012. 3 ~ 12월	2013. 2. ~ 12월
사업비	490백만원 (국비 245, 시·군비 245)	690백만원 (국비 345, 시·군비 345)
주최·주관	충청남도·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청남도·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추진흐름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	공모사업 진행(1월)→사업 확정(2월) 및 수행
사업량	31개 단체	14개 시군 37개 단체(당진시 미신청)

〈표 24〉 2013년 사회(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계획

시군명	단체명	분 야	사업명
14개	37개 단체		37개 프로그램
천안시 (5)	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인형극	입체로 살아나는 스토리텔링
	인터미디어 Space RM	미디어	여미락3 (더불어 미디어를 즐기다)
	한국예총천안지회	음 악	실버리드 앙상블
	충남인연맺기운동본부	문 화	도시농부 세상 길들이기
	문화공감대	음 악	'농촌어머니 사랑방 만들기'
공주시 (4)	철화분청연구회	공 예	손끝으로 표현하는 감성놀이터
	금강아트센터	공 예	우리들의 아름다운 예술동행 이야기
	백제문화예술네트워크	문 화	희망을 그려내는 신영마을 이야기
	충남교육연구소	문 화	영상에 담다/연극을 만들어 올리다
보령시 (3)	보령햇살작은도서관	공 예	몸따라 마음따라 즐겨요
	동네방네 조형연구소	미 술	희망동네 미술로 꽃피우다/연탄 미술로 날다
	희망꿈작은도서관	무 용	몸으로 표현하고 주민이 어울리는 행복가치 추구
아산시 (2)	떼아뜨르현대무용단	무 용	무용과 전통살리기 꿈의 무대
	에듀아트컴퍼니 통우	연 극	통우-소통친구 만들기
서산시 (4)	충남서부평생학습관	미 술	그리고!만들고!서산문화예술체험
	선소리산타령보존회	국 악	탐곡동에 달래심고 예술캐고
	도비스쿨	미 술	문화예술을 통한 역사 잡기
	달개문화재추진위원회	문 화	농어민과 함께하는 달개가로림 아트스쿨
논산시 (2)	충남남부평생학습관	미 술	소망상자의 꿈단지 이야기
	충남무용교육원	무 용	열정, 피어오르다
계룡시 (2)	한국예총계룡지회	미 술	무지개
	계룡퀵트협회	공 예	실·바늘·천으로 엮는 아시아
금산군 (3)	숲속마을작은학교	문 화	마을이야기, 이심전심
	음악교육연구소 클랑	음 악	제원면 어린이 음악대
	한국사진교육학회	사 진	사진예술로 꽃핀 나의 삶
부여군	에이스벤추라	미디어	우리 마을 문화탐험대
서천군 (2)	여우네도서관	국 악	함께 만드는 마을문화마당
	극단 산너울패	연 극	서천이야기 꽃 피우는 이주민 연극학교
청양군	극단 이야기공장	문 화	숨어있는 이야기 문화 트레킹
홍성군 (4)	우리문화전문 연희단체 '꾼'	전 통	봉암장수마을, 우리 옛 이야기로 지역과 하나되다
	홍성상태나무학교	문 화	나라를 사랑한 홍성의 예술가 3인3색
	공감문화예술연구소	미 술	색깔 두 개·기쁨 두 배
	문화in장꾼	문 화	전통상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학체험
예산군 (2)	김한중의사기념관	문 화	예술로 만나는 어르신들의 옛이야기
	대흥슬로우시티협의회	사 진	렌즈를 통해 본 우리 마을
태안군 (2)	아티스트그룹 나오리	문 화	술바람타고 초록미소지어요!
	한국예총태안지회	연 극	'아'줌마들의 힐링 캠프

4. 이론고찰과 정책검토의 시사점

1) 이론고찰의 시사점

(1)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의 확대

미래 문화트랜드 체계에서 문화복지에서는 맞춤형·생애주기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과 대상 개념 확대, 고령층과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안전망 체계의 구축 등의 문화복지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증가하는 한편, 이들 지원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되면서 문화복지 관련 사업량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복지 정책의 대상과 수요가 확대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 문화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방향의 전환

문화복지정책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부재 등으로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계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는 사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층이 경제적 또는 지역적인 이유로 문화취약계층(cultural disadvantaged group)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서민층까지 포함하는 문화복지 정책을 통해 문화·여가부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 정책의 수혜대상을 서민층으로 확대하되, 소득분위별 문화향유 실태(예술관람, 문화소비, 문화욕구, 교육경험 등)를 토대로 계층별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지역단위 및 행정구역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문화복지정책의 지원사업 추진은 현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문화향유는 일상생활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복지 정책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정책수립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도 행정구역 안에서의 지역별로 편차는 크고, 읍과 면 지역별로는 인구나 도시화, 문화시설, 인구 특성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며, 같은 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산간지역과 농촌지역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인구특성, 자연조건, 경제수준, 도시화 수준,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지역끼리 유형화 하고, 이를 기초단위로 삼아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문화복지 지원제도와 전달체계의 개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존의 문화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이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바우처와 사랑티켓 사업은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각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을 각자가 서로 다른 지역 주관사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노력과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전라북도, 2012).

이 밖에도 문화향유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재정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제도와 중개 중심의 지원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전달체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앙정부 정책검토의 시사점

(1)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확대

대통령의 임기별로 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문화공간의 건립과 문화기반시설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 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문화복지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변화하여 지원대상의 범위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명확해지면서 문화복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문화와 일상생활의 연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로 구분되고 있다. 동시에 문화복지 대상도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예술 체험·교육 지원,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복지사업의 지원대상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소외계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 다양한 문화소외 대상영역별 문화복지사업의 발굴 및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득, 연령, 성별, 장애, 교육, 가족형태, 거주지역, 국적 등 경제적·신체적 조건 및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받을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하고 있다.

문화적 취약계층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을 관람, 학습, 표현, 봉사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저소득층), 신체적 요인(장애인), 일시적 격리(교정시설 및 소년원 수용자, 군인), 문화적 요인(이주노동자, 새터민), 복합적 요인(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모두 해당되고 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 대상영역

별로 그들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대상 계층별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등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의 활성화

문화복지정책 사업 중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집중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본다면,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나눔사업으로 ①문화바우처사업, ②공연나눔사업, ③문화나눔사업, ④전시나눔사업, ⑤창작나눔사업으로 구분된다.

주요 단위사업의 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은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사랑터 켓지원 사업, 전통나눔사업, 문화나눔사업,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 그램 개발지원사업, 공공박물관 · 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나눔사업(이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이 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을 받아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권기금 전입 문화나눔사업의 예산은 2012년 총 574억원으로 전체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 사업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액수이다. 단위사업별 예산 세목을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의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고, 공연나눔사업이 28%로 그 다음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2012년에 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372억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195억원으로 약 34.4%의 사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으로 예산은 2012년에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 노인 · 소수민 대상 문화향유사업 예산 중 노인 대상 문화향유 사업이 55%(38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과 다문화 배경의 소수민 대상 복지사업 6%(4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 사업은 복권기금 전입 문화나눔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충남 문화복지 정책과 지원사업 검토의 시사점

(1)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의 개선 필요

충남의 2012년 문화이용권 카드이용률 72.3%(전국 15위/2013.12.31.기준)에서 2013년(5.27 기준)의 경우 카드이용률은 32.4%(전국 8위), 카드발급률은 87.0%(전국 7위)로서 2012년 보다는 높은 추진현황이다.

그러나 충남의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최근 카드이용률과 발급률을 높이면서 문화소의 취약계층에 문화향유와 기회를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① 문화이용권 사업참여에 고령자가 많아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용률과 참여율이 낮고, 특히, 읍·면 단위에 노인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개선 필요
- ② 공연장 및 가맹점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용률에 한계가 있고, 문화카드를 발급받아도 사용할 곳이 한정되어 문화소비에 어려움이 많아 찾아가는 서비스와 가맹점 확대 필요
- ③ 주관부서 운영인력의 안정성이 떨어져 사업의 효율적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확보가 필요
- ④ 충청남도 내 문화예술 공급 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 지원이 어렵고, 상당수의 공연은 타 시도에 상주하는 업체들이 진행하여 선순환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지원 필요

(2) 공연나눔 사업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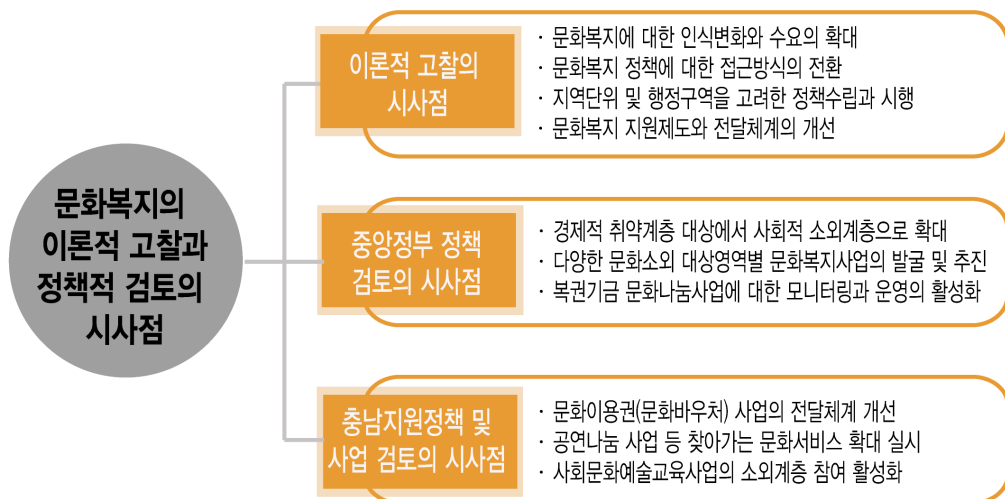
공연나눔 사업으로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을 연예인들이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적극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어 재정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랑티켓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예산의 한계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와 공모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소외계층 참여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①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②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③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향유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사업과 문화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14] 이론고찰과 정책검토의 시사점

제3장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분석

1. 충남 문화향유 지역주민의식조사 분석

1) 조사분석의 개요

(1)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문화시설이용 실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과 문화복지사업의 참여실태 등을 통해 문화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조사방법 및 대상

충남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를 설문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임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기입방식은 응답자가 기입하는 자기기입설문지(self-administered)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요원은 설문목적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 조사원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은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주민 총 1,1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를 통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지역 및 소득간의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시설 이용 등의 실태에 대한 부문과 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과 복지사업의 참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00부중 불성실한 응답 44부를 제외한 1,056부가 유효표본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25〉 조사개요 및 설문내용

구 분	조사설계 내용
조사목적	•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 및 문화소외계층 의식조사
조사대상	• 충남 15개 시군 지역주민
조사방법	• 교육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인터뷰 면접조사
주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민의 문화향유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 -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 - 문화시설 이용실태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과 문화복지사업 참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 - 문화복지사업 참여실태 • 일반 인구통계학적 사항

(4)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49.3%, 여자가 50.7%로 여자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24.7%로 가장 많고 30-39세가 24.4%, 50-59세가 20.1%로 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응답의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포는 201-300만원이 27.8%, 301-400만원이 22.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조사되었다

〈표 26〉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응답자 (명)	비율 (%)
남자	521	49.3
여자	535	50.7
계	1056	100.0
연령	응답자 (명)	비율 (%)
20-29세	162	15.3
30-39세	258	24.4
40-49세	261	24.7
50-59세	212	20.1
60-69세	141	13.4
70대 이상	22	2.1
계	1,056	100.0

학력	응답자 (명)	비율 (%)
중졸이하	199	18.8
고졸	546	51.7
대졸	302	28.6
대학원졸업이상	9	0.9
계	1,056	100.0
소득	응답자 (명)	비율 (%)
100만원 이하	179	17.0
1010-200만원	210	19.9
201-300만원	294	27.8
301-400만원	242	22.9
401-500만원	109	10.3
501만원 이상	22	2.1
계	1,056	100.0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가정주부가 19.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18.9%, 서비스직 14.8%, 농림어업 14.7%, 사무직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시군은 인구비례를 통해 임의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천안시가 가장 많은 11.8%의 분포를 보였다. 동읍면별로는 동이 전체 응답의 49.3%로 나타났으며, 읍이 33.7%, 면이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응답자의 직업과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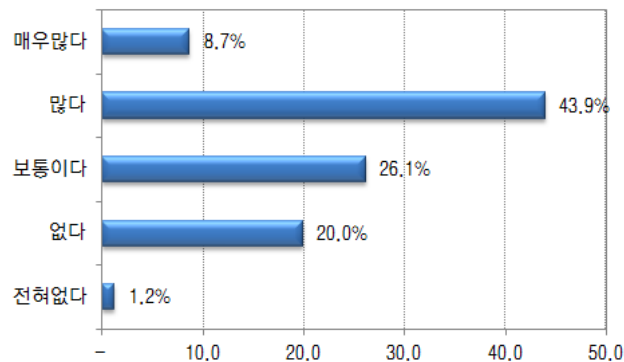
직업	응답자 (명)	비율 (%)	거주시군	응답자 (명)	비율 (%)
농림어업	155	14.7	천안시	125	11.8
생산직	65	6.2	공주시	79	7.5
사무직	115	10.9	보령시	63	6.0
자영업	199	18.9	아산시	95	9.0
공무원	39	3.7	서산시	84	8.0
서비스직	156	14.8	논산시	79	7.5
전문직	14	1.3	당진시	86	8.1
관리직	13	1.2	계룡시	53	5.0
대학(원)생	48	4.5	금산군	58	5.5
가정주부	204	19.3	부여군	53	5.0
기타	47	4.5	서천군	58	5.5
계	1055	100.0	청양군	53	5.0
읍면동	응답자 (명)	비율 (%)	홍성군	58	5.5
동	518	49.3	예산군	60	5.7
읍	354	33.7	태안군	52	4.9
면	178	17.0	계	1,056	100.0
계	1050	100.0			

2.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

1) 충남도민의 문화활동 성향 분석

(1)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분야

충남도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다’와 ‘많다’의 응답이 52.6%를 차지하여 전체응답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관심이 ‘전혀 없다’와 ‘없다’는 단지 21.2%를 보이고 있어, 문화생활에 대한 충남도민의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5〕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충남도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은 소득별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301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이 3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에 비해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보였으며, 가장 관심이 높은 집단은 월소득 401-5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주민은 물질,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반면, 그래도 일정정도 소득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은 문화생활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는 문화예술의 향유가 단순히 공급자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여건 및 태도 분석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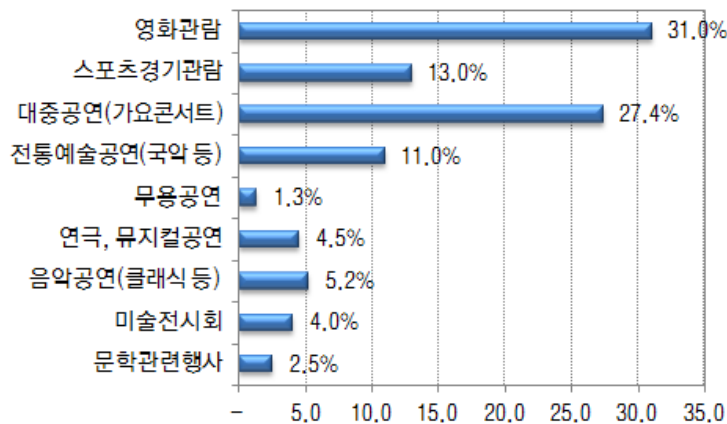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적 함의는 주거지역별 도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동’ (55.4%), ‘읍’ (55.9%) 등과 같이 도시지역 주민의 경우는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면’의 지역은 37.0%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시설이나 이벤트에 대한 접근이 수월한 지역일수록 주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시 문화활동에 대한 경험,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객관적인 문화향유 인프라 여건이 주민의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그림 16〕과 같이 충남도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분야별 관심도는 ‘영화관람’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콘서트’ (26.9%), ‘스포츠 경기관람’ (13.0%)의 순이었다. 반면에 ‘무용공연’ (1.3%), ‘문학행사’ (2.5%), ‘미술전시회’ (4.0%), ‘연극, 뮤지컬공연’ (4.5%), ‘음악공연’ (5.2%) 등 문화예술 장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표 28〉 소득과 거주지별 문화예술 관심의 차이분석

구분		문화예술관심					전체
		전혀없다	없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많다	
소득	100만원이하	1.7	30.2	33.0	31.8	3.4	100.0
	101-200만원이하	1.9	30.5	22.4	41.4	3.8	100.0
	201-300만원이하	0.3	21.1	26.9	42.9	8.8	100.0
	301-400만원이하	1.7	8.7	25.2	55.4	9.1	100.0
	401-500만원이하	0.9	5.5	22.0	46.8	24.8	100.0
	501만원이상	-	18.2	27.3	40.9	13.6	100.0
	전체	1.2	20.0	26.1	43.9	8.7	100.0
거주지	동	0.8	16.8	27.0	45.6	9.8	100.0
	읍	1.4	17.5	25.1	48.3	7.6	100.0
	면	2.2	34.8	25.8	30.3	6.7	100.0
	전체	1.2	20.1	26.2	43.9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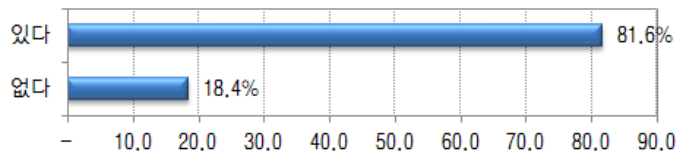
이는 충남도민들이 평소에 쉽게 접하지 않거나 접할 수 없는 장르보다는 영화관람이나 대중 공연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위 순수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저조한 관심은 앞으로 좀 더 도민들에게 전통(향토문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6〕 문화활동의 관심분야

(2)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 또는 관람했던 경험을 가진 도민이 81.6%였고, 경험을 하지 않거나 못했던 비율이 18.4%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직도 5명 중 1명 정도의 도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좀 더 진전된 분석을 통해 그 원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7)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충남도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 차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도가 높았으며, 특히 401만원 이상 소득집단의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10명 중 9명이 문화활동을 참여 또는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가 소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활동의 참여가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중요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주거지역별로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도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 지역의 경우는 87.8%가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3%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역시 위에서 언급된 경제적인 여건과 더불어)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읍’이나 ‘면’의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접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지역적 변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9〉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활동 참여 및 관람경험

구분		참여 및 관람		전체
		없다	있다	
소득	100만원이하	24.0	76.0	100.0
	101-200만원이하	24.8	75.2	100.0
	201-300만원이하	21.1	78.9	100.0
	301-400만원이하	11.6	88.4	100.0
	401-500만원이하	6.4	93.6	100.0
	501만원이상	9.1	90.9	100.0
	전체	18.4	81.6	100.0
거주지	동	12.2	87.8	100.0
	읍	22.3	77.7	100.0
	면	28.7	71.3	100.0
	전체	18.4	81.6	100.0

충남도의 시군 지역별 문화활동의 참여 또는 관람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양군’이 9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홍성군’ (94.8%), ‘보령시’ (93.7%), ‘아산시’ (90.5%)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천군’으로 단지 55.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는 각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차와 특히 표집 단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편향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는 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단위를 읍·면·동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위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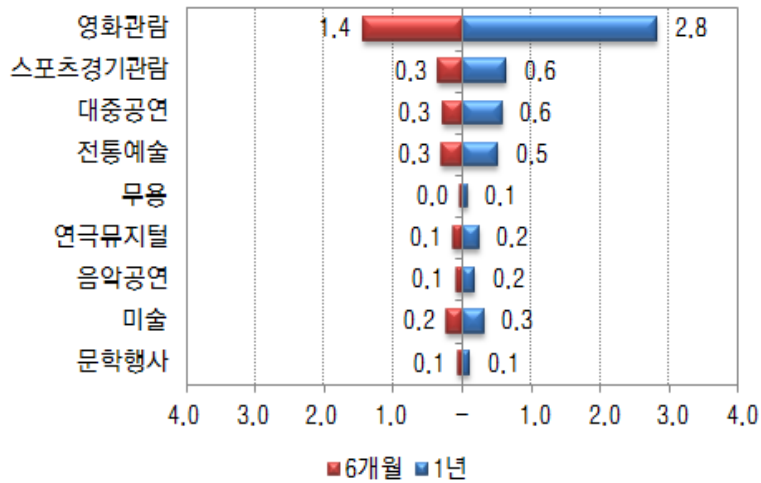
〈표 30〉 시군별 문화활동 참여 및 관람경험

구분		참여 및 관람		전체
		없다	있다	
거주시군	천안시	17.6	82.4	100.0
	공주시	20.3	79.7	100.0
	보령시	6.3	93.7	100.0
	아산시	9.5	90.5	100.0
	서산시	17.9	82.1	100.0
	논산시	10.1	89.9	100.0
	계룡시	20.8	79.2	100.0
	당진시	20.9	79.1	100.0
	금산군	31.0	69.0	100.0
	부여군	13.2	86.8	100.0
	서천군	44.8	55.2	100.0
	청양군	1.9	98.1	100.0
	홍성군	5.2	94.8	100.0
	예산군	30.0	70.0	100.0
	태안군	34.6	65.4	100.0
	전체	18.4	81.6	100.0

(3) 문화예술 관람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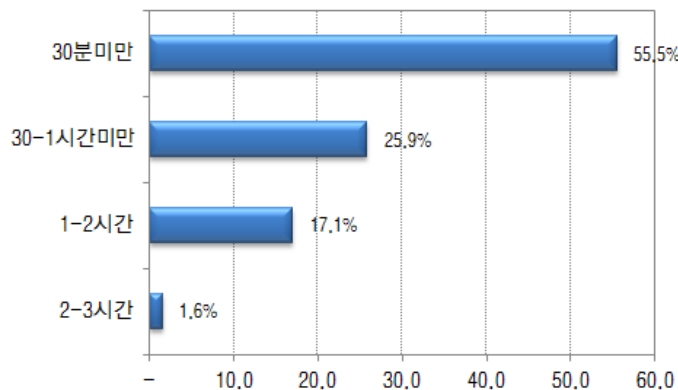
① 문화예술 참여회수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회수’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이 참여했던 문화예술 분야는 ‘영화관람’ (2.8회)이었고, 다음으로 ‘스포츠경기관람’ (0.6회), ‘대중공연’ (0.6회), ‘전통예술’ (0.5회) 순이었다. 도민들이 가장 적게 참여한 장르는 ‘무용’ (0.1회), ‘문학행사’ (0.1회) 등 주로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장르들이었다. 앞에서 살펴 본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충남도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문화예술도 주로 대중문화 분야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문화예술활동 참여횟수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문화예술 활동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55.5%가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하루에 평균 1-3 시간을 문화예술 활동에 소비한 사람은 단지 18.7%였다. 이는 아직도 문화예술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문화예술의 생활화가 도정의 기조가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그림 19] 평균 문화예술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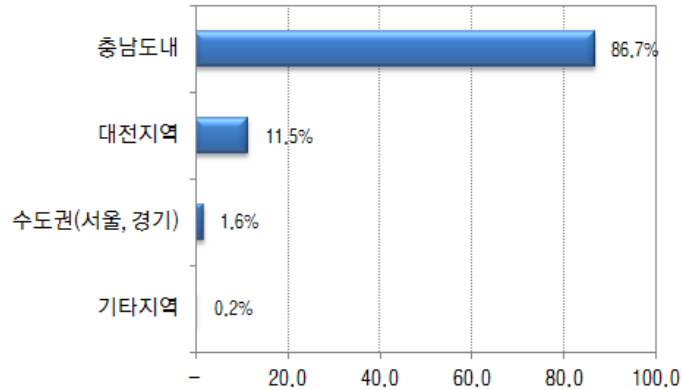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문화예술 활동시간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문화예술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소득변수와 달리 거주지의 특성은 문화예술 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 본 문화생활 참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동’의 주민들은 ‘읍’이나 ‘면’ 주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화예술활동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소득 및 거주지별 하루평균 문화활동시간

구분		하루평균 활동시간				전체
		30분미만	30-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소득	100만원이하	52.9	16.9	29.4	0.7	100.0
	101-200만원이하	67.7	12.7	18.4	1.3	100.0
	201-300만원이하	52.6	19.8	23.3	4.3	100.0
	301-400만원이하	57.0	37.9	4.7	0.5	100.0
	401-500만원이하	45.1	44.1	10.8		100.0
	501만원이상	45.0	40.0	15.0		100.0
	전체	55.5	25.9	17.1	1.6	100.0
거주지	동	50.8	28.4	20.0	0.9	100.0
	읍	57.5	26.2	13.1	3.3	100.0
	면	67.7	15.7	15.7	0.8	100.0
	전체	55.4	25.8	17.2	1.6	100.0

② 문화예술활동 및 관람지역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지역은 대부분 충남도내(86.7%)에 제한되어 있고, 11.5%가 인접한 대전광역시까지 진출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로 미미하지만 소수의 도민들이 수도권(서울과 경기) 지역까지 진출하여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의 지역까지 다녀오는 도민은 거의 없는 것(0.2%)으로 드러났다. 이는 충남도 내의 문화예술 행사가 도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임을 의미하며,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0]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지역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 지역을 벗어나 대전광역시나 수도권에까지 진출하여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시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지역적 이동과 관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2〉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예술활동 관람지역

구분		활동 및 관람지역				전체
		충남도내	대전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기타지역	
소득	100만원이하	100.0	-	-	-	100.0
	101-200만원이하	93.0	7.0	-	-	100.0
	201-300만원이하	78.0	20.3	1.3	0.4	100.0
	301-400만원이하	86.0	10.7	2.8	0.5	100.0
	401-500만원이하	82.4	13.7	3.9	-	100.0
	501만원이상	75.0	20.0	5.0	-	100.0
	전체	86.7	11.5	1.6	0.2	100.0
거주지	동	87.9	9.5	2.4	0.2	100.0
	읍	84.7	13.8	1.1	0.4	100.0
	면	85.8	14.2	-	-	100.0
	전체	86.6	11.6	1.6	0.2	100.0

거주 지역별로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동’ 보다는 ‘읍’ 과 ‘면’ 의 주민이 약간 더 많이 외지로 진출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특성상 ‘읍’ , ‘면’ 의 경우는 문화예술행사가 빈약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 주민은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타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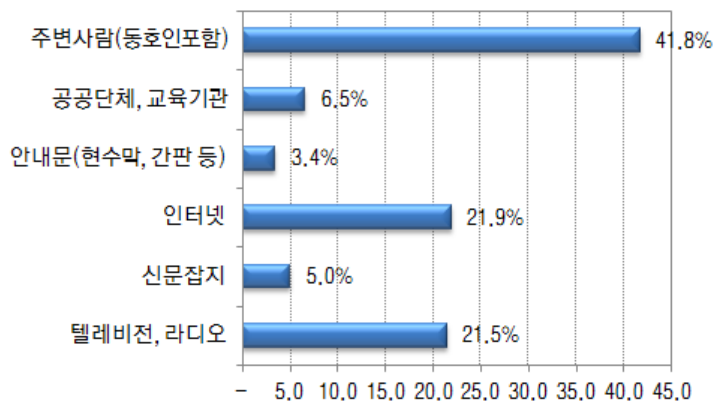
충남도 시군별 주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지역별로 ‘금산군’ , ‘계룡시’ , ‘공주시’ 등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시’ , ‘보령시’ , ‘아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에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지역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표 33〉 시군별 문화예술활동 및 관람지역

구분		활동 및 관람지역				전체
		충남도내	대전지역	수도권 (서울,경기)	기타지역	
거주시군	천안시	76.7	14.6	7.8	1.0	100.0
	공주시	77.8	22.2	-	-	100.0
	보령시	96.6	-	3.4	-	100.0
	아산시	97.7	-	2.3	-	100.0
	서산시	100.0	-	-	-	100.0
	논산시	93.0	7.0	-	-	100.0
	계룡시	61.9	38.1	-	-	100.0
	당진시	98.5	1.5	-	-	100.0
	금산군	22.5	77.5	-	-	100.0
	부여군	93.5	6.5	-	-	100.0
	서천군	78.1	15.6	3.1	3.1	100.0
	청양군	94.2	5.8	-	-	100.0
	홍성군	100.0	-	-	-	100.0
	예산군	100.0	-	-	-	100.0
	태안군	79.4	17.6	2.9	-	100.0
	전 체	86.7	11.5	1.6	0.2	100.0

③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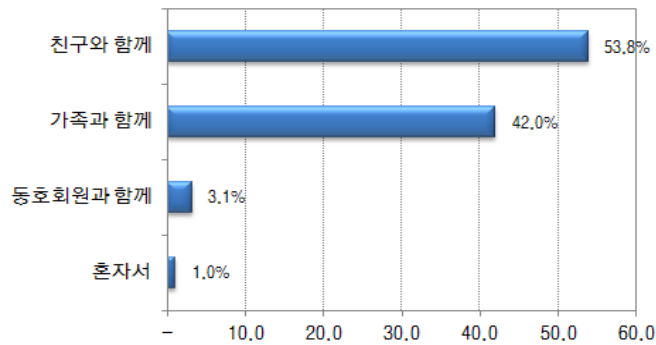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주변사람(동호인 포함)’ 이 가장 높은 41.8%이고, 다음으로 ‘인터넷’ (21.9%), ‘TV, 라디오’ (21.5%) 등이었다. 역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정보전달 수단이었던 ‘신문, 잡지’ (5.0%), ‘안내문(현수막, 간판 등)’ (3.4%) 등의 역할이 약화되고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특히 이러한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전달은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설득적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 경로

④ 문화예술관람 활동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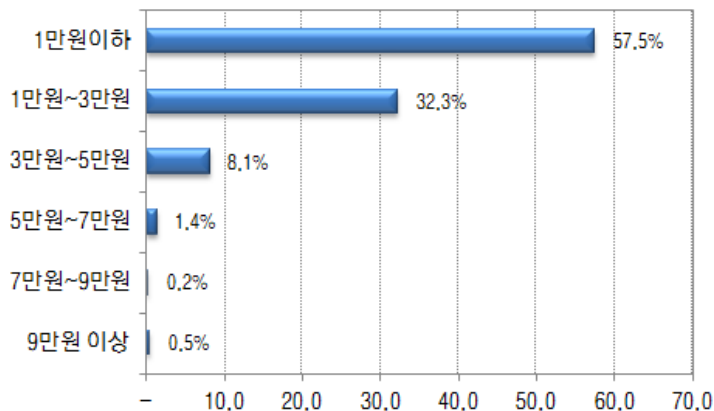
충남도민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3.8%가 ‘친구와 함께’ 가고 있으며, 42.0%가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의외로 ‘동호회원과 함께’ 가는 경우가 3.1%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문화예술 동호회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친구나 가족의 참여를 고려하여 기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 문화예술 관람 활동 동반자

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소요비용

충남도민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면서 지출하는 한 달간 평균비용을 보면 57.5%가 ‘1만원 이하’ 이고, 32.3%가 ‘1-3만원’ 을 소비하고 있다. 그 외에 ‘3-5만원’ 을 지출하는 비율이 8.1%이며, ‘5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단지 2.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지출정도가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이 크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반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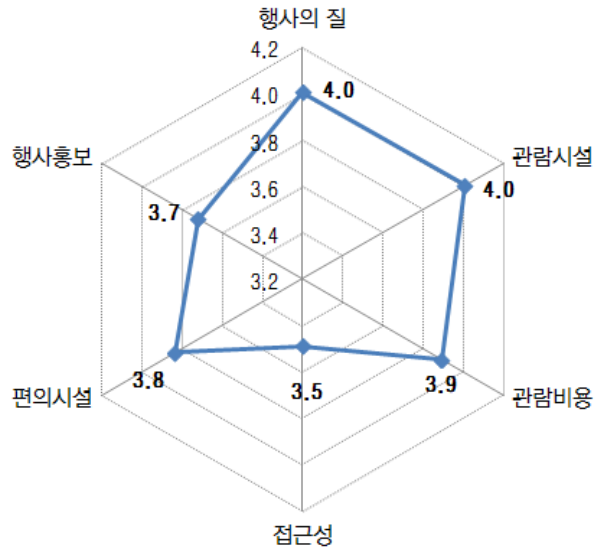
[그림 23] 문화예술활동 소요비용(1개월)

〈표 34〉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예술 활동 소요비용(1개월)

구분		소요비용						전체
		1만원이하	1-3만원	3-5만원	5-7만원	7-9만원	9만원이상	
소득	100만원이하	94.1	4.4	0.7	-	-	0.7	100.0
	101-200만원이하	77.8	19.0	3.2	-	-	-	100.0
	201-300만원이하	64.2	24.6	9.1	1.3	0.4	0.4	100.0
	301-400만원이하	33.2	54.7	10.7	1.4	-	-	100.0
	401-500만원이하	18.6	60.8	16.7	3.9	-	-	100.0
	501만원이상	30.0	30.0	15.0	10.0	5.0	10.0	100.0
	전체	57.5	32.3	8.1	1.4	0.2	0.5	100.0
거주지	동	53.2	34.5	9.5	2.0	0.2	0.7	100.0
	읍	59.3	31.3	8.4	0.7	0.4	-	100.0
	면	69.3	26.0	3.1	0.8	-	0.8	100.0
	전체	57.5	32.2	8.2	1.4	0.2	0.5	100.0

⑥ 문화예술행사 참여 여건의 만족도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할 경우 경험하는 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만족도(전체평균 3.8점)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행사의 질’ (4.0점)이나 ‘관람시설’ (4.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관람비용’ (3.9점), ‘편의시설’ (3.8점), ‘행사홍보’ (3.7점)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접근성’ (3.5점)의 경우는 전체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지만 광역도로서 충남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아주 낮은 만족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행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개선과 더불어, 행사관련 정보가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람비용의 경우는 문화예술 행사의 참여집단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24] 문화예술관람 행사 만족도

문화예술행사 참여여건에 대한 소득집단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4>와 같이 ‘행사의 질’, ‘관람시설’, ‘관람비용’, ‘행사홍보’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접근성’과 ‘편의시설’의 경우는 $p>0.05$ 로 나타났다. 이는 관람시설을 포함한 행사의 품질이나 행사홍보, 참여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득에 다른 집단별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득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의 경우는 소득집단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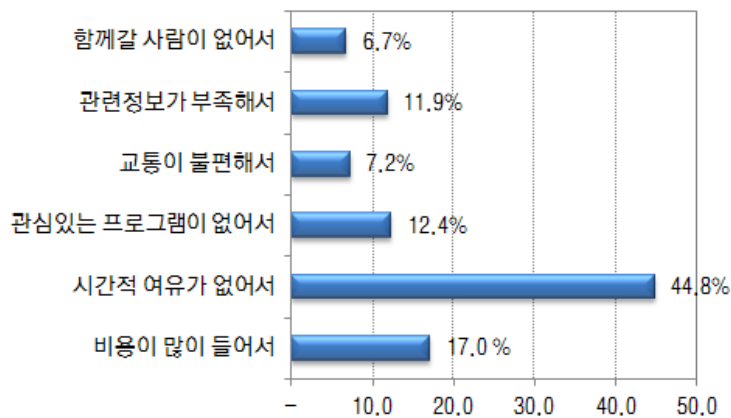
<표 35> 문화예술행사 만족도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 분석

구분	응답수(N)	평균(3.8)	표준편차	F	유의확률(P값)
행사의질	862	4.0	0.595	7.012**	0.00
관람시설	862	4.0	0.766	3.521**	0.00
관람비용	862	3.9	0.878	10.630**	0.00
접근성	862	3.5	0.895	6.015	0.06
편의시설	862	3.8	0.705	2.112	0.06
행사홍보	862	3.7	0.886	7.419**	0.00

* = $p<0.05$, ** = $p<0.01$

⑦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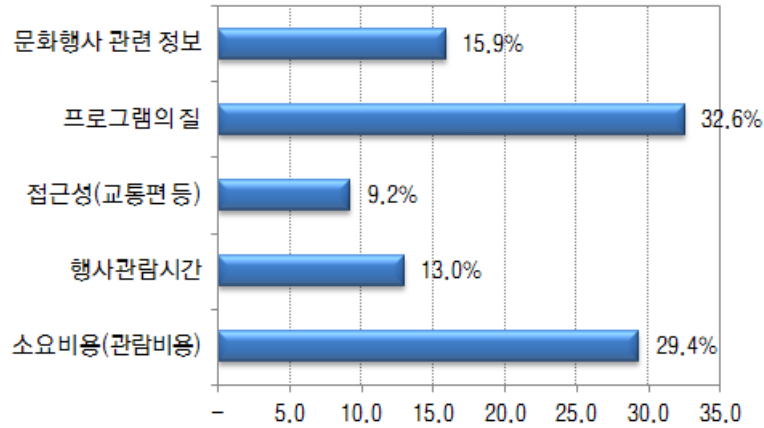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가장 제약이 되는 요인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17.0%),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2.4%), ‘관련정보가 부족해서’ (11.9%) 순이었다. 역시 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는 아직도 시간과 비용 등의 요인임을 수 있다. 또한 행사에 대한 홍보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중요한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경우 기획단계에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 문화예술행사에 관람하지 못한 이유

⑧ 문화예술행사 관람에서 고려하는 우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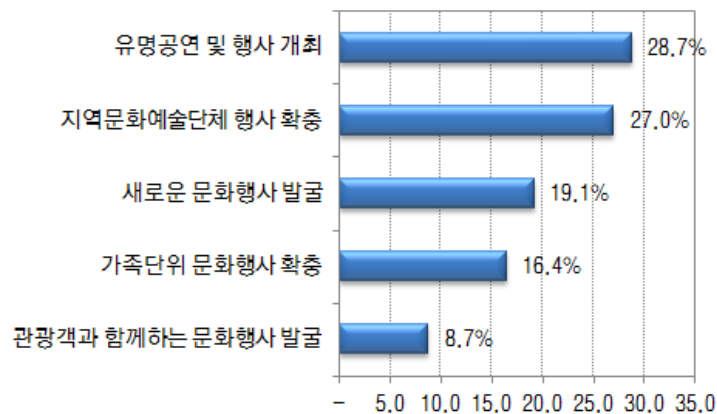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의 질’ (32.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요비용(관람비용)’ (29.4%), ‘문화행사 관련 정보’ (15.9%), ‘행사관람시간’ (13.0%) 순이었다. 또한 예상과 달리 ‘접근성(교통편 등)’ (9.2%)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동시에 관람비용을 고려한 행사기획, 즉 소득집단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기획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림 26〕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우선 선택요소

⑨ 문화예술행사를 관람을 위한 보완사항

충남도민들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우선 ‘유명공연 및 행사’ (28.7%),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확충’ (27.0%) 등을 들었고, 다음으로 ‘새로운 문화행사 발굴’ (19.1%)과 ‘가족단위 문화행사 확충’ (16.4%)을 지적하였다. 그에 반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발굴’ (8.7%)은 중요한 보완사항으로 여기지지 않고 있어, 이는 도민들이 외부인보다는 주민들 자신을 위해서 문화행사가 개최되기를 더 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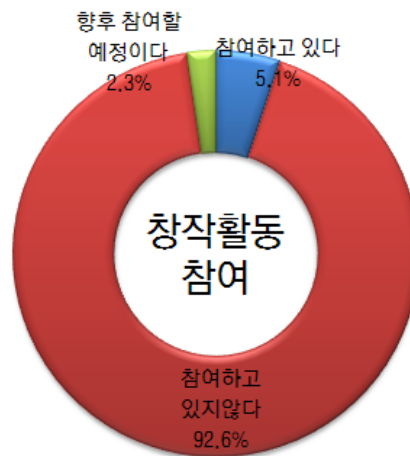
〔그림 27〕 문화예술행사의 관람을 위한 보완사항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성향 분석

(1)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 여부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한 최근의 흐름은 단순히 감상이나 관람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 창작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예능을 발휘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도정의 문화예술 지원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도민들이 직접 창작에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1%이고, ‘향후 참여할 예정이다’가 2.3%였다. 이는 합하면 응답자의 7.4%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비율의 참여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변화하는 문화예술 향유방식을 고려할 때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92.6%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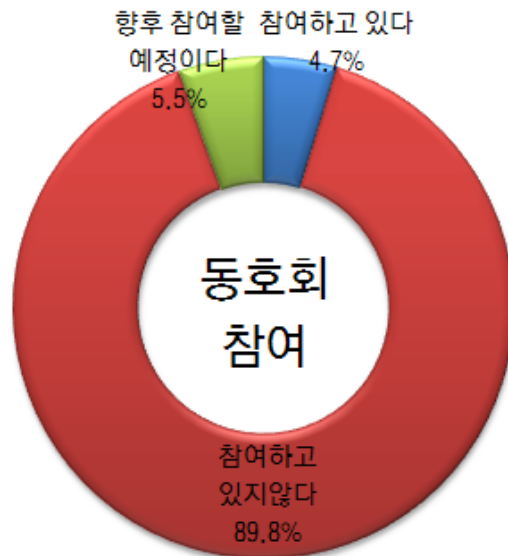
〔그림 28〕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 여부

(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참여 여부와 부담요인

사회적으로 생활의 환경이 점점 더 다원화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도 점점 더 다양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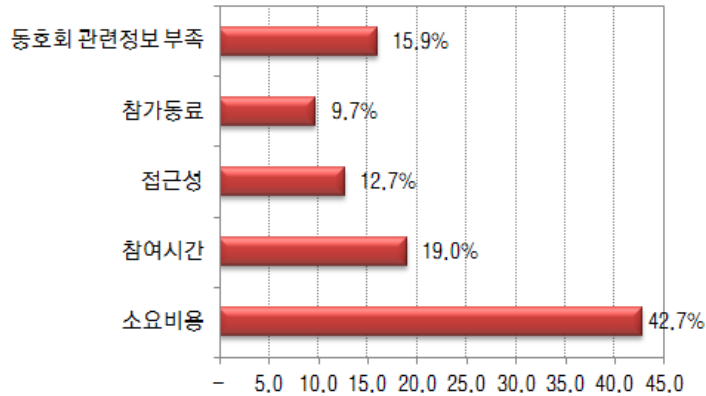
태로 가능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도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도모하는 문화예술 동호회가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호회 활동은 점점 더 형식화되어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건조한 인간관계에 새로운 공동체성을 부여하면서 참여자의 개인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향유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비율은 4.7%이고, 향후 참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 5.5%를 합해도 10.2%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는 10명 중 1명이 문화예술 동호회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도 89.8% 비율의 도민이 문화예술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변화하는 문화예술 향유 방식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9〕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참여 여부

충남도민들이 문화예술 동호회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42.7%가 ‘소요비용’을 들었고, 다음으로 ‘참여시간’ (19.0%), ‘동호회 관련정보 부족’ (15.9%), ‘접근성’ (12.7%), ‘참가동료’ (9.7%) 순이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며, 이는 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0]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참여 부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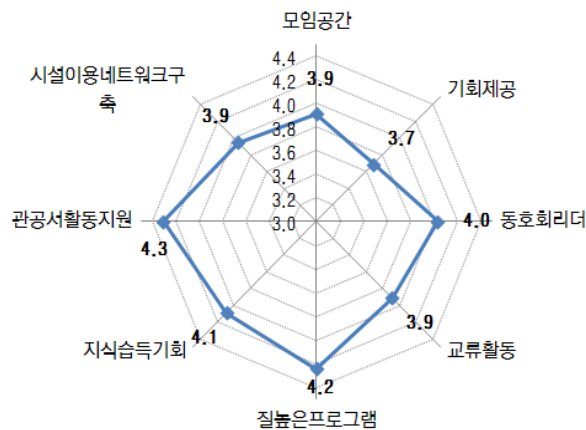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활동의 참여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비용의 문제는 역시 소득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집단은 71.2%가 부담요인으로 지적했고, ‘101-200만원 이하’ 47.8%, ‘301-400만원 이하’ 31.1%를 보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이라 할 수 있는 ‘401-500만원 이하’ 20.4%, ‘501만원 이상’ 13.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호회활동 참여비용은 소득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동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소득 집단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소득집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 소득과 거주지별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부담요인

구분		동호회 참여 부담요인					전체
		소요비용	참여시간	접근성	참가동료	정보부족	
소득	100만원이하	71.2	7.9	11.3	4.0	5.6	100.0
	101-200만원이하	47.8	15.3	13.4	10.0	13.4	100.0
	201-300만원이하	41.8	17.1	14.0	14.7	12.3	100.0
	301-400만원이하	31.1	27.8	7.9	8.3	24.9	100.0
	401-500만원이하	20.4	29.6	17.6	6.5	25.9	100.0
	501만원이상	13.6	18.2	27.3	18.2	22.7	100.0
	전체	42.7	19.0	12.7	9.7	15.9	100.0
거주지	동	46.4	20.7	8.7	8.9	15.3	100.0
	읍	34.7	17.8	17.2	11.7	18.6	100.0
	면	48.6	16.4	15.3	8.5	11.3	100.0
	전체	42.9	19.0	12.7	9.8	15.7	100.0

(3)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충남도민들이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는 요소를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전체평균 4.0점) 편이었고, 항목별로는 ‘관공서의 활동지원(예산지원 등)’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4.2점), ‘지식습득 기회(교육기능)’(4.1점), ‘전문지도자나 상담자(동호회 리더)’(4.0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이용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3.9점), ‘모임(활동, 연습)에 필요한 상시공간’(3.9점), ‘동호회간 정보제공(교류활동)’(3.9점) 등과 같은 모임활동을 함께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나 네트워크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1]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정기적 발표기회 제공’, ‘전문지도자나 상담자(동호회 리더)’, 동호회간 정보제공(교류활동)’, ‘관공서의 활동지원(예산지원 등)’, ‘시설이용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질 높은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임(활동, 연습)에 필요한 상시공간’, ‘지식습득 기회(교육기능)’에 대해서는 소득집단별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호회 활동이 학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동호회의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정책은 소득집단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여타의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접근할 경우에는 소득집단별 차이를 고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37〉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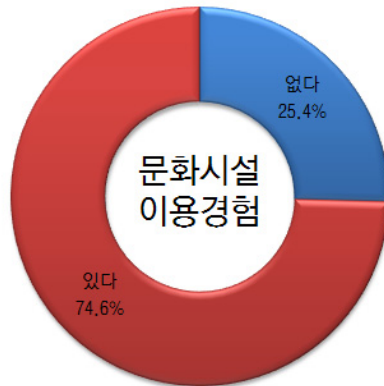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 (N)	평균 (4.0)	표준 편차	F	유의확률 (P값)
모임공간	1,056	3.9	0.641	1.606	0.16
기획제공	1,056	3.7	0.923	3.767**	0.00
동호회리더	1,056	4.0	0.878	7.189**	0.00
교류활동	1,056	3.9	0.891	5.193**	0.00
질높은프로그램	1,056	4.2	0.768	2.984*	0.01
지식습득기회	1,056	4.1	0.737	1.385	0.23
관공서활동지원	1,056	4.3	0.721	4.027**	0.00
시설이용네트워크구축	1,056	3.9	0.811	7.401**	0.00

* = $p < 0.05$, ** = $p < 0.01$

3) 문화시설 이용성향 분석

(1) 문화시설 이용경험

충남도민이 지난 1년간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6%가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충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시설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 지역과 달리 읍, 면의 경우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시설의 확충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2〕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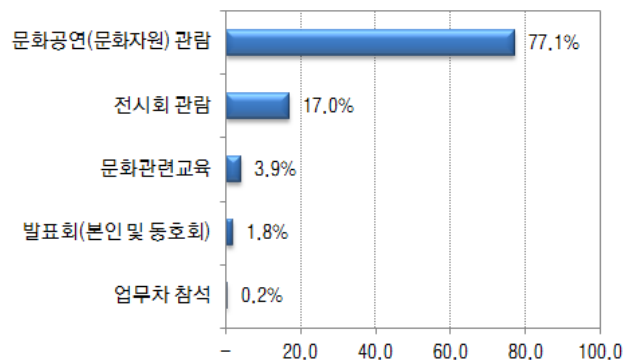
문화시설 이용의 경험이 소득집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거주지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동’의 주민이 ‘읍’, ‘면’의 주민보다 더 많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도시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읍, 면 지역보다 더 주민들의 문화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8〉 소득 및 거주지별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경험

구분		문화시설 이용경험		전체
		없다	있다	
소득	100만원이하	27.8	72.2	100.0
	101-200만원이하	31.6	68.4	100.0
	201-300만원이하	29.2	70.8	100.0
	301-400만원이하	22.3	77.7	100.0
	401-500만원이하	10.1	89.9	100.0
	501만원이상	9.1	90.9	100.0
	전체	25.4	74.6	100.0
거주지	동	14.3	85.7	100.0
	읍	37.5	62.5	100.0
	면	34.1	65.9	100.0
	전체	25.5	74.5	100.0

(2) 문화시설 이용목적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목적은 ‘문화공연(문화자원)관람’ (77.1%), ‘전시회관람’ (17.0%)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관련교육’ (3.9%), ‘발표회(본인 및 동호회)’ (1.8%), ‘업무로 참석’ (0.2%) 등 다른 용도의 활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특성상 공연, 전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시나 관람 목적이 아닌 창작과 교육의 장소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림 33] 문화시설 이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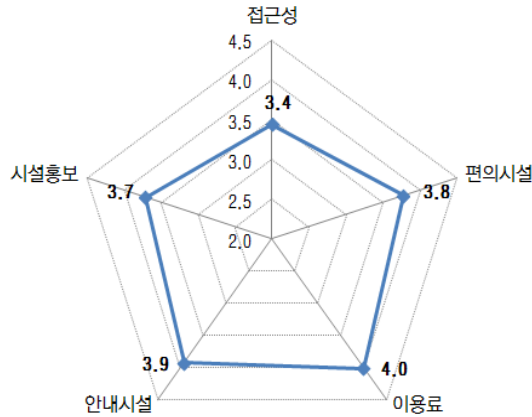
충남도의 시·군별로 문화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38>과 같이 전시나 관람 등의 목적 이외에 일정정도 다른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당진시’ (문화관련교육 20.8%), ‘예산군’ (문화관련교육 14.3%), ‘서산시’ (발표회 11.8%) 등이며, 여타 ‘서천군’ (문화관련교육 6.3%), ‘천안시’ (문화관련교육 5.1%), ‘공주시’ (발표회 4.8%) 등을 들 수 있다. 시군별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공연과 관람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창작과 체험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9〉 시군별 문화시설 이용목적

구분		문화시설 이용 목적					전체
		문화공연 (문화자원) 관람	전시회 관람	발표회 (본인및동 호회)	문화관련 교육	업무차 참석	
거주 시군	천안시	57.6	34.3	2.0	5.1	1.0	100.0
	공주시	87.3	4.8	4.8	3.2		100.0
	보령시	91.4	6.9	-	1.7	-	100.0
	아산시	90.7	9.3	-	-	-	100.0
	서산시	86.8	1.5	11.8	-	-	100.0
	논산시	53.8	43.1	1.5	1.5	-	100.0
	계룡시	42.9	54.8	2.4	-	-	100.0
	당진시	79.2	-	-	20.8	-	100.0
	금산군	75.7	21.6	-	-	2.7	100.0
	부여군	40.9	56.8	-	2.3	-	100.0
	서천군	87.5	6.3	-	6.3	-	100.0
	청양군	90.2	9.8	-	-	-	100.0
	홍성군	96.3	3.7	-	-	-	100.0
	예산군	85.7	-	-	14.3	-	100.0
	태안군	100.0	-	-	-	-	100.0
전체	77.1	17.0	1.8	3.9	0.2	100.0	

(3) 지역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그림 34]와 같이 대체로 양호하였고(전체평균 3.8점), 각 항목별로는 ‘입장료 및 편의시설 이용료’가 4.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안내판)’ (3.9점), ‘편의시설(주차장)’ (3.8점), ‘시설홍보’ (3.7점), ‘접근성(교통 등)’ (3.4점) 순이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광역도로서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다. 또한 문화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설홍보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34〕 지역문화시설 이용 여건별 만족도

지역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소득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접근성(교통 등)’, ‘입장료 및 편의시설 이용료’, 안내시설(안내판)’, ‘시설홍보’ 등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에, ‘편의시설(주차장)’은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이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분명 소득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가 예상되지만, 기타 접근성, 안내시설, 시설홍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소득집단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불분명하다. 이는 고소득 집단의 요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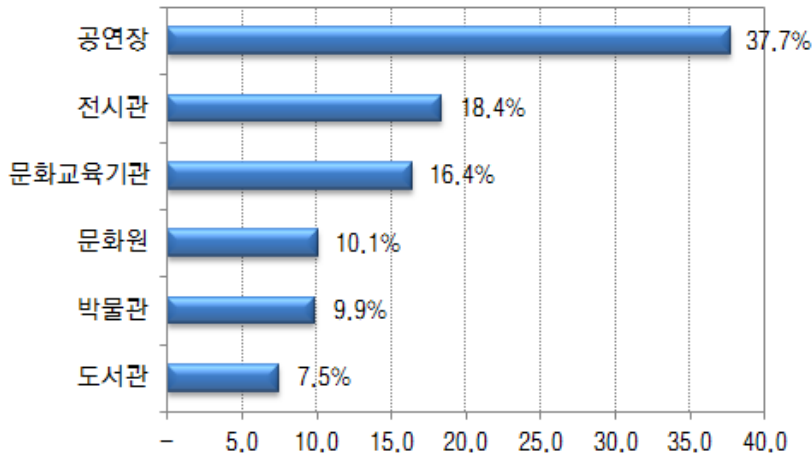
〈표 40〉 소득집단별 지역문화시설 이용여건 만족도 차이

구분	응답수 (N)	평균 (3.8)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값)
접근성	863	3.4	0.805	7.902**	0.00
편의시설	863	3.8	0.688	1.127	0.34
이용료	863	4.0	1.508	2.754*	0.02
안내시설	863	3.9	0.797	7.201**	0.00
시설홍보	863	3.7	0.872	5.518**	0.00

* = $p < 0.05$, ** = $p < 0.01$

(4)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충남도민이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가장 확충이 필요한 시설은 ‘공연장(문예회관 등)’ (37.7%)이었고, 다음으로 ‘전시관(미술품 등)’ (18.4%), ‘문화교육기관’ (16.4%), ‘문화원’ (10.1%), ‘박물관’ (9.9%), ‘도서관’ (7.5%) 순이었다. 다른 시설과 달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은 일정한 전문화나 특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특화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연장이나 전시시설은 전문적인 공연과 전시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림 35〕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충남도의 시군별 필요한 문화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연장’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등이었고, ‘전시관’은 논산시와 계룡시, 그리고 ‘박물관’은 당진시, ‘문화원’은 예산군, ‘문화교육기관’은 당진시 등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시군별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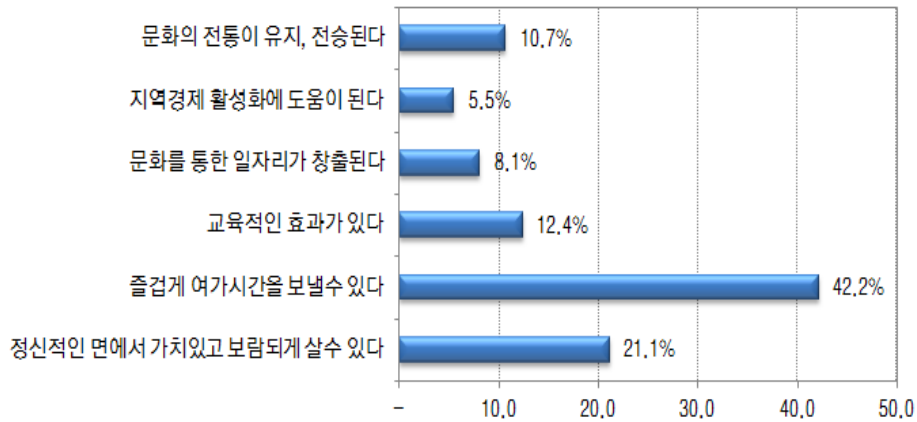
구분		부족한 문화시설						전체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문화원	도서관	교육기관	
거주 시군	천안시	38.6	22.8	11.9	9.9	3.0	13.9	100.0
	공주시	43.5	22.6	-	11.3	8.1	14.5	100.0
	보령시	61.0	11.9	1.7	10.2	1.7	13.6	100.0
	아산시	51.2	10.5	1.2	5.8	4.7	26.7	100.0
	서산시	27.5	8.7	15.9	10.1	20.3	17.4	100.0
	논산시	27.5	39.1	2.9	1.4	17.4	11.6	100.0
	계룡시	28.6	31.0	-	7.1	23.8	9.5	100.0
	당진시	9.7	4.2	36.1	18.1	-	31.9	100.0
	금산군	43.6	25.6	20.5	5.1	-	5.1	100.0
	부여군	32.6	26.1	6.5	-	19.6	15.2	100.0
	서천군	40.6	15.6	15.6	12.5	6.3	9.4	100.0
	청양군	57.7	11.5	1.9	11.5	-	17.3	100.0
	홍성군	52.7	18.2	1.8	9.1	1.8	16.4	100.0
	예산군	4.8	16.7	23.8	26.2	4.8	23.8	100.0
	태안군	45.5	18.2	12.1	21.2	3.0	-	100.0
	전체	37.7	18.4	9.9	10.1	7.5	16.4	100.0

3.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의식과 문화복지사업 참여 실태

1)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1) 문화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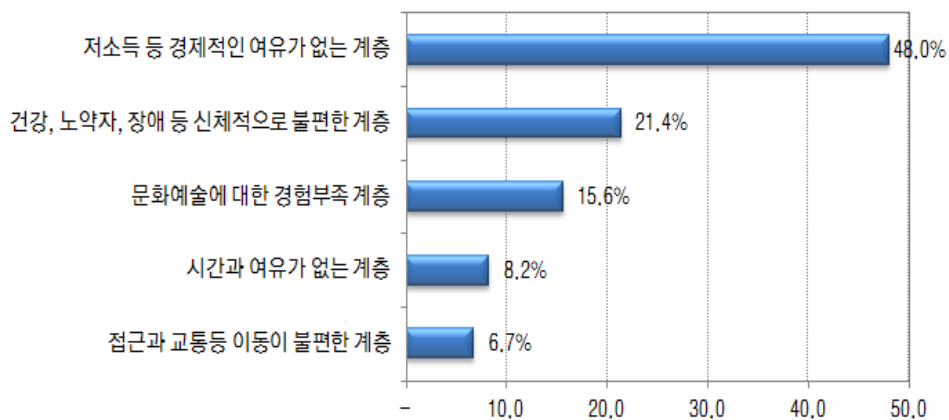
충남도민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42.2%) 생각하며, 다음으로 그것은 정신적인 면에서 가치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21.1%),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으며(12.4%), 문화의 전통이 유지, 전승되도록 해준다(10.7%)고 보고 있다. 반면에 문화의 일자리 창출(8.1%)과 경제적 활성화(5.5%)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그림 36)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

(2) 문화소외계층 범위

충남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저소득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 (48.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 노약자, 장애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계층’ (21.4%),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계층’ (15.6%),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계층’ (8.2%),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 (6.7%)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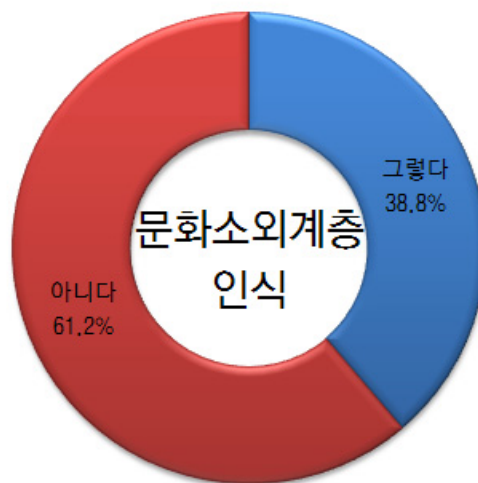


(그림 37)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이처럼 도민들은 문화소외 계층의 개념을 경제적 소외 계층의 범주와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소득과 시간의 결핍은 문화소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약자들은 문화적 체험과 향유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은 문화적 소외계층과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 본인의 문화소외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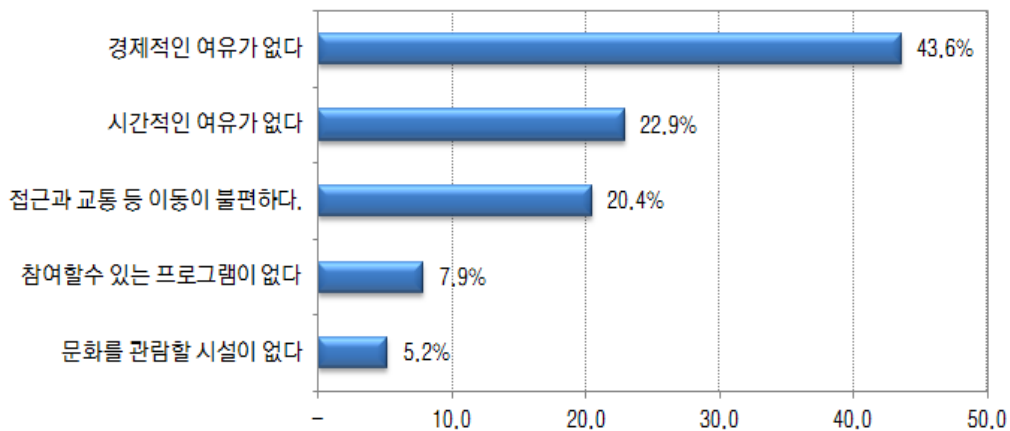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8]. 이는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은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견해라고 판단된다. 이는 또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8] 본인의 문화소외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

(4) 본인이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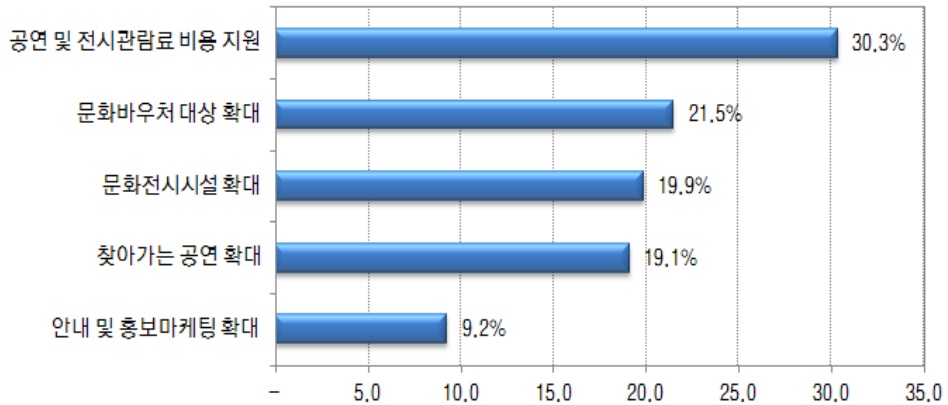
본인을 문화소외계층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그림 39]와 같이 43.6%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사실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2.9%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20.4%가 이동이 불편하다는 노약자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충남도민의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역으로 충남도민들이 아직도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측면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9] 본인이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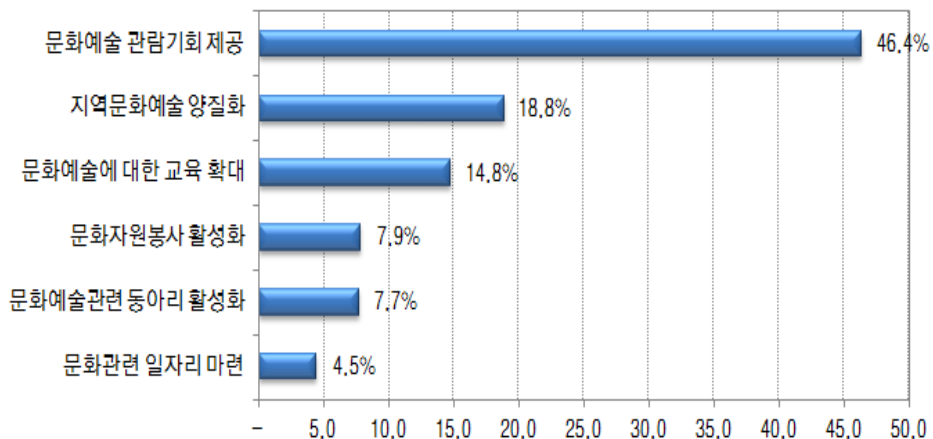
(5) 문화소외 해소방안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충남도민들은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공연 및 전시관람료 비용 지원’ (30.3%)을 들었고, 다음으로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21.5%), ‘문화 전시시설 확대’ (19.9%), ‘찾아가는 공연 확대’ (19.1%) 순으로 응답하였다. ‘안내 및 홍보 마케팅 확대’는 9.2%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소외 해소방안도 역시 문화향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0〕 문화소외 해소방안

충남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46.4%)을 언급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문화예술 양질화’ (18.8%),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확대’ (14.8%), ‘문화자원봉사활성화’ (7.9%),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성화’ (7.7%)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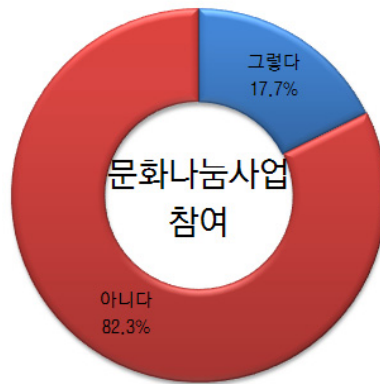


〔그림 41〕 문화소외계층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프로그램

2)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

(1)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에 대한 참여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17.7% 응답자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문화바우처 사업이 많은 충남도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2〕 문화나눔사업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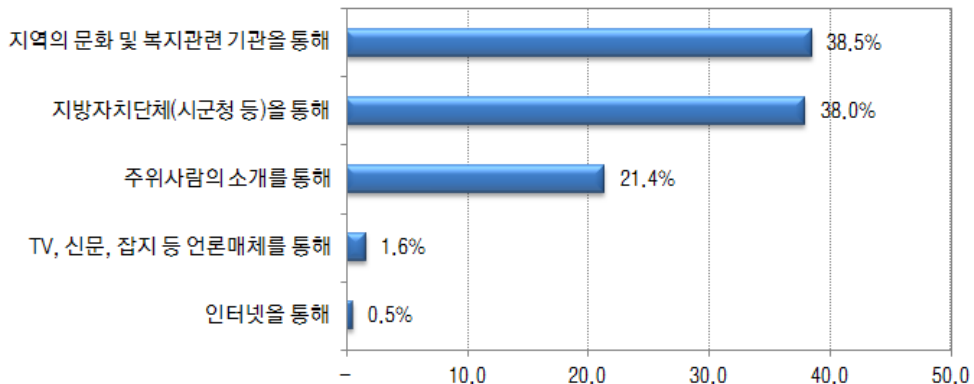
역시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의 혜택을 받은 집단의 지역별 차이보다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와 같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문화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반면에, 소득이 높은 집단은 훨씬 적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의 문화나눔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42〉 소득집단 및 거주지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구분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전체
		그렇다	아니다	
소득	100만원이하	63.1	36.9	100.0
	101-200만원이하	16.2	83.8	100.0
	201-300만원이하	9.5	90.5	100.0
	301-400만원이하	4.1	95.9	100.0
	401-500만원이하	0.9	99.1	100.0
	501만원이상	4.5	95.5	100.0
	전체	17.7	82.3	100.0
거주지	동	17.2	82.8	100.0
	읍	19.2	80.8	100.0
	면	16.9	83.1	100.0
	전체	17.8	82.2	100.0

(2) 문화나눔사업 참여 경로 및 참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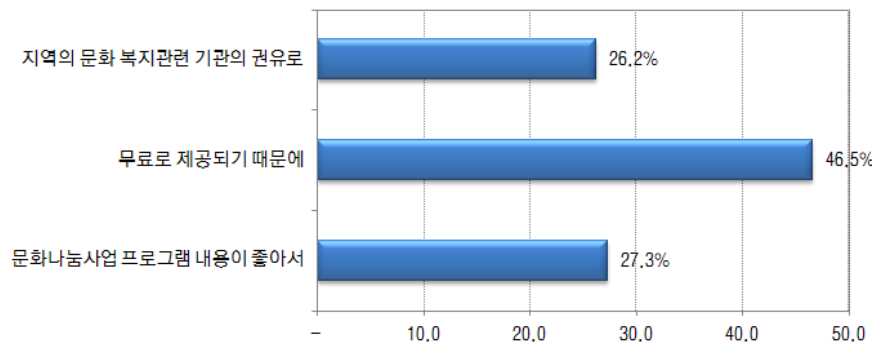
충남도민들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가장 많은 경우는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38.5%), ‘지방자치단체(시군청 등)를 통해’ (38.0%) 서였고, 다음으로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 (21.4%)서 사업에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문화나눔사업 참여 경로

또한 문화나눔사업은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1.6%)거나 ‘인터넷을 통해’ (0.5%)서는 극히 미미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자체이고, 사업의 추진 경로도 공적인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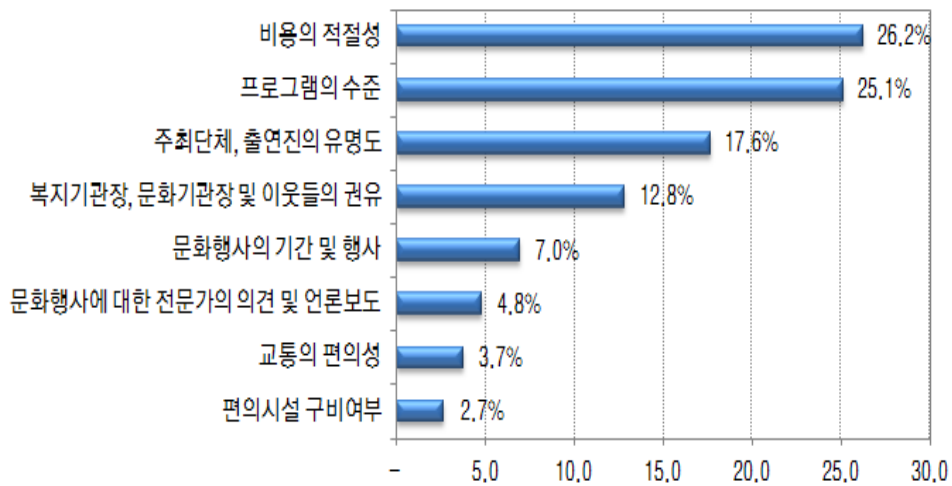
충남도민들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일차적인 동기는 무엇보다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 (46.5%)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이 좋아서’ (27.3%),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6.2%)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문화나눔사업 참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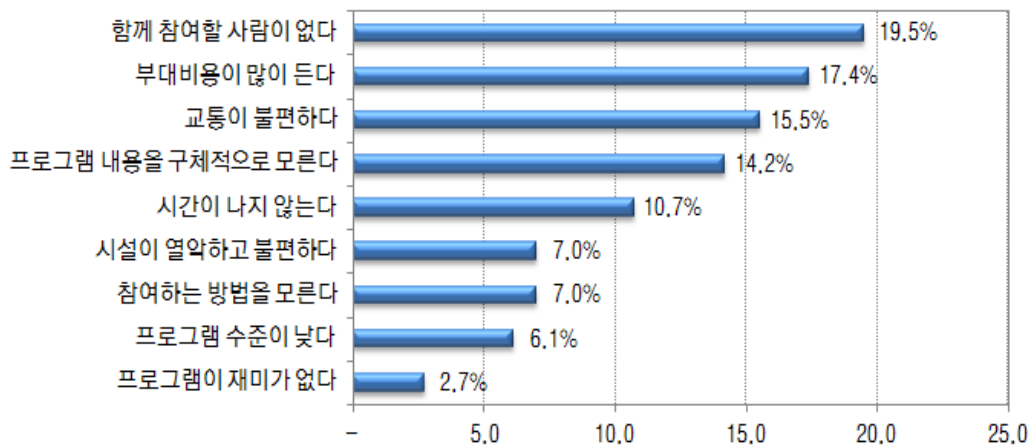
(3)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과 참여시 어려운 점

충남도민들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일차적으로 ‘비용의 적절성’ (26.2%), ‘프로그램의 수준’ (25.1%)이었으며, 다음으로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17.6%),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이웃의 권유’ (12.8%),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7.0%) 순이었고, 기타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보도’ (4.8%), ‘교통의 편의성’ (3.7%), ‘편의시설 구비여부’ (2.7%)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말해준다.



〔그림 45〕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

충남도민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으로는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19.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이 불편하다’ (15.5%),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14.2%), ‘시간이 나지 않는다’ (10.7%),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 (7.0%),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 (7.0%),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6.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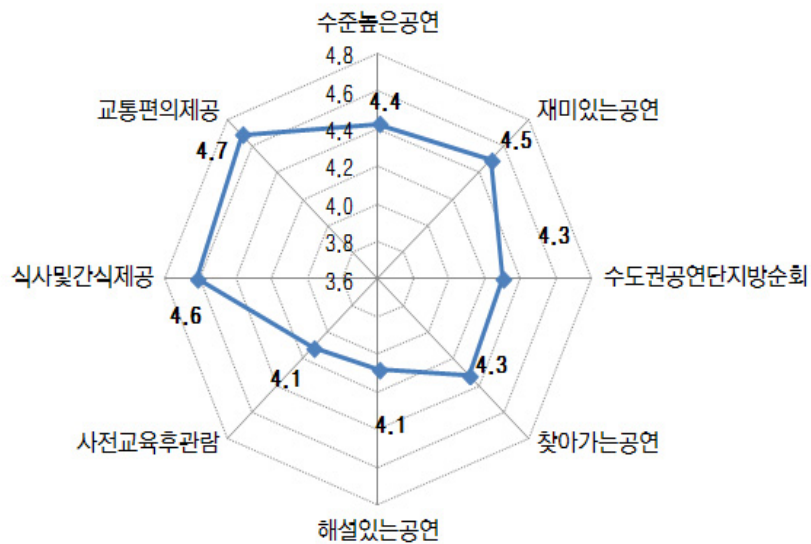


〔그림 46〕 문화나눔사업 참여시 어려운점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참여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 이외에도 정보의 문제나 함께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준다.

(4) 문화나눔사업 지원분야별 필요성

충남도민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교통편의 제공’이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4.6점), ‘재미있는 공연’ (4.5점), ‘수준 높은 공연’ (4.4점) 순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임을 말해준다.



[그림 47] 문화나눔사업의 지원분야별 필요성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43>과 같이 ‘공연의 수준’, ‘수도권공연단 지방순회’, ‘찾아가는 공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통편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공연의 재미’, ‘공연의 해설’, ‘사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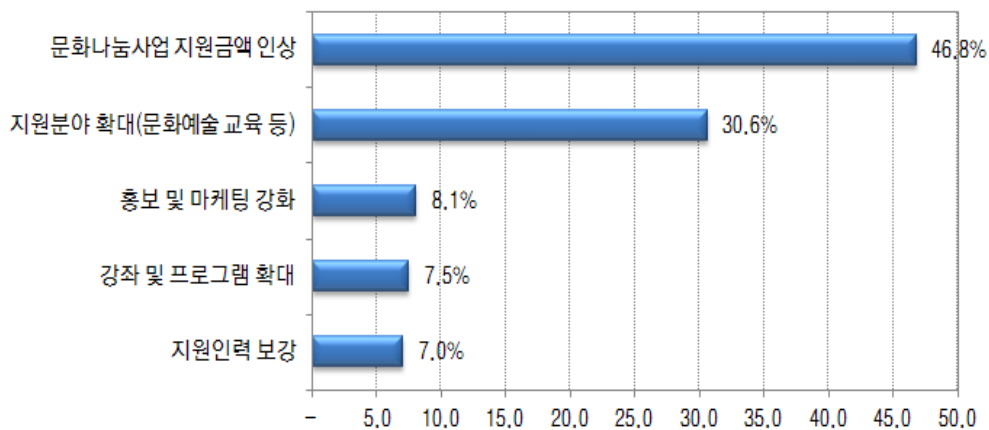
〈표 43〉 문화나눔사업 지원분야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 분석

구분	응답수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값
수준높은 공연제공	187	4.4	0.612	.791	0.56
재미있는 공연제공	187	4.5	0.617	5.338**	0.00
수도권 공연단지방 순회	187	4.3	0.661	.475	0.79
찾아가는 공연	187	4.3	0.706	1.577	0.17
해설있는 공연	187	4.1	0.885	2.440*	0.04
사전교육후 관람	187	4.1	0.980	2.352*	0.04
식사 및 간식제공	187	4.6	0.673	7.802**	0.00
교통편의 제공	187	4.7	0.597	13.047**	0.00

* = $p<0.05$, ** = $p<0.01$

(5)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충남도민들은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나눔사업의 지원 금액 인상’ (46.8%)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교육 등)’ (30.6%), ‘홍보 마케팅 강화’ (8.1%),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7.5%), ‘지원인력 보강’ (7.0%) 순이었다.



〔그림 48〕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한 소득집단별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표 44>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지원금액 인상’ 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지원분야 확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거주지별로는 ‘읍’, ‘면’의 경우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동’의 경우는 ‘지원금액 확대’를 더 많이 지목하고 있다.

<표 44> 소득 및 거주지별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구 분		문화나눔사업 개선 및 보완점					전체
		문화나눔사업 지원금액 인상	지원분야 확대(문화 예술교육 등)	홍보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소득	100만원이하	56.6	26.5	6.2	4.4	6.2	100.0
	101-200만원이하	35.3	32.4	8.8	8.8	14.7	100.0
	201-300만원이하	29.6	44.4	11.1	11.1	3.7	100.0
	301-400만원이하	10.0	40.0	20.0	20.0	10.0	100.0
	401-500만원이하	-	-	-	-	-	-
	501만원이상	-	-	-	-	-	-
	전체	46.8	30.6	8.1	7.0	7.5	100.0
거주 지	동	53.4	27.3	8.0	6.8	4.5	100.0
	읍	39.7	32.4	8.8	8.8	10.3	100.0
	면	43.3	36.7	6.7	3.3	10.0	100.0
	전체	46.8	30.6	8.1	7.0	7.5	100.0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에 대한 충남도의 시군별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문화나눔사업의 지원금액 인상’이나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자는 특히 ‘당진시’(66.7%), ‘천안시’(58.3%), ‘아산시’(57.1%), ‘보령시’(55.6%), ‘논산시’(54.2%) 등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태안군’(60.0%), ‘천안시’(41.7%)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표 45〉 시군별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구분		문화나눔사업 개선 및 보완점					전체
		문화나눔사업 지원금액인상	지원분야확 대(문화예술 교육 등)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강화 및 프로그램 확대	
거주 시군	천안시	58.3	41.7	-	-	-	100.0
	공주시	46.2	23.1	7.7	23.1	-	100.0
	보령시	55.6	11.1	11.1	-	22.2	100.0
	아산시	57.1	21.4	14.3	-	7.1	100.0
	서산시	50.0	25.0	-	25.0	-	100.0
	논산시	54.2	33.3	8.3	4.2	-	100.0
	계룡시	45.5	22.7	13.6	-	18.2	100.0
	당진시	66.7	33.3	-	-	-	100.0
	금산군	14.3	71.4	-	14.3	-	100.0
	부여군	42.1	36.8	5.3	15.8	-	100.0
	서천군	25.0	33.3	25.0	8.3	8.3	100.0
	청양군	50.0	25.0	-	-	25.0	100.0
	홍성군	44.4	22.2	11.1	-	22.2	100.0
	예산군	50.0	25.0	-	-	25.0	100.0
	태안군	-	60.0	20.0	20.0	-	100.0
	전체	46.8	30.6	8.1	7.0	7.5	100.0

4. 종합분석과 과제도출

1) 충남도민의 문화활동 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1)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분야

충남도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은 문화생활에 대한 충남도민의 관심은 높은 편이나 저소득 주민은 물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고, 지역별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동’ (55.4%), ‘읍’ (55.9%) 지역보다 ‘면’ (37.0%)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 관심분야는 영화관람이나 대중공연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활동에 더 관심이 높았다.

〈표 46〉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분야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은 ‘매우많다’와 ‘많다’의 응답이 52.6% 차지 문화생활에 대한 충남도민의 관심은 높은 편임 저소득 주민은 물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음을 의미 지역별로는 ‘동’(55.4%), ‘읍’(55.9%) 등보다 ‘면’의 지역은 37.0%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충남도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분야별 관심도는 ‘영화관람’이 31.0%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장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영화관람이나 대중공연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활동에 더 관심

(2)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충남도민의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은 충남도민 5명 중 1명 정도의 도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의 경우는 87.8%가 참여하고, ‘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3%를 차지하여 앞으로 문화복지 관련 정책이 지역적 변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단위를 읍·면, 동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위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표 47〉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활동의 참여 및 관람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민 5명 중 1명 정도의 도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도가 높음(401만원 이상 소득집단의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10명 중 9명이 문화활동을 참여 또는 관람) •‘동’ 지역의 경우는 87.8%가 참여, ‘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3%를 차지 •앞으로 문화복지 관련 정책이 지역적 변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단위를 읍, 면, 동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위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함을 의미

(3)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시간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관람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횟수는 ‘영화관람’이 2.8회이었고, 충남도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문화예술도 주로 대중문화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문화예술 활동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55.5%가 30분 미만이고, 지역적으로 ‘동’의 주민들은 ‘읍’이나 ‘면’ 주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있었다.

〈표 48〉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시간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관람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횟수’ ‘영화관람’(2.8회)이었고, 다음으로 ‘스포츠키키관람’(0.6회), ‘대중공연’(0.6회), ‘전통예술’(0.5회) 순 •충남도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문화예술도 주로 대중문화 분야에 비중을 둠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문화예술 활동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55.5%가 30분 미만, 하루에 평균 1-3시간을 문화예술 활동에 소비한 사람은 단지 18.7%를 차지하여 문화활동의 생활화 필요 •지역적으로 ‘동’의 주민들은 ‘읍’이나 ‘면’주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

(4) 문화예술활동 및 관람지역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지역은 대부분 충남도내(86.7%)에 제한되어 지역과 주민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이 높을수록 충남도 지역을 벗어나 대전광역시나 수도권에까지 진출하고 있어 지역적 이동과 관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동' 보다는 '읍' 과 '면' 의 주민이 약간 더 많이 외지로 진출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향유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며, 시군별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등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등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표 49〉 문화예술활동 및 관람지역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지역은 대부분 충남도내(86.7%)에 제한 •지역과 주민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 지역을 벗어나 대전광역시나 수도권에까지 진출하고 있음 •이는 지역적 이동과 관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 •'동'보다는 '읍'과 '면'의 주민이 약간 더 많이 외지로 진출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향유 •시군별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등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등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더 많이 참여

(5)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 경로와 동반자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경로와 동반자는 '주변사람(동호인 포함)' 이 가장 높은 41.8%이고, 다음으로 '인터넷' (21.9%), 'TV, 라디오' (21.5%)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민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3.8%가 '친구와 함께' 가고 있으며, 42.0%가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친구나 가족의 참여를 고려하여 기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0〉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 경로와 동반자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행사 관련정보 획득경로와 동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사람(동호인 포함)'이 가장 높은 41.8%이고, 다음으로 '인터넷'(21.9%), 'TV, 라디오'(21.5%) 등의 순임 •충남도민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3.8%가 '친구와 함께' 가고 있으며, 42.0%가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친구나 가족의 참여를 고려하여 기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6)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소요비용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한 달간 평균비용을 보면 57.5%가 ‘1만원 이하’ 이고, 32.3%가 ‘1-3만원’ 을 소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지출정도가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이 크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표 51〉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소요비용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요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간 평균비용을 보면 57.5%가 ‘1만원 이하’이고, 32.3%가 ‘1-3만원’을 소비 •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지출정도가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석 •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이 크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반증해주고 있음

(7) 문화예술행사 참여 여건의 만족도

충남도민들의 문화행사 참여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은 3.8점(5점 만점)이고, 특히 ‘행사의 질’ (4.0점)이나 ‘관람시설’ (4.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관람비용’ (3.9점), ‘편의시설’ (3.8점), ‘행사홍보’ (3.7점), 접근성(3.5점)순으로 만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행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개선과 더불어, 행사관련 정보가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관람비용의 경우는 문화예술 행사의 참여집단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표 52〉 문화예술행사 참여 여건의 만족도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건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평균은 3.8점(5점 만점)이고, 특히 ‘행사의 질’(4.0점)이나 ‘관람시설’(4.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관람비용’(3.9점), ‘편의시설’(3.8점), ‘행사홍보’(3.7점), 접근성(3.5점)순으로 만족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행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개선과 더불어, 행사관련 정보가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관람비용의 경우는 문화예술 행사의 참여집단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

(8)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선 고려요소

충남도민들의 문화행사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4.8%)와 ‘비용이 많이 들어서’(17.0%),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2.4%), ‘관련정보가 부족해서’(11.9%) 순이었다. 따라서 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는 아직도 시간과 비용 등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문화행사 관람의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의 질’(32.6%)이 가장 높았고, ‘소요비용(관람비용)’(29.4%), ‘문화행사 관련 정보’(15.9%), ‘행사관람시간’(13.0%) 순이었다. 이는 문화예술행사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람비용을 고려한 행사기획, 그리고 소득집단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기획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53〉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선 고려요소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선 고려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4.8%)와 ‘비용이 많이 들어서’(17.0%),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2.4%), ‘관련정보가 부족해서’(11.9%) 순임 •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는 아직도 시간과 비용 등의 요인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의 질’(32.6%)이 가장 높았고, ‘소요비용(관람비용)’(29.4%), ‘문화행사 관련 정보’(15.9%), ‘행사관람시간’(13.0%) 순임 •문화예술행사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람비용을 고려한 행사기획, 그리고 소득 집단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기획이 필요

2)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1)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 여부와 동호회 활동 참여여부 및 부담요인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창작 활동 참여여부는 ‘창작활동에 참여 여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92.6%로 이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비율은 10.2%로 10명 중 1명이 문화예술 동호회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90%가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문화예술 향유 방식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 동호회에 참여 부담요인으로 42.7%가 ‘소요비용’을 들었고, ‘참여 시간’(19.0%), ‘동호회 관련정보 부족’(15.9%), ‘접근성’(12.7%), ‘참가동료’(9.7%) 순이었다.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과 시간이며, 동호회활동 참여비용은 소득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로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4〉 문화예술창작활동과 동호회 참여여부 및 부담요인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동호회 참여여부 및 부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창작활동에 참여 여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92.6%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비율은 10.2%로 10명 중 1명이 문화예술 동호회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 90%가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문화예술 향유 방식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음 동호회에 참여 부담요인으로 42.7%가 ‘소요비용’을 들었고, ‘참여시간’(19.0%), ‘동호회 관련정보 부족’(15.9%), ‘접근성’(12.7%), ‘참가동료’(9.7%) 순임 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과 시간이며, 이는 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로의 부담으로 작용 동호회활동 참여비용은 소득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득집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함

(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충남도민들의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관공서의 활동지원(예산지원 등)’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4.2점), ‘지식습득 기회(교육 기능)’(4.1점), ‘전문지도자나 상담자(동호회 리더)’(4.0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이용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3.9점), ‘모임(활동, 연습)에 필요한 상시공간’(3.9점), ‘동호회간 정보제공(교류활동)’(3.9점) 등과 같은 모임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네트워크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5〉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시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의 활동지원(예산지원 등)’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4.2점), ‘지식습득 기회(교육기능)’(4.1점), ‘전문지도자나 상담자(동호회 리더)’(4.0점) 등의 순임 • 또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이용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3.9점), ‘모임(활동, 연습)에 필요한 상시공간’(3.9점), ‘동호회간 정보제공(교류활동)’(3.9점) 등과 같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네트워크도 중요한 요소임 •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성향 종합분석과 시사점

(1) 문화시설 이용경험과 이용목적

충남도민이 지난 1년간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 74.6%가 ‘있다’ 라고 응답하여 충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문화시설을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의 주민이 ‘읍’, ‘면’의 주민보다 더 많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도시 지역과 달리 읍, 면의 경우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제공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시설의 확충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시설 이용목적은 ‘문화공연(문화자원)관람’ (77.1%), ‘전시회관람’ (17.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전시나 관람 목적이 아닌 창작과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시군별로 문화시설의 활용 실태로 전시나 관람 등의 목적 이외 활용은 ‘당진시’ (문화관련 교육 20.8%), ‘예산군’ (문화관련교육 14.3%), ‘서산시’ (발표회 11.8%) 등이었다. 그러므로 공연과 관람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창작과 체험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56〉 문화시설 이용경험과 이용목적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시설 이용경험과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민이 지난 1년간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 74.6%가 '있다'라고 응답, 충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문화시설을 이용 •'동'의 주민이 '읍', '면'의 주민보다 더 많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도시 지역과 달리 읍, 면의 경우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제공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시설의 확충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문화시설 이용목적은 '문화공연(문화자원)관람'(77.1%), '전시회 관람'(17.0%)이 대부분을 차지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전시나 관람 목적이 아닌 창작과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이 필요 •시군별로 문화시설의 활용 실태로 전시나 관람 등의 목적 이외활용은 당진시'(문화관련 교육 20.8%), '예산군'(문화관련교육 14.3%), '서산시'(발표회 11.8%) 등임 •공연과 관람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문화활동을 진작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창작과 체험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

(2) 지역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충남도민들의 지역문화시설 이용만족도는 전체 만족도 평균 3.8점(5점 만점)이고, '입장료 및 편의시설 이용료' (4.0점), '안내시설(안내판)' (3.9점), '편의시설(주차장)' (3.8점), '시설홍보' (3.7점), '접근성(교통 등)' (3.4점) 순이었다.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고, 문화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시설홍보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시설 이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분명 소득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시설 이용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표 57〉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시설 이용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만족도 평균 3.8점(5점 만점)이고, '입장료 및 편의시설 이용료'가 4.0점, '안내시설(안내판)'(3.9점), '편의시설(주차장)'(3.8점), '시설홍보'(3.7점), '접근성(교통 등)'(3.4점) 순임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고, 문화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시설홍보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분명 소득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음

(3)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충남도민들의 지역문화시설 중 부족한 시설은 ‘공연장(문예회관 등)’ (37.7%), ‘전시관(미술품 등)’ (18.4%), ‘문화교육기관’ (16.4%), ‘문화원’ (10.1%), ‘박물관’ (9.9%), ‘도서관’ (7.5%) 순이었다. 문화시설은 일정한 전문화나 특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특화된 시설들을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연장이나 전시시설은 전문적인 공연과 전시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시군별로는 ‘공연장’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나타나는 요인도 있어 기존 문예회관 등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58〉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문화시설은 ‘공연장(문예회관 등)’(37.7%), ‘전시관(미술품 등)’(18.4%), ‘문화교육기관’(16.4%), ‘문화원’(10.1%), ‘박물관’(9.9%), ‘도서관’(7.5%) 순임 • 문화시설은 일정한 전문화나 특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특화된 시설들을 확충이 필요 • 특히, 공연장이나 전시시설은 전문적인 공연과 전시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공간을 제공해야함 • 시군별로 ‘공연장’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보령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등임

4)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종합분석과 시사점

(1)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소외계층 범위

충남도민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42.7%) 하는 생각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 (48.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 노약자, 장애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계층’ (21.4%),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계층’ (15.6%),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계층’ (8.2%),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 (6.7%) 등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문화소의 계층의 개념을 경제적 소외 계층의 범주와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소득과 시간의 결핍은 문화소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약자들은 문화적 체험과 향유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일정한 제약되는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59〉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소외계층 범위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소외계층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민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고(42.7%) 생각이 1위 •충남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저소득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48.0%)으로 규정 •다음으로 '건강, 노약자, 장애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계층'(21.4%),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계층'(15.6%),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계층'(8.2%),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6.7%) 등의 순으로 인식 •문화소외 계층의 개념을 경제적 소외 계층의 범주와 유사하게 보는 경향 •소득과 시간의 결핍은 문화소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약자들은 문화적 체험과 향유의 기회를 활용하는데 일정한 제약되는 문화소외계층임

(2) 본인의 문화소외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충남도민들이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과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소외계층으로 보는 이유는 응답자의 43.6%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22.9%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20.4%가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동과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충남도민의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0〉 본인의 문화소외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본인의 문화소외 계층 여부에 대한 인식과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과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 • 문화소외계층으로 보는 이유는 43.6%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22.9%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20.4%가 이동이 불편하다는 노약자의 특성을 지적함 • 충남도민의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3) 문화소외 해소방안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충남도민들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비용 지원’ (30.3%),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21.5%) , ‘문화 전시시설 확대’ (19.9%), ‘찾아가는 공연 확대’ (19.1%)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46.4%), ‘지역 문화예술 양질화’ (18.8%),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확대’ (14.8%), ‘문화자원봉사활성화’ (7.9%),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성화’ (7.7%) 순이었다. 그러므로, 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61〉 문화소외 해소방안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소외 해소방안 및 지원이 필요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비용 지원’(30.3%),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21.5%), ‘문화 전시시설 확대’(19.9%), ‘찾아가는 공연 확대’(19.1%) 순으로 응답 • 따라서 문화향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 •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46.4%), ‘지역 문화예술 양질화’(18.8%),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확대’(14.8%), ‘문화자원봉사활성화’(7.9%),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성화’(7.7%) 순임 • 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

5) 충남도민의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 종합분석과 시사점

(1)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에 대한 참여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17.7% 응답자가 참여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문화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반면에, 소득이 높은 집단은 훨씬 적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소득계층별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62〉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과 경로 및 참여동기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나눔사업 참여경험과 경로 및 참여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에 대한 참여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17.7% 응답자가 참여 경험 •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문화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반면에, 소득이 높은 집단은 훨씬 적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38.5%),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를 통해’(38.0%),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21.4%) 순임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동기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46.5%),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이 좋아서’(27.3%),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26.2%) 순임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38.5%),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를 통해’ (38.0%),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 (21.4%) 순이었다.

그리고 문화나눔사업에 참여동기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 (46.5%),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이 좋아서’ (27.3%),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6.2%) 순으로 나타났다.

(2)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과 참여시 어려운 점

충남도민이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비용의 적절성’ (26.2%), ‘프로그램의 수준’ (25.1%),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17.6%),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이웃의 권유’ (12.8%),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7.0%) 순이었다. 이는 문화나눔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경험의 어려움은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19.5%), ‘교통이 불편하다’ (15.5%),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14.2%), ‘시간이 나지 않는다’ (10.7%),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 (7.0%),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 (7.0%),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6.1%) 순이었다. 이 또한,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 이외에도 정보의 문제나 함께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표 63〉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과 참여시 어려운점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나눔사업 참여 선택기준과 참여시 어려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비용의 적절성’(26.2%), ‘프로그램의 수준’(25.1%),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17.6%),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이웃의 권유’(12.8%),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7.0%) 순임 • 문화나눔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문화나눔사업에 참여경험의 어려움은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19.5%), ‘교통이 불편하다’(15.5%),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14.2%), ‘시간이 나지 않는다’(10.7%),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7.0%),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7.0%),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6.1%) 순임 •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 이외에도 정보의 문제나 함께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줌

(3) 문화나눔사업 지원분야별 필요성

충남도민들의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교통편의 제공’이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4.6점), ‘재미있는 공연’ (4.5점), ‘수준 높은 공연’ (4.4점) 순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임을 말해주고 있다.

소득수준별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분석도 ‘교통편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공연의 재미’, ‘공연의 해설’, ‘사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

〈표 64〉 문화나눔사업 지원분야별 필요성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나눔 사업 지원분야 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교통편의 제공’이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4.6점), ‘재미있는 공연’(4.5점), ‘수준 높은 공연’(4.4점) 순임 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임을 말해주고 있음 소득수준별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교통편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공연의 재미’, ‘공연의 해설’, ‘사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4)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충남도민들의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에 대한 응답은 ‘문화나눔사업의 지원금액 인상’ (46.8%),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교육 등)’ (30.8%), ‘홍보 마케팅 강화’ (8.1%),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7.5%), ‘지원인력 보강’ (7.0%) 순이었다. 그리고 소득집단별 차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지원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지원분야의 확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등을 강조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읍·면’의 경우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동’의 경우는 ‘지원금액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표 65〉 문화나눔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구 분	종합분석 및 시사점
문화나눔 사업의 개선 및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은 ‘문화나눔사업의 지원금액 인상’(46.8%),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교육 등)’(30.8%), ‘홍보 마케팅 강화’(8.1%),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7.5%), ‘지원인력 보강’(7.0%) 순임 • 소득집단별 차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지원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지원분야의 확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등을 강조 • 거주지별로는 ‘읍·면’의 경우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동’의 경우는 ‘지원금액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함

6) 정책과제의 도출

(1) 충남 도민의 문화활동 성향분석

① 문화예술 활동 성향

충남도민의 5명 중 1명 정도의 도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전체적인 문화향유를 위한 영화관람이나 대중공연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 주민은 물질,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 문화생활에 관심이 없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도가 높아 소득 이를 고려한 문화활동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활동의 관심도 지역별로는 ‘동’ (55.4%), ‘읍’ (55.9%) 등 보다 ‘면’의 지역은 37%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이고, 실제 문화활동도 동’ 지역의 경우는 87.8%가 참여하고, ‘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3%를 차지하여 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단위를 읍·면, 동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위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함을 의미하고 있다.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지역은 대부분 충남도내(86.7%)에 제한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 지역을 벗어나 대전광역시나 수도권에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시군별로는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등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등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의 문화예술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는 아직도 시간과 비용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예술활동시 우선 고려요소로는 문화예술행사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람비용을 고려한 행사기획, 그리고 소득집단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동호회 활동 성향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직접적인 창작활동에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과 시간이며, 이는 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호회활동 참여비용은 소득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뚜렷한 차이 보이고 있어 소득집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아가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문화시설 이용 성향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은 ‘동’의 주민이 ‘읍’, ‘면’의 주민보다 더 많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도시 지역과 달리 읍, 면의 경우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시설의 확충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시설 이용만족도에서도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고, 문화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시설홍보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분명 소득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문화시설 이용에도 소득계층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분석

충남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저소득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 (48.0%)으로 응답하고, 다음으로 ‘건강, 노약자, 장애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계층’ (21.4%),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계층’ (15.6%),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계층’ (8.2%),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 (6.7%)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제, 사회, 지리적 측면에서 소외 계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여 도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과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남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공연 및 전시관람료 비용 지원' (30.3%),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21.5%), '문화 전시시설 확대' (19.9%), '찾아가는 공연 확대' (19.1%) 순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 (46.4%), '지역 문화예술 양질화' (18.8%) 등의 순으로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충남도민의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분석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에 대한 참여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17.7% 응답자가 참여 경험하였다. 참여경로는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38.5%),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를 통해' (38.0%),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 (21.4%) 순이고, 참여동기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 (46.5%),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이 좋아서' (27.3%),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2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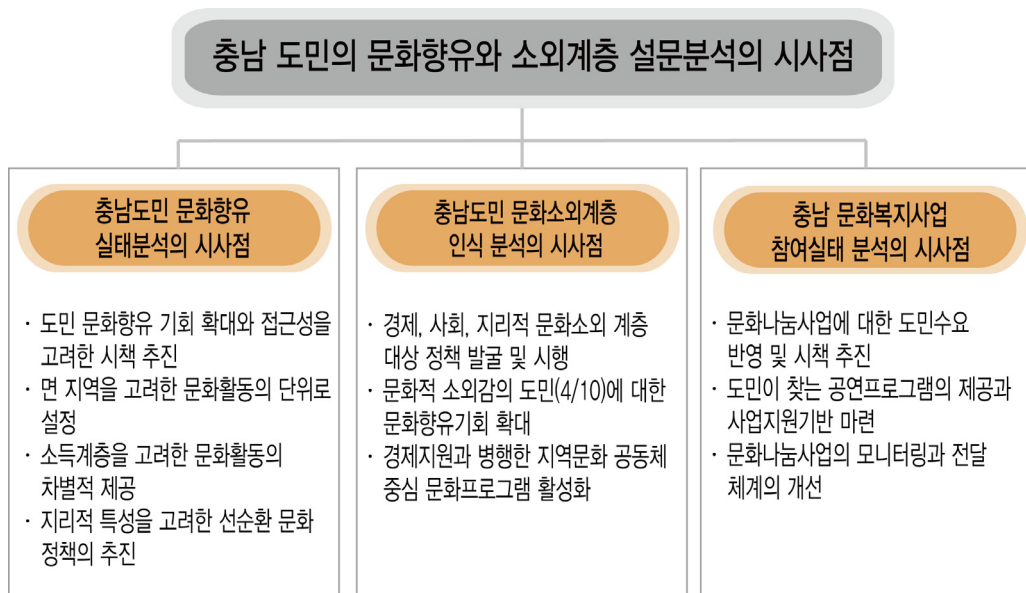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비용의 적절성' (26.2%), '프로그램의 수준' (25.1%)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에 참여경험의 어려움은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19.5%), '교통이 불편하다' (15.5%),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14.2%) 등의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 이외에도 정보의 문제나 함께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교통편의 제공'이 4.7점으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4.6점), ‘재미있는 공연’ (4.5점), ‘수준높은 공연’ (4.4점) 순인데, 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임을 말해주고 있다. 소득수준별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교통편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공연의 재미’, ‘공연의 해설’, ‘사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은 ‘문화나눔사업의 지원금액 인상’ (46.8%),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교육 등)’ (30.8%) 등의 순인데, 소득집단별 차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지원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지원분야의 확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등을 강조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읍·면’의 경우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동’의 경우는 ‘지원금액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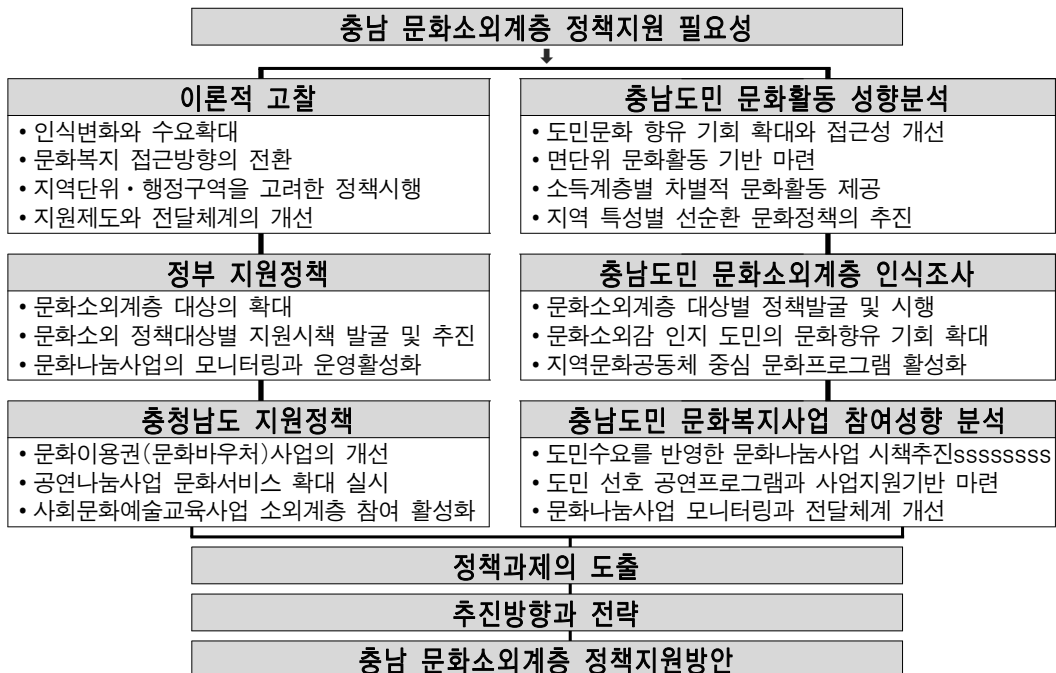
〔그림 49〕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 설문분석의 시사점

제4장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 지원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

본 연구에서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 틀은 다음의 [그림 5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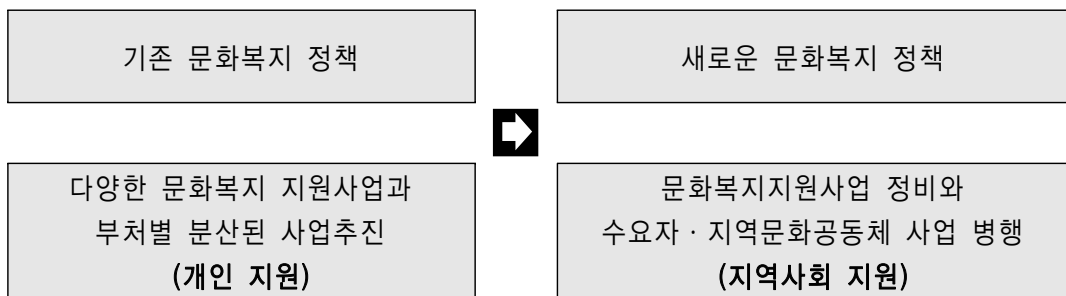


[그림 50] 접근 틀

앞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 지원정책과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 성향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과 참여성향을 분석과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통해 정리된 충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I 그룹은 기존의 다양한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의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함
- II 그룹은 일부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대상이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과 사회·지리적 소외계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회를 확대함
- III 그룹은 문화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아니지만 사회·지리·특수한 여건상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하는 지역문화공동체를 구축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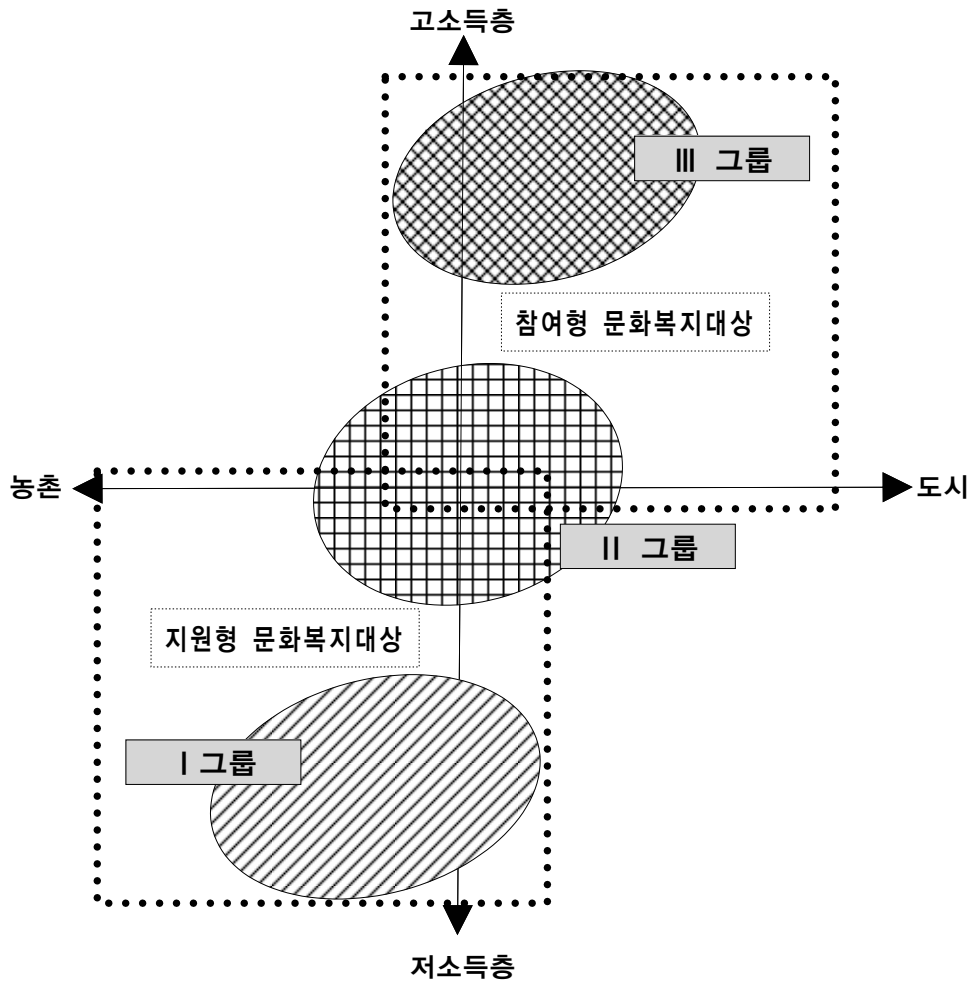
[문화복지 정책의 접근 개념]



[문화소외계층 그룹간 정책기본방향]

1그룹	지원정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기존 문화복지지원사업 정비
2그룹	수요자형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복지사업 수혜 대상자 확대
3그룹	지역문화공동시스템 구축	사회·지리·특수여건 대상자 시책

(그림 51) 문화복지 정책의 접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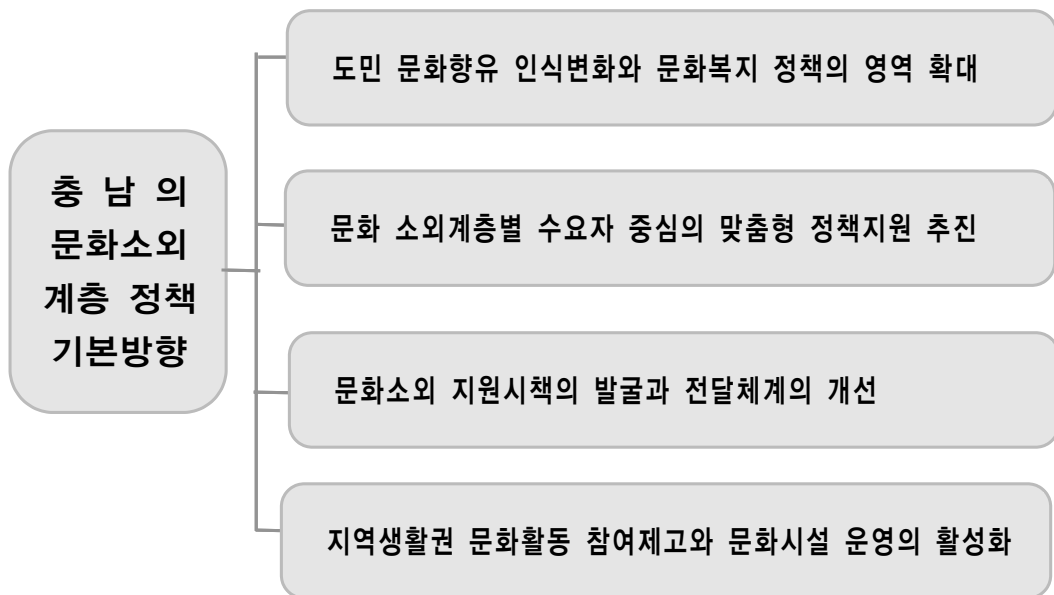
구분	대 상	정책추진 기본방향
I 그룹 (지원형)	농촌저소득 · 도시저소득층 지리적 소외(농산어촌 등) 취약계층(장애,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정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II 그룹 (지원+참여형)	도시 · 농촌중산층(차상위), 청소년 이주노동자 · 새터민, 다문화, 군인 등 사회소외계층(재활원, 보육원 등)	수요자형 문화향유 기회 확대
III 그룹 (참여형)	도시고소득계층(비향유자) 농촌고소득계층(비향유자) 도시산업체근로자(시간 · 경제제약)	지역문화공동체 시스템 구축

[그림 52]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대상 구분

2) 기본방향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을 위해 나아 가야할 기본방향은 기존에 다양한 문화 복지사업과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추진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사업의 정비와 수요자에 맞는 시 책과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의 병행을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1) 도민 문화향유 인식변화와 문화복지 정책의 영역 확대
- (2) 문화 소외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지원 추진
- (3) 문화소외 지원시책의 발굴과 전달체계의 개선
- (4) 지역생활권 문화활동 참여제고와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



[그림 5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기본방향

2.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 정책목표

다함께 문화를 누리는 행복한 충청남도

도민과 소외계층이 다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충청남도

2) 추진전략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문화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지역 문화시설·공간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 등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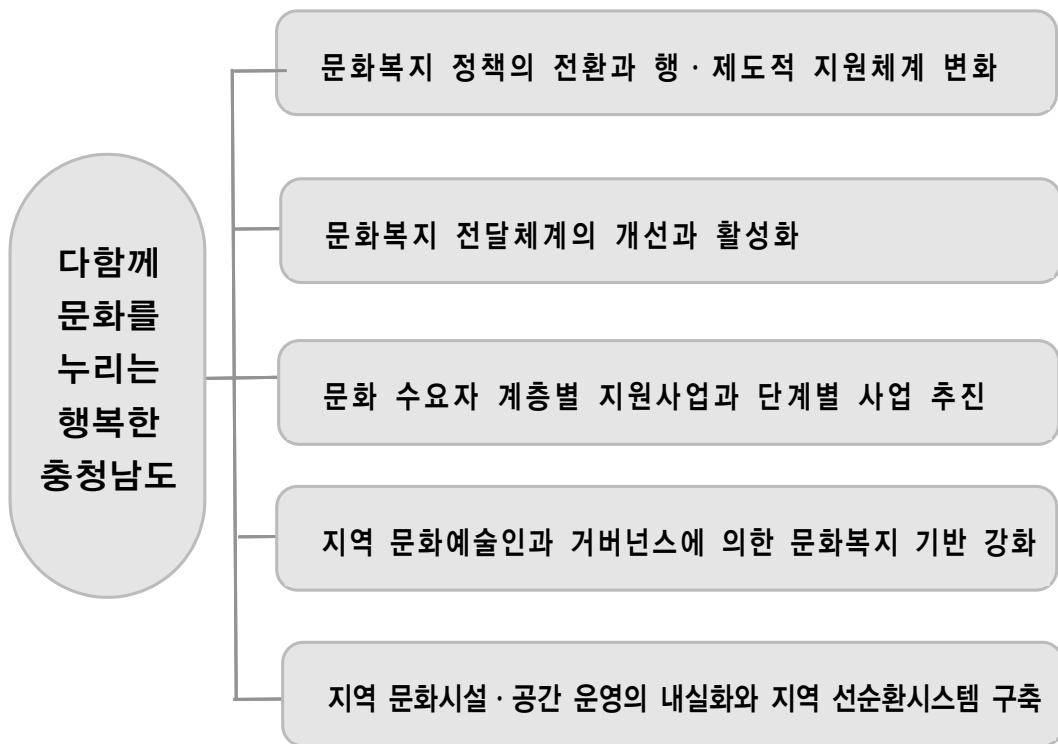
(1)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2)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3) 문화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4)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5) 지역 문화시설·공간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



[그림 54] 충남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1)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1) 충남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 ‘충남 도민 문화향유권 보장’ 내용 반영

충남은 지난 2002년 3월 30일에 ‘충청남도 조례 제 2981호’에 의하여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여기에서 공포된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4장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충청남도의 문화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충남도민들이 문화향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6월 28일 충청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에서의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에서 충청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2002년 3월 30일 공포) 현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으로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략)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1조(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략)

제14조(전문예술법인등의 지원·육성) ①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도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구분·운용)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중략)

제17조(기금의 용도)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위원회 및 전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 지원형 문화복지와 참여형 문화복지를 병행한 문화안전망 구성

그 동안의 문화복지 정책은 일반 사회복지와 문화복지 차원에서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선별적(지원형) 문화복지에서 보편적(참여형) 문화복지¹⁷⁾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 사회복지의 보편적 문화복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정광렬, 2011)

그러므로 문화복지 대상을 취약계층 중 자발적 선호·선택에 의한 대상자 중심의 문화복지 지원정책에서 문화적 장애요인을 가진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충남의 일반 도민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안전망 관점에서 선별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따라서 보편적 문화복지 패러다임을 통해 문화시장 및 예산을 확대하고,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은 경제적·신체적 장애와 물리적(장소), 사회적(시간), 문화적(향유능력·경험) 장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문화복지 대상 중 소외되는 도민이 없는 참여형의 문화적 안전망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문화복지 정책을 문화 향유 수요자를 고려한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유형별 문화복지 시책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시설과 공간을 접근하고,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에서는 지원형 문화복지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 경제적·신체적 장애로 지원이 없이는 문화활동을 할 없는 계층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물리적(장소), 사회적(시간), 문화적(향유능력·경험) 장애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계층은 일상생활권 중심의 문화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충남에서는 지역의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을 충남의 도립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공연을 실시토록 한다.

17) 그동안 문화복지 정책은 일반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에서 '선별적 문화복지'에서 '보편적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원형 문화복지'와 '참여형 문화복지'로 용어를 정의함.

● 충남 문화안전망 구축 및 운영사업

충남도에서는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천안시에 충남국악관현악단(1990.11.5), 공주시에 충남교향악단(1990.11.15), 부여군에 충남국악단(1994.12.19)을 창단하여 공립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지역순회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들의 공연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공립예술단을 활용한 충남 문화안전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

① 현황

-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향유를 위해 시·군 순회연주회와 지역문화 예술축제 지원공연을 추진.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벽지학교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개최함
- 충남교향악단은 지역 간 균형공연을 위한 지역순회연주회,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오지 도서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농어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

② 사업내용

- 충남 문화소외계층 대상(저소득층, 아동·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사업 강화
-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예총충남연합회의 도지회 등 예술단체 사업 참여
-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등과 사랑티켓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

③ 추진방안

- 사업기간 : 2014년부터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
- 추진방식 : 사랑티켓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

(3) 충남도민 문화향유실태 정기 조사 및 문화향유 목표 기준 설정 지속관리

충청남도에서는 최근에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일과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주거와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지역사회와 참여 총 12개 부문의 40문항이다.

☀ 2012 충청남도 사회조사(가구주용) 설문지 자료

■ 주된 여가 활동 및 횟수

문 4. 귀하의 여가활동 횟수는 월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월 평균 _____ 회)

문 5. 귀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선 순서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_____], [두 번째 : _____]

- ① TV시청 및 DVD 시청 ② 여행
- ③ 문화예술 관람 ④ 스포츠 관람
- ⑤ 스포츠 활동 ⑥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 ⑦ 봉사 활동 ⑧ 종교 활동
- ⑨ 창작적 취미(미술, 독서, 요리, 사진, 악기연주, 꽃꽂이 등)
- ⑩ 자기개발(어학, 기술·자격증 취득공부, 학원 등 이용)
- ⑪ 가사일(장보기, 청소 포함) ⑫ 휴식(수면, 사우나 등)
- ⑬ 사고 관련 일(친구만남, 친가방문, 동창회모임 등)
-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도내 선호 관광지

문 6. 귀하가 선호하는 충남 지역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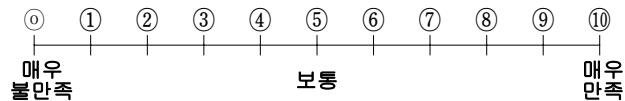
우선순서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 _____], [두 번째 : _____]

- ① 계룡산국립공원 ② 국립공주박물관 ③ 무령왕릉
- ④ 계룡산도예촌 ⑤ 상원골 계곡 ⑥ 국립부여박물관
- ⑦ 백제역사문화관 ⑧ 무량사 ⑨ 대조산 미륵보살
- ⑩ 관촉사 ⑪ 은진미륵 ⑫ 백제 군사 박물관
- ⑬ 독립기념관 ⑭ 현충사 ⑮ 태조산 청동대좌불
- ⑯ 온양온천 ⑰ 철백의총 ⑱ 대천해수욕장
- ⑲ 서산 마애삼존불 ⑳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문 7.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여기에서 문화와 여가에 대한 조사항목은 도민 참여여가활동 및 횟수, 도내 선호 관광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연계하여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 여가활동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하고, 충남의 문화예술중장기 계획(계획수립 중)에 반영하여 문화향유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충남의 문화향유 기준선은 최저기준(사회복지 최저생계비 형식)과 유도 기준(정책적 지향점)의 두 가지를 설정, 관리하고, 기준은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기준을 두고 읍면동 유형과 사회적 계층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이는 전국의 평균 문화향유율과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반영토록 한다.

● 충남도민 문화향유실태 정기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충남도에서는 최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충남 사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충남 도민 문화향유실태 정기조사 및 보고서 발간사업 추진.

① 현황

- 충남 사회조사에서는 설문항목이 도민참여여가활동 및 횡수, 도내선호 관광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 등 4개 문항으로 조사 및 분석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여가활동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② 사업내용

- 충남 사회조사 설문에 도민문화향유실태의 세부항목을 보강하여 조사 실시. 또는 별도 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가활동 조사 및 향유실태조사 자료 활용 분석 실시(문화체육관광부 협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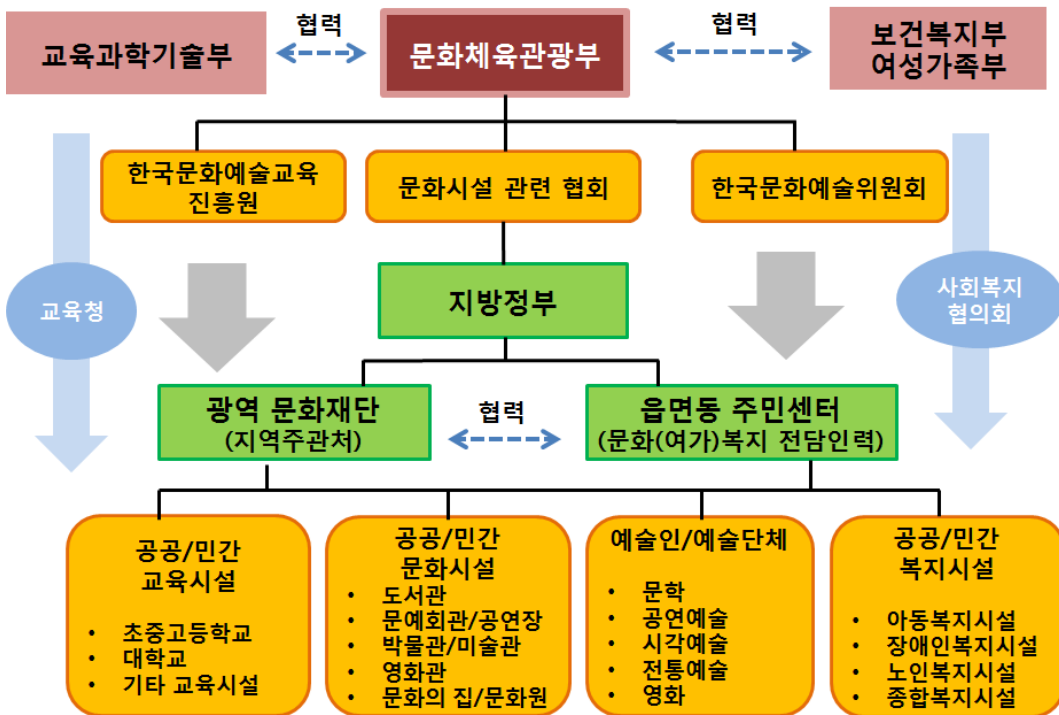
③ 추진방안

- 사업기간 : 2014년부터 매년
- 추진방식 : 충남문화재단,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적합기관 실시

2)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1) 통합적 문화복지 전달체계로 실행

현재 문화복지 시책의 전달체계는 정부로부터 시작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문화복지 사업을 시행한다. 민간조직은 문화복지 전달체계에서 정부와 밀접히 관련하는 협의체와 같은 민간조직이 적극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 민간조직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민간기관은 문화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최일선 현장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전달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문화복지를 대상자에게 전하는 개인전달자가 있는데 요원은 일정치 않다.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가 하면,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도 담당하고 있다.(최옥채, 2011)



자료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55)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

기존 연구(채옥채, 2011)에 의하면 문화복지 전달체계는 구조상 다중적이며, 단발적 운용과 조직의 취약성, 분서들 간 연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와 행정절차를 감안한 통합적 문화복지 시책의 실행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각종 문화복지 사업들이 시행부와 예산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여행·스포츠바우처’ 사업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맞도록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문화복지 사업의 통합 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문화복지 정책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으나 각 기관들 사이의 연계·협력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양혜원, 2012).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까지 이루어지는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앞의 <표 66>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복지 시책이 관련부서와 예산이 분리된 다중적구조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려가면서 실행부서나 담당자의 통합이 가능하므로 실행단계에서의 통합운용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66〉 충남 문화복지시책의 통합화 방안

구분	충청남도	15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단계	광역통합형	시군 통합형	주민자치통합형
주관	충남문화재단	시군 해당실과	주민자치센터
사업명	-사랑티켓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사업운영 및 연계	문화이용권 통합운영 (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

(2)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화와 문화복지인력의 확충과 전문화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복지정책의 핵심 실행자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한다. 읍·면·동 지방자치단체는 충남의 각 시·군내에 존재하는 각종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문예회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문화의 집, 문화원 등),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가 등과의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협력을 통해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자원발굴, 사업 협력, 사업홍보, 재능기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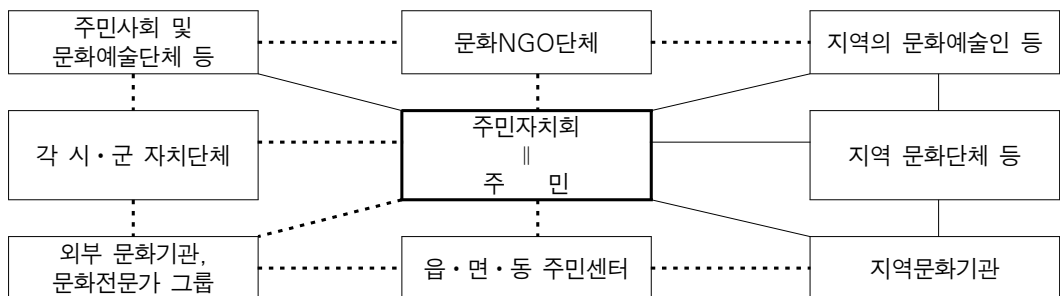
이는 최근에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민문화센터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편적 문화복지의 중심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는 충남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비중은 63.5%이며,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비중은 49.8%로, 현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것에서 그 역할을 알 수 있다.

〈표 67〉 전국 및 충남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2012년)

(단위: 개, %)

구분		계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 사회 진흥	기타
전국	합계	37,967	2,737	18,889	4,156	1,960	7,530	2,322	373
	비율	100	7.2	49.8	10.9	5.2	19.8	6.1	1.0
충남	합계	1,385	132	880	121	35	147	70	-
	비율	100	9.5	63.5	8.7	2.5	10.6	5.1	0.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복지사업의 협력 및 실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복지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총액인건비제도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각 시군에서 ‘문화복지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그림 56] 지역자치센터 중심의 문화복지사업 시행체계 구상도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며 입법화를 추진 중인 ‘문화복지사’ 제도에 맞추어 충청남도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충남 문화관련 사회적 기업의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참여

충남에는 문화예술 관련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들은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공예체험, 문화예술공연, 지역문화예술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표 68〉 충남 문화 관련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2013년)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시군명	업체명	주소	사업내용
충남형 제2011-041호	2011. 7.20	서산시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전통난장 공연, 전통혼례, 궁도체험
충남형 제2011-046호	2011. 7.20	논산시	(사)한옥체험업협회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전통문화 체험, 공연
충남형 제2011-048호	2011. 7.20	금산군	(주)위타연	충남 금산군 금산을 상리 24-1	공예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예품 제조
충남형 제2011-053호	2011. 7.20	서천군	전통예술단 혼	충남 서천군 군사리 636-3	공연, 문화예술교육, 해외문화교류
충남형 제2012-073호	2012. 3.23	아산시	주식회사 온주커뮤니티	충남 아산시 충무로 123	지역공연, 마을 행사기관 컨설팅

3) 문화소의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1) 맞춤형 · 생애주기 및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문화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은 주로 소외아동 · 저소득층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학교 문화예술 교육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문화의 특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생애주기별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 문화예술 교육은 소외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단계로, 일반시민의 문화역량 강화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초점을 둔 생애주기별 평생 문화학습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위주에서 유아에서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정광렬, 2011) 따라서 경제적 · 사회적 여건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수요 · 특성 · 주 장애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충남의 실정에 맞도록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한다.

중앙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시책과 프로그램 예시

-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 (학생) 전국 모든 학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청소년)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 할인, 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 도입
- (직장인)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및 직장동호회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 (은퇴자) 은퇴계층을 위한 골든에이지 캠페인과 자원봉사기회 제공
- (장애인)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2) 단계적 수혜 정책대상의 설정과 기존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

문화복지 정책에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설계는 먼저 어떤 계층을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현재 문화향유 수준이 다른 대상에 비해 낮은 대상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양혜원, 2012)

기존 연구(김휘정, 2012)에 의하면 정책 대상 우선순위의 선정을 고려하여, 문화복지 사업을 제정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혜대상을 제안을 하고 있다.

- 1단계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과 장애인·독거 노인·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 2단계 수혜자 : 지리적 소외계층
- 3단계 수혜자 : 군인, 아동·청소년, 중장년층, 전업주부 등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되거나 문화와의 접근성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일반 국민들

이상의 제안은 전국적인 문화복지 정책을 위한 정책대상의 설정 기준으로 이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문화복지 수요자들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복지 수혜 대상자 설정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 할 수 있는 조정은 다음과 같다.

〈표 69〉 문화복지사업의 재조정안

현행		재정비안	
복권기금	국고사업	복권기금	국고사업
문화바우처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지방문화회관 프로그램 지원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 우수문학도서 보급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 지자체 협력사업 등 장애인 문화복지 - 찾아가는 영화관 등 노인 문화복지 이주민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연계) 소외계층문화순회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우수문학도서 보급 생활문화공동체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역량 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복지 노인문화복지 사랑티켓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 문화멘토 사회적기업 양성

자료 : 김휘정(2012),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4)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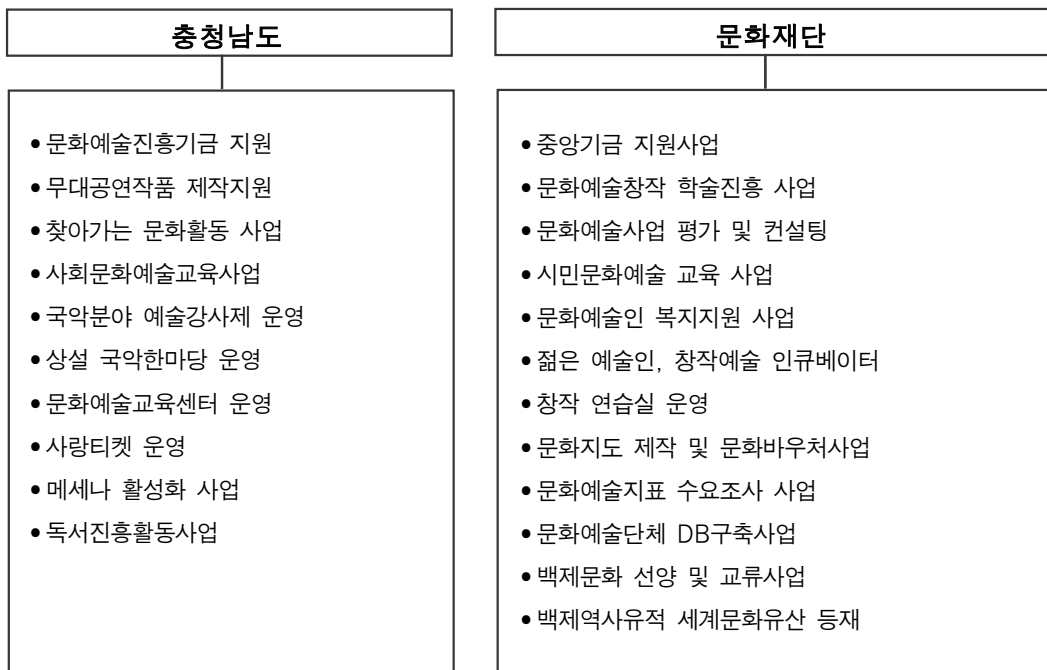
(1) 충남문화재단 중심 문화복지 시책 실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지역협력형 사업의 활성화 등 지역문

화정책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충남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권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충남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있어서도 충남역사문화 발굴사업 추진과 충남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등 지역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57〕 충남문화재단 주요업무(안)

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업무는 기존 사업계획에서 제외함

자료 :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 충남문화재단 설립 워크숍, 2011. 5.

현재의 충남문화재단 업무에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급자들의 복지업무는 다루고 있으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과 소외계층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충남 문화거버넌스로 문화복지정책 추진 네트워크 강화와 참여 활성화

문화복지 정책을 선택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복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기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문화거버넌스를 형성하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모델로 제시할 수가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간려된 기관(행위자)들이 함께 모여 충남의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거버넌스의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충남 문화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중심에는 앞으로 설립될 ‘충남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직접적으로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보다는 민간단체나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문화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지역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남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충남 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조직 및 단체, 개인사업자를 문화복지 대상자를 연결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문화재단, 읍면동주민자치센터(복지전담인력),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인/단체 대표’ 등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네트워크화 된 지역단체들을 특성별로 사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지자체문화재단(부천, 고양), 교육운동시민단체(의정부, 하남, 이천), 방과후 학교(안성), 대안미술공간(안성, 안양, 양평), 평생학습기관(광명, 고양), 문화원 또는 문화의 집(광명), 마을문고(용인), 지역공공문화센터(군포), 사설민간예술단체 및 공간(가평, 안산, 여주, 양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는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강화와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 영화 등 비주류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사업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순수 기초예술 및 독립·인디·다양성 장르 등 지원강화,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및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는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권리 보장, 지역 문화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사업 중에는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등이 있다.

이와 연계하기 위해서 충남에서는 문화예술인 창작 안전망 및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공공차원에서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의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남 창작안전망 및 생태계 구축과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

충남 문화예술인들에 직접지원방식으로 문화예술인의 개별지원을 확대하고, 간접지원방식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전개함

① 문화예술인 창작센터 설립

- 지역의 잠재력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를 선발하여 창작역량을 배양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육성하고, 문화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문화예술 창작 캠프 사업

- 지역의 유휴공간(폐교 등)을 창작캠프로 조성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창작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함**

③ 문화서비스 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예술인이 창작 → 지역주민들이 소비·향유·**문화소외계층 참여형 문화복지 사업추진** →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소득 증대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서비스 선순환체계 구축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안전망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의 방식 등을 추진한다. 직접지원방식은 그 동안의 문화예술인의 개별지원을 확대하고, 간접지원방식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충남도와 각 시·군별 또는 인접한 시·군별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등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지역 문화시설·공간의 활용과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

(1) 지역 문화시설·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 시책의 실시

도민들의 문화생활은 일상의 삶속에 문화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의 문화적 환경 조성 및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문화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각 시·군의 문화시설·공간을 활용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연구(양혜원, 2012)에 의하면 그간 지방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예회관 등이 상당수 확충되었으나, 이 공간을 운영할 인력과 콘텐츠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가동률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시설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인력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운영프로그램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 충청도내 각 시·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이 양호하면 지역내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전통문화와 지역고유 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역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주도하는 문화복지 운영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2) 읍·면·동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문화복지정책은 그 동안 도시, 대형 문화기관, 예술인단체 중심의 사업을 추진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문화복지 사업의 시행 및 전달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문화복지 사업의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문화활동이 필요한 장소가 그들의 생활권이다. 즉, 문화복지 정책은 생활현장, 생활밀착형 시설과 지역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전라북도, 2012).

따라서 행정단위에서 가장 생활밀착형 단위인 읍·면·동을 충청남도의 문화복지정책의 핵심단위로 설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유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는 문화복지서비스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권 중심의 문화복지정책이 시행될 때 앞서 제안된 선택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의 병행이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을 핵심단위로 하는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연계되는 행정의 문화복지정책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문화코디네이터 또는 문화복지사가 1인 이상 배치되어 생활권내 문화행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행정과 전문가, 문화예술 민간단체와 연결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문화복지 지원시책 추진

일반적 의미의 기업문화 지원활동은 영리추구를 목표로 기업의 문화적 인지도 제고,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환원이란 취지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공연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간 조성 지원, 전통문화보존사업, 기초예술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인을 양성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메세나)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기업체의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지역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충남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2013년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지원신청 공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3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부산시 사례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3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 조례 : 시·도 및 문화재단
- ☐ 사 업 비 : 350백만원
- ☐ 사업내용 :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법인기업체의 기부금 및 부산문화재단 보조금의 매칭 지원
- ☐ 참여대상
 - 기업체
 - 법인기업체에 한함(소재지 불문)
 - 문화예술관련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활동 실적이 있거나 가능한 단체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 불가
-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창작활동관련 전 분야
- ☐ 지원대상 : 4월 1일~12월 20일 사이에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 ☐ 지원규모 : 최대 2천만원
- ※ 기업체 매칭규모, 사업의 규모, 단체의 예술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매칭 지원금액 결정

2. 추진방향

- ☐ 예술단체와 기업체의 별도 신청, 결연 후, 매칭지원
-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우선 지원
- ☐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 심의 후, 지원대상 선정

3. 사업내용

- ☐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체의 유기적인 결연을 통해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직·간접 매칭지원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풍토조성과 지역 메세나 활성화에 기여

따라서 충남에서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한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되, 사업주관은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재단에서 충남 소재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복지는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복지 정책은 일반 국민 문화향유기회와 취약계층 문화복지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인식조사 결과 소외계층은 저소득층, 농어촌지역주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서 충남 도민 행복지수 측정 연구에서도 문화·여가부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충남 문화복지정책의 확대와 다양한 지원시책의 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과 과제도출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결과를 정책화하여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도 제고에 이바지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소외계층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충남 문화소외계층의 대상범위와 규모(계층, 유형 등)를 추정한다.

둘째, 충남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문화향유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 문화복지정책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충남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계획의 수립과 세부실천 전략에 적합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와 문헌고찰, 조사항목 및 실태조사 문항 도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연구회운영과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문화 소외계층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복지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사업 대한 사업추진계획, 집행, 성과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서민층의 문화향유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소외계층의 수요를 추정하고, 충남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 참여의식 조사, 사업추진 실태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공무원 및 사업대행자의 연구회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문화복지 이론고찰 및 관련 정책의 검토

① 문화복지의 개념 정의

문화복지란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로 볼 수 있다.

문화복지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문화적·정신적 풍요와 감수성 제고, 창의성 증진, 사회적 응집력 강화, 문화적 정체성 형성 등)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 또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물질적·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 반면, 문화복지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으로, 혹은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핍을 가진 문화적 약자를 예방, 치료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요구 및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 문화적 삶이 가능하

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서비스 등으로 정의한다.

② 문화복지의 대상과 영역

문화복지를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 정의할 경우 문화복지의 대상은 좁게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 및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넓게는 일반국민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연구 대상은 크게 보편적 복지대상과, 선택적 복지대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 선택적 복지대상은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여 법·제도상 문화향유를 위해 공공에서 정책지원을 받는 대상
- 보편적 복지대상은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은 계층에 속해 있지만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③ 문화복지의 정책동향과 추진실태

최근에서는 문화복지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변화하여 지원대상의 범위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명확해지면서, 문화복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문화와 일상생활의 연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로 구분되고 있다. 동시에 문화복지 대상도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예술 체험·교육 지원,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복지사업의 지원대상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소외계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복지정책 사업 중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집중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본다면,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나눔사업으로 ①문화바우처사업, ②공연나눔사업, ③문학나눔사업, ④전시나눔사업, ⑤창작나눔사업으로 구분된다.

주요 단위사업의 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사랑티켓지원 사업, 전통나눔사업, 문학나눔사업,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나눔사업(이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라 복권기금이 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을 받아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 사업은 복권기금 전입 문화나눔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2012년 문화이용권 카드이용률 72.3%(전국 15위/2013.12.31.기준)에서 2013년(5.27 기준)의 경우 카드이용률은 32.4%(전국 8위), 카드발급률은 87.0%(전국 7위)로서 2012년 보다는 높은 추진현황이다.

그러나 충남의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최근 카드이용률과 발급률을 높이면서 문화 소외 취약계층에 문화향유와 기회를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연나눔사업으로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을 연예인들이 찾아가 공연함으로써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적극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어 재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의 사랑티켓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예산의 한계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와 공모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남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①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②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③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향유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사업이나 문화적 소외계층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3)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와 소외계층에 대한 설문분석

① 충남 도민의 문화활동 성향분석

충남도민의 5명 중 1명 정도의 도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전체적인 문화향유를 위한 영화관람이나 대중공연과 같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 주민은 물질,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 문화생활에 관심이 없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관람의 경험도가 높아 소득 이를 고려한 문화활동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활동의 관심도 지역별로는 ‘동’ (55.4%), ‘읍’ (55.9%) 등 보다 ‘면’의 지역은 37%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이고, 실제 문화활동도 ‘동’ 지역의 경우는 87.8%가 참여하고, ‘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71.3%를 차지하여 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 단위를 읍, 면, 동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위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함을 의미하고 있다.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지역은 대부분 충남도내(86.7%)에 제한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충남도 지역을 벗어나 대전광역시나 수도권에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시군별로는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등은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행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등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도민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는 아직도 시간과 비용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예술활동시 우선 고려요소로는 문화예술행사의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람비용을 고려한 행사기획, 그리고 소득집단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직접적인 창작활동에 참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비용과 시간이며, 이는 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 참여비용은 소득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뚜렷한 차이 보이고 있어 소득집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아가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은 ‘동’의 주민이 ‘읍’, ‘면’의 주민보다 더 많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도시 지역과 달리 읍, 면의 경우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시설의 확충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시설 이용만족도에서도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도가 낮고, 문화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시설홍보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용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분명 소득 집단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문화시설 이용에도 소득계층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인식분석

충남도민들은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저소득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계층’ (48.0%)으로 응답하고, 다음으로 ‘건강, 노약자, 장애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계층’ (21.4%),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계층’ (15.6%), ‘시간과 여유가 없는 계층’ (8.2%),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 (6.7%)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제, 사회, 지리적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3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를 문화소외계층으로 인식하여 도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이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과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남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비용 지원’ (30.3%),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21.5%), ‘문화 전시시설 확대’ (19.9%), ‘찾아가는 공연 확대’ (19.1%) 순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시설 확충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46.4%), ‘지역 문화예술 양질화’ (18.8%) 등의 순으로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충남도민의 문화복지(문화나눔사업 등)사업 참여 실태분석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에 대한 참여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17.7% 응답자가 참여를 경험하였다. 참여경로는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

해' (38.5%),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를 통해' (38.0%),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 (21.4%) 순이고, 참여동기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 (46.5%),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이 좋아서' (27.3%),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 (2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비용의 적절성' (26.2%), '프로그램의 수준' (25.1%)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은 참여자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품질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에 참여경험의 어려움은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19.5%), '교통이 불편하다' (15.5%),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14.2%) 등의 순으로 문화나눔사업의 참여에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 이외에도 정보의 문제나 함께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도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교통편의 제공' 이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4.6점), '재미있는 공연' (4.5점), '수준높은 공연' (4.4점) 순인데, 이는 참여자들이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임을 말해주고 있다. 소득수준별 문화나눔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교통편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제공', '공연의 재미', '공연의 해설', '사전교육' 등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나눔사업의 개선이나 보완은 '문화나눔사업의 지원금액 인상' (46.8%),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교육 등)' (30.8%) 등의 순인데, 소득집단별 차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지원금액 인상' 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지원분야의 확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지원인력 보강' 등을 강조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읍·면'의 경우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분야 확대'를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동'의 경우는 '지원금액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충남도민의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지원을 위해 나아 가야할 기본방향은 기존에 다양한 문화복지사업과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추진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사업의 정비와 수요자에 맞는 시

책과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의 병행을 위하여, 도민 문화향유 인식변화와 문화복지 정책의 영역 확대, 문화 소외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지원 추진, 문화소의 지원시책의 발굴과 전달체계의 개선, 지역생활권 문화활동 참여제고와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 등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2) 목표와 추진전략

충남의 문화복지의 정책목표는 ‘다함께 문화를 누리는 행복한 충청남도’로 제시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문화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기반 강화, 지역 문화시설·공간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3)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①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

충남의 문화복지 정책의 전환과 행·제도적 지원체계 변화를 위해서는 충남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으로, ‘충남 도민 문화향유권 보장’ 내용 삽입과 선별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를 병행한 문화안전망 구성, 충남도민 문화향유실태 정기 조사 및 문화향유 목표 기준 설정 지속관리 등이다.

첫째, 충남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이다. 충남은 지난 2002년 3월 30일에 ‘충청남도 조례 제 2981호’에 의하여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충청남도의 문화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충남도민들이 문화향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별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를 병행한 문화안전망 구성이다. 문화복지 대상을 취약계층 중 자발적 선호·선택에 의한 대상자 중심의 문화복지 지원시책에서 문화적 장애요인을 가진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충남의 일반 도민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안전망 관점에서 선별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문화복지 정책을 문화 향유 수요자를 고려한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유형별 문화복지 시책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시설과 공간을 접근하고,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충남도민 문화향유실태 정기 조사 및 문화향유 목표 기준 설정의 지속적 관리이다.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와 여가에 대한 조사항목은 도민 참여여가활동 및 횡수, 도내 선호 관광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연계하여 충남도민의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 여가활동 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하고, 충남의 문화예술중장기 계획(계획수립 중)에 반영하여 문화향유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②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

충남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문화복지 전달체제로 실행,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화와 문화복지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충남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각종 문화복지 사업들이 시행부와 예산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여행·스포츠마우처’ 사업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맞도록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문화복지 사업의 통합 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복지 시책이 관련부서와 예산이 분리된 다중적 구조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려가면서 실행부서나 담당자의 통합이 가능하므로 실행단계에서의 통합운용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화와 문화복지인력의 확충과 전문화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복지정책의 핵심 실행자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한다. 읍·면·동 지방자치단체는 충남의 각 시·군내에 존재하는 각종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문예회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문화의 집, 문화원 등),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가

등과의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협력을 통해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자원 발굴, 사업 협력, 사업홍보, 재능기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현재 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며 입법화를 추진 중인 ‘문화복지사’ 제도에 맞추어 충청남도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

충남 문화 수요자 계층별 지원사업과 단계별 사업 추진은 맞춤형·생애주기 및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단계적 수혜 정책대상의 설정과 기존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첫째, 맞춤형·생애주기 및 단계별 평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단계적 수혜 정책대상의 설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초점을 둔 생애주기별 평생 문화학습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위주에서 유아에서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문화수요·특성·주 장애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충남의 실정에 맞도록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한다.

둘째, 단계적 수혜 정책대상의 설정과 기존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이다. 전국적인 문화복지 정책을 위한 정책대상의 설정 기준으로 이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문화복지 수요자들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충남에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에 이르는 문화복지 수혜 대상을 유형화 하고, 문화복지사업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시책 실행 강화

충남 지역 문화예술인과 거버넌스에 의한 문화복지 시책 실행 강화를 위해서는 충남문화재단 중심의 문화복지 시책 실행 강화와 충남 문화거버넌스로 문화복지정책 추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첫째, 충남문화재단 중심 문화복지 시책 실행 강화이다. 충남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권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현재의 충남문화재단 업무에는 문화예술인의 복지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급자들의 복지업무는 다루고 있으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지원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과 소외계층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간려된 기관(행위자)들이 함께 모여 충남의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거버넌스의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충남 문화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의 중심에는 앞으로 설립될 ‘충남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충남 문화거버넌스로 문화복지정책 추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충남문화재단이 출범되면 충남 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조직 및 단체, 개인사업자를 문화복지 대상자를 연결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문화재단, 읍면동주민자치센터(복지전담인력),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인/단체 대표’ 등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지역 문화시설·공간의 활용과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

충남 지역 문화시설·공간의 활용과 지역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시설·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 시책의 실시와 읍·면·동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다.

첫째, 지역 문화시설·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 시책의 실시이다. 지방에 있는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시설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인력확충과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운영 프로그램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 충남도내 각 시·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이 양호하면 지역내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전통문화와 지역고유 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지

역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주도하는 문화복지 운영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읍·면·동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이다. 행정단위에서 가장 생활밀착형 단위인 읍·면·동을 충청남도의 문화복지정책의 핵심단위로 선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유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이 되는 문화복지서비스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권 중심의 문화복지 정책이 시행될 때 앞서 제안된 선택적 문화복지와 보편적 문화복지의 병행이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을 핵심단위로 하는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연계되는 행정의 문화복지정책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문화코디네이터 또는 문화복지사가 1인 이상 배치되어 생활권내 문화행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행정과 전문가, 문화예술 민간단체와 연결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충청남도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남 도민의 문화향유실태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책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15개 시·군의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반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문화복지 지원사업별 전달체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깊이 있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구광모(1999),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기곤(2011),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11(2).
-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세훈·김정열·모선희·설동훈·김미곤(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영평(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 토론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발표논문집.
-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 김휘정(2012),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세계은행(2011),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 2011년 기준
- 양현미·김세훈·박영정·홍기원(2010), 사회문화예술 교육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문화바우처를 중심으로”, 2011년 개원 기념세미나 자료집,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이성태·도경민·조지영(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혜경(2006), 미래의 국민복지정책으로서의 문화복지-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 확대 방안. 문화복지 10년, 그 성찰과 전망.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복지협의회
- 우주희·이용식·임학순(2009), 서민문화정책 추진 전략-복권 기금을 활용한 서민문화정책추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2007), ‘사회성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자료집.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연·김수갑·전효관·이병량(2004),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 조사와 정책연계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문화사회연구소

- 이동원(2007), ‘행복연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5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심포 지엄 자료집, 삼성경제연구소
- 이종인(1987),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한국의 사회복지 : 현재와 미래. 아산사회복지 사업단 IV-4.
- 이흥재(2006), 『문화정책』, 서울: 논형.
- 이혜승(2011), 취약계층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연구원.
- 임원선 · 이현수(2006),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성장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임학순(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 정갑영 · 장현섭(1995),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 정광열 외(2011),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열 · 한경구(2004),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명희(2010), 전라북도 서민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제고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정철현(2004),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 채옥채(2011), “문화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2011년 개원기념세미나 자료집, 문화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종혁 · 이연 · 안태숙 · 유영주(2009), 문화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질적연구-휴먼서비스 실천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2)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남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향.
- 통계개발원(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
- 현택수(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12)
- 황현탁 역(1998), 문화경제학.
-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 Wyszomirski, Margaret J., “Raison d’Etat, Raisons des Arts: Thinking about Public Pruposes“, in Joni M. Cherbo and Margaret J.Wyszomirski(eds.), 『The Public Life of the Arts in America』 ,
- UNESCO(1998).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회의

□ 부록1. 설문지

--	--	--	--

『충남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의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을 수립코자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관람, 문화시설이용과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으로, 본 조사는 충남의 문화복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 6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이인배(041-840-1251, iblee@cdi.re.kr)
권미정(041-840-1256, mwhs@cdi.re.kr)

◆ **충남도민 문화생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생활은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참가·관람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1. 귀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 귀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행사**는 무엇입니까?

- ① 문학관련 행사 ② 미술전시회(사진 등) ③ 음악공연(클래식 등) ④ 연극, 뮤지컬 공연
⑤ 무용 공연 ⑥ 전통예술공연(국악 등) ⑦ 대중공연(가요콘서트) ⑧ 스포츠 경기관람
⑨ 영화 관람 ⑩ 기타()

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12번으로 가세요) ② 있다

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문화행사에 몇 번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 예술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일자 1일을 1회로, 2일은 2회로 환산하여 기입

예 술 행 사	1년 동안 관람 횟수	6개월 동안 관람 횟수	다음에 관람 의향(√표시)
①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회	()회	()
②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전시회	()회	()회	()
③ 음악공연(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등)	()회	()회	()
④ 연극, 뮤지컬 공연	()회	()회	()
⑤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회	()회	()
⑥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회	()회	()
⑦ 대중공연(가요 콘서트)	()회	()회	()
⑧ 스포츠 경기관람(운동장, 체육관 관람)	()회	()회	()
⑨ 영화관람(극장 등)	()회	()회	()

5. 귀하의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문화예술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문화활동은 예술행사관람, 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예술 관련 연습 및 교육, 문화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 축제 참여,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람, 역사유적 방문, 독서, 비디오 관람, 문화동호회 활동, 문화자원 봉사 활동 등 모두를 포함(TV 시청 제외)

-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2시간 ④ 2~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6.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관람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충남도내 ② 대전지역 ③ 수도권(서울, 경기) ④ 기타지역

7.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 ① 텔레비전·라디오 ② 신문·잡지 ③ 인터넷 ④ 안내문(현수막, 간판 등)
⑤ 공공단체·교육기관 ⑥ 주변사람(동호인 포함) ⑦ 기타 (_____)

8.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에 어떻게 참가**하시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두에 표시해주시요.

- ① 입장권 구입 ② 유료행사 초대권 ③ 무료행사

9.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는 주로 **누구와 같이** 가십니까?

- ① 혼자서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와 함께 ④ 동호회원과 함께 ⑤ 기타 (_____)

10. 최근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하여 **한달에 쓰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달 평균**(_____)원

11.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셨을 때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만족**하셨습니까?

평가항목	1점 ← 5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행사의 질	①	②	③	④	⑤
관람시설	①	②	③	④	⑤
관람비용	①	②	③	④	⑤
접근성(교통의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행사 홍보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교통이 불편해서 ⑤ 관련정보가 부족해서 ⑥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⑦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⑧ 기타(_____)

13.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실 때 **가장 우선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소요비용(관람비용) ② 행사 관람시간 ③ 접근성(교통편 등)
④ 프로그램의 질 ⑤ 문화행사 관련 정보 ⑥ 기타 (_____)

14.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명 공연 및 행사 개최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확충
- ③ 새로운 문화행사 발굴 ④ 가족단위 문화행사 확충
- ⑤ 관광객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발굴 ⑥ 기타()

◆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참여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귀하께서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신적이 있으십니까?

※ 백일장참가,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각종 경연(콘테스트)대회 참가, 연주회, 연극·영화출연 및 제작 등

- ① 참여하고 있다 ②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③ 향후 참여할 예정이다

16. 귀하께서는 창작활동을 위하여 문화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②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③ 향후 참여할 예정이다

17. 귀하는 현재 참여하거나, 향후 참여하시거나 한다면 어떤 동호회에 참여하시거나 하십니까?

- ① 문학(시·소설) ② 미술(회화, 사진 등) ③ 음악(국악, 대중음악) ④ 무용(고전, 현대무용)
⑤ 극예술(연극, 뮤지컬) ⑥ 영상(영화, 애니메이션) ⑦ 역사(보령시 유적) ⑧ 민속(민속놀이, 전통가옥)
⑨ 자연(산, 바다, 식물) ⑩ 기타()

18. 귀하께서 문화예술 동호회를 참여하시고자 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소요비용(동호회비 등) ② 참여시간 ③ 접근성(교통편 등)
- ④ 참가 동료(동호회 구성원) ⑤ 동호회 관련 정보 부족 ⑥ 기타 ()

19. 귀하께서는 문화동호회를 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평가항목	1점 ← 필요하지 않다. → 5점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모임(활동, 연습)에 필요한 상시공간	①	②	③	④	⑤
정기적 발표기회의 제공(대외활동)	①	②	③	④	⑤
전문지도자나 상담자(동호회 리더)	①	②	③	④	⑤
동호회 간 정보제공(교류활동)	①	②	③	④	⑤
질 높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지식습득 기회(교육기능)	①	②	③	④	⑤
관공서의 활동지원(예산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시설 이용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27. 귀하께서 문화소외계층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②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③ 문화를 관람할 시설이 없다 ④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⑤ 접근과 교통 등 이동이 불편하다 ⑥ 기타()

28. 귀하께서는 문화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연 및 전시관람료 비용 지원 ② 문화· 전시시설 확대 ③ 찾아가는 공연 확대
④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⑤ 안내 및 홍보 마케팅 확대 ⑥ 기타 ()

29. 충청남도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할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확대 ②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③ 지역문화예술 양질화 ④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성화
⑤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⑥ 문화관련 일자리 마련
⑦ 기타()

◆ 정부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 등과 같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귀하께서는 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 등 문화복지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인구통계 질문으로 가세요).

31. 귀하께서는 문화나눔사업에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지역의 문화 및 복지관련 기관을 통해 ②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등)를 통해
③ 주위사람의 소개를 통해 ④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⑤ 인터넷을 통해서 ⑥ 기타()

32. 귀하께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문화나눔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②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③ 지역의 문화, 복지 관련 기관의 권유로 ④ 학교 과제 및 선생님의 권유로
⑤ 기타()

33. 귀하께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의 적절성
 - ② 프로그램의 수준
 - ③ 문화행사의 기간 및 행사
 - ④ 주최단체, 출연진의 유명도
 - ⑤ 교통의 편의성
 - ⑥ 편의시설 구비여부
 - ⑦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보도
 - ⑧ 복지기관장, 문화기관장 및 이웃들의 권유
 - ⑨ 기타()

34. 귀하께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하셨을 때에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②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
 ③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④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
 ⑤ 시간이 나지 않는다. ⑥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⑦ 교통이 불편하다. ⑧ 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
 ⑨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다. ⑩ 기타()

35. 귀하께서 문화나눔사업 참여하실 때 다음의 지원항목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항목	1점 ←-----▶ 5점				
	전혀 필요없음			매우 필요함	
수준높은 공연 제공	①	②	③	④	⑤
재미있는 공연 제공	①	②	③	④	⑤
수도권 공연단 지방순회	①	②	③	④	⑤
찾아가는 공연	①	②	③	④	⑤
해설있는 공연	①	②	③	④	⑤
사전교육후 관람	①	②	③	④	⑤
식사 및 간식제공	①	②	③	④	⑤
교통편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36. 귀하는 문화나눔사업 중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나눔사업 지원금액 인상 ② 지원분야 확대(문화예술 교육 등)
 ③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④ 지원인력 보강
 ⑤ 강좌 및 프로그램 확대 ⑥ 기타()

◆ 다음은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 세
직 업	① 농·임·어업 ② 생산직 ③ 사무직 ④ 자영업 ⑤ 공무원 ⑥ 서비스직 ⑦ 전문직 ⑧ 관리직 ⑨ 대학(원)생 ⑩ 가정주부			
학 령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졸업 이상			
소 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이하 ③ 201-300만원 이하 ④ 301-400만원 이하 ⑤ 401-500만원 이하 ⑥ 501만원 이상			
거주지	충청남도 () 시/군 () 읍/면/동			

◆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2 : 1.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1차 연구회 결과정리

1. 개요

- 일시 : 2013. 1. 30 (수) 10:00 ~ 13:30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 내용 : 전략과제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내용 등 연구설계 자문
 - 향후 연구추진 일정 및 연구의 단계별 추진내용
 - 지역주민, 소외계층,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 연구진 구성 및 연구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등
- 참석대상 : 대덕대학 사회복지과 김 구교수,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이희창계장,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정명희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정선기교수 등

2. 토론내용

1) 정선기 교수

- 공적지원은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소외계층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폭을 소외계층 쪽으로 좁혀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
- 지원의 형태가 지역적·집단적·생산자별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선순환구조의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함
- 선순환구조는 단순히 향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원을 통한 문화가 선순환될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되는 것임
 - 시골마을의 문화적 자원(사람, 생활 전통, 문화)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성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의 경우 책임여주기프로젝트와 같이 은퇴교사를 활용
 - 문화예술인자체가 소외집단임에 따라 매개역할을 부여(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하여 문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함
- 행복과 문화는 논리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여가가 굳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

- 문화예술을 협의로 창작문화예술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닌 생활문화 등에 초점을 두고 폭넓게 접근하여야 함
-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에 따라 Sampling을 다르게 하여야 함
- 행복과 소외계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며, 특히 문화예술의 매개가 되는 사람이 중요하여, 공간, 인력,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함
- 수요자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매개,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자적 측면에서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2) 정명희 박사

- 전북도의 민선5기는 “삶의 질” 이 도정목표로 전북도에서는 사회복지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문화·체육·복지가 삶에 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에서 의견을 제시함
 - 전북도에서는 “삶의질정책과” 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전북연에서는 전북도의 수탁과제로 “도민의 문화향유실태조사” 를 수행하였으며, 여가를 문화쪽이 아닌 관광쪽으로 분리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삶의 질 관련하여 문화복지와 체육복지를 두 개로 “문화체육복지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함
 - 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문화소외계층과 사회적약자간의 개념의 일반화가 어려워 서민층으로 정리하여 연구하였으며 국가단위와 다르게 면단위로 단위별로 조사·연구에 접근하였음
 - 문화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은 문화코디네이터 제도의 신설을 통해 각시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문화바우처의 집행률을 높이고 문화향유를 높이도록 하였음(전라북도 시범대상지역)
- 정책적범위의 기초조사가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향유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체육을 생활문화공동체를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 찾아가는 문화예술버스사업의 경우 한계점을 내포함에 따라 작은박물관,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5개 시리즈를 2013년 역점적으로 추진함

- 조사범위가 너무 넓음에 따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향유하는 시간대, 장소 등은 통계지표로 포함됨에 따라 도에서 통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와 다르게 접근하여야하며 국가문화향유실태조사와 Sampling조사를 비교하여 연구하여야 함
- 문화복지사, 문화코디네이터의 체계적 양성

3) 김구교수

- 정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와의 전달체계에서 전달대상의 모호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문화여가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로는 실제 타겟대상을 명확히 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통계데이터 구축을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하여 제시함
- 운영시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실행인력, 집행의 문제,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나타나며 이는 문화가 전달되고 공연 등 이용에 대하여 문화코디네이터 등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사회복지의 경우 결식아동지원체계에서 실제 집행과정이 복잡하여 방학때에는 전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직접도민에게 전달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복지차원에서는 문화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의 초점에 맞추어 활용하여야 함
-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들을 정확하게 잡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전달체계 측면은 공급자 측면에서 언급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며 문화코디네이터 형태로 간다며 공급, 수요를 조절할 것이며, 전체적인 측면(공급자, 수요자, 매개자)에서는 접근을 향후에 해도 될 듯
- 연구범위를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갈 필요가 있음

4) 이희창 계장

- 정부에서는 중장기 문화예술정책(2014~)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본 연구와 부합되어야 할 것임
- 소외계층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가야 할 것임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만 해도 범위가 넓음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정리 필요
 - 문화예술인 소외계층도 포함되어야 함
- 문화복지사는 일정기간 교육 후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코디네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국가에서는 부분확대나 전체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문화향유실태조사는 연구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서 도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임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시 문제점
 - 주체(정책집행자)문제 :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마인드) 부족, 업무의 낮은 집중도, 담당자의 잦은 이동
 - 수요적문제 : 바우처 카드 기피(노년층), 카드이용처 부족

5) 박철휘 박사

- 공급 : 공간, 인력, 프로그램의 적절성, 공공 :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매개체 역할, 수요 : 수요자의 문화향유 참여 마인드를 정책지원에서 다 포괄해야 하는가?
- 김구교수 답변 ⇒ 본 연구 방향은 수요자의 성향, 실태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정책의 실행시 전달체계(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지역별특성,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6) 종합정리(연구진)

- 행복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논리 전개와 문화·여가 또는 문화(복지)의 용어 사용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용하여 논리보강과 용어사용에 대한 각주로 정리하겠음

-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 영역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제도와 법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지원사업을 재정리 하면서 사업별로 서로의 관계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착수연심회에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 연구방법론에서 설문조사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자문위원들께서 제안하신 도시와 농촌, 어촌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도민과 소외계층,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등의 연구 단계별로 적용하여 추진하겠음.
- 현재까지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분석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자료는 많으나 현재 충남도와 시군에 대한 정책 및 지원사업 자료는 매우 미흡하므로 도차원에서의 협조가 요청됨.

2. 충남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2차 연구회 결과정리

1) 개요

- 일시 : 2013. 5. 24(금) 14:00~16:00
- 장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충남 문화복지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 및 토론
- 참석자 : 총 8명
 - 서정민(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ACE문화예술교육연구소 문화이용권사업팀장), 정선거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진수계장(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민경원소장(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ACE문화예술교육연구소장)
 - 이인배선임연구위원, 이충훈선임연구위원, 김경태책임연구위원, 권미정 연구원

2) 문화복지사업 실태 및 문제점

- 충청남도의 고령화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읍·면 단위의 대상자들 중 노인층 비율이 상당히 높음. 이 때문에 노인층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해 주어도 문화카드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층이 아닌 젊은 층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자는 제안이 많았으나 젊은 층에게 모두 발급을 하여도 발급카드 매수보다 젊은 층이 적은 지역도 많음. 결국 노인층에게 일정 부분은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 본 사업의 취지로 볼 때 단순히 인식 부족을 이유로 노인층을 배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앞으로 지속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노인층에 대한 배제와 외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노인층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인층에 문화카드 발급이 아닌 기획사업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려 하여도 이 또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 우선 기획사업을 담당하는 주관처는 국가복지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 이로 인해 대상자 현황파악이 불가능함. 유관기관에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것조차 민감한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진행이 어려우며 결국 단체가 아닌 개인 대상자, 특히 독거노인층에 대한 관리는 더욱 힘들. 그리고 주관처 내 인력

운용의 제한(예술위 지침에 따름)으로 인해 4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이 근무하고 연간 10,000명 이상의 대상자를 행정상이 아닌 직접 행사 및 공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관처의 상황으로 볼 때 충청남도 전체에 산재해 있는 개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공연장 및 가맹점 접근성의 제약

- 문화카드를 발급하여도 사용할 곳이 없음. 상당수의 문화카드 가맹점들은 천안시, 보령시 등 도내 큰 규모의 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양(1개)과 같이 가맹점 수가 전무하다시피 한 곳도 많음.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중화 된 영화관조차 충남권에는 도내 규모가 큰 시·군을 제외하고는 없음.
- 가맹점의 분야가 일부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가맹점의 상당수는 도서 및 영화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소비가 이루어지기 힘들. 특히 노인층이 실질적으로 도서 및 영화를 향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음.
- 대규모의 공연을 기획사에서 진행할 시 인구가 많고 타 시도에서 접근하기 쉬운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작 천안 예술의 전당의 위치는 충남 도민들은 물론 천안 시민들에게조차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음. 이로 인해 많은 기획사 공연들이 대규모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기획사에서도 충남권 공연장보다 대전권 공연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주관처 운용

- 단위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주관처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계약직으로 구성된 운영팀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음. 문화이용권 사업이 문화복지사업으로써 가지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 충청남도는 충남문화재단이 없음.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문화이용권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 대학교가 가지는 이미지는 분명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나 기관으로써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충남문화재단 설립의 가속화로 충남에 산재해 있는 문화사업과 더불어 문화이용권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집중화를 이루어내고 상승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선정 및 진행

- 문화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더불어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임. 하지만 충남권 내 문화예술산업은 주로 소규모의 전통예술에 한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공연은 충남권이 아닌 타 시도에 상주하는 업체들이 충남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산은 국비와 더불어 도비, 시비로 충당하면서 실질적 이득은 타 지역이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프로그램 선정 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이 한정된 지원금이 나온다면 대중예술을 소비하기 위한 욕구가 압도적으로 큼. 순수예술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지원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3) 토론내용

- 정선기교수

- 문화바우처 사업은 전달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실행시스템의 정례화가 되지 않고 있음
- 문화재단 등 사업주체의 설립이 시급함
- 생산주체인 문화예술인의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과 네트워크 구축
-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하여 지원
- 이용권통합을 통해 이용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
- 바우처는 도시형 사업으로 광역으로의 모델개발이 필요
-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도시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이 필요

- 이진수 계장

- 문화바우처 사업 중 5만원의 효용가치가 있는가?
- 카드사업(시군청, 도청), 기획사업(위탁업체)에 분류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
- 제도적 정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읍면동으로 사업을 세부화시키지 말고 도나 시군차원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 바우처 사업의 통합에 따라 전담인력 필요

- 기획사업

- 수혜자 측면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 교부금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예산집행을 시군구에서 하며 문화예술단체(총 5개)를 지원함
- 충남의 문화예술의 특징을 반영한 사업 발굴
-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실시
- 바우처카드 발급자체가 공급자 주위에 입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편 필요
- 가맹업종의 확대 및 농촌형, 도시형의 패키지화 필요
- 아이템 확대를 통해 지침, 영역 등을 전달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철휘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태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권미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연구 · 정선기 충남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13-02 · 충청남도 문화소외계층 정책지원방안

글쓴이 · 이인배, 박철휘, 김경태, 권미정, 정선기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3년 12월 31일 / 발행 · 2013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51(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218-9 03350

<http://www.cdi.re.kr>

© 2013.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